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4
2012 April Vol.24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월빙콘서트
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

OPERA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Highlight



지휘·해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김성진



베이스 함석헌



바리톤 김태우

PROGRAM

도니체니 ·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

2012. 4. 26 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5주년 기념 축하공연

천원의 행복
Happy 1000 concert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NO.3

동유럽 정상의 하모니

루마니아 바나툴 주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FILARMONICA
BANATUL
TIMISOARA (BTO)

4.26(목) 7시30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누림회원 1,000원(1인 2매까지 할인) 일반 10,000원

예매처 |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출연진 | 배수진, 윤석, 유소영, 신현진, 윤장미, 정희연,
최현정, 이유정, 심재은, 희락양상블

관현악 | 루마니아 바나툴 주립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주최 | Sun&Fun HaeYDae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코리아쇼페라단 후원 |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



지휘자_ Radu Popa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슈아라 주립 오케스트라

천원의 행복
Happy 1000 concert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NO.4

안치환과
합창으로 듣는 7080

가수_ 안치환

2012. 4. 28(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누림회원 1,000원(1인 2매까지 할인) 일반 10,000원

예매처 -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주최 - Sun&Fun HaeYDae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Bee 부산콘서트콰이어



상임지휘자 전상철



부산콘서트콰이어

ALEXEY LEBEDEV

Busoni 국제콩쿨 2위 및 현대곡해석 특별상
Viotti 국제콩쿨 1위
Maria Canals 국제콩쿨 2위 및 2개의 특별상
Jose Iturbi 국제콩쿨 3위
Eugenia Verdet 국제콩쿨 1위
Guido da Venosa 국제콩쿨 1위
Maria Campina 국제콩쿨 1위
Euterpe 국제콩쿨 1위 및 청중특별상
Jeunes Talents 국제콩쿨 1위
Toscana Classica 국제콩쿨 1위
G.Campochiaro 국제콩쿨 1위
Ile de France 국제콩쿨 1위
Giuseppe Terracciano 국제콩쿨 1위
Huesca 국제콩쿨 1위
Peter the Great 국제콩쿨 1위
Daphne 국제콩쿨 1위

Pianist

알렉세이 레베데프 초청공연

Program

Salvador Brotons
Interludi per a la ma esquerra op. 47 no. 2
Ideals Utopics op. 10

Joseph Haydn
Sonata in As-Dur Hob. XVI: 46

Frederic Chopin
Mazurkas op. 24 no. 3, 4 (As-Dur, b-Moll)
Etude op. 25 no. 10

INTERMISSION

Maurice Ohana and Domenico Scarlatti
Preludes no. 1, 2, 3 (Ohana)
Sonata E-Dur L. 23 (Scarlatti)
Preludes no. 21, 22 (Ohana)
Sonata C-Dur L. 104 (Scarlatti)
Preludes no. 23, 24 (Ohana)

Manuel de Falla
Fantasia Baetica

2012. 4. 17(화)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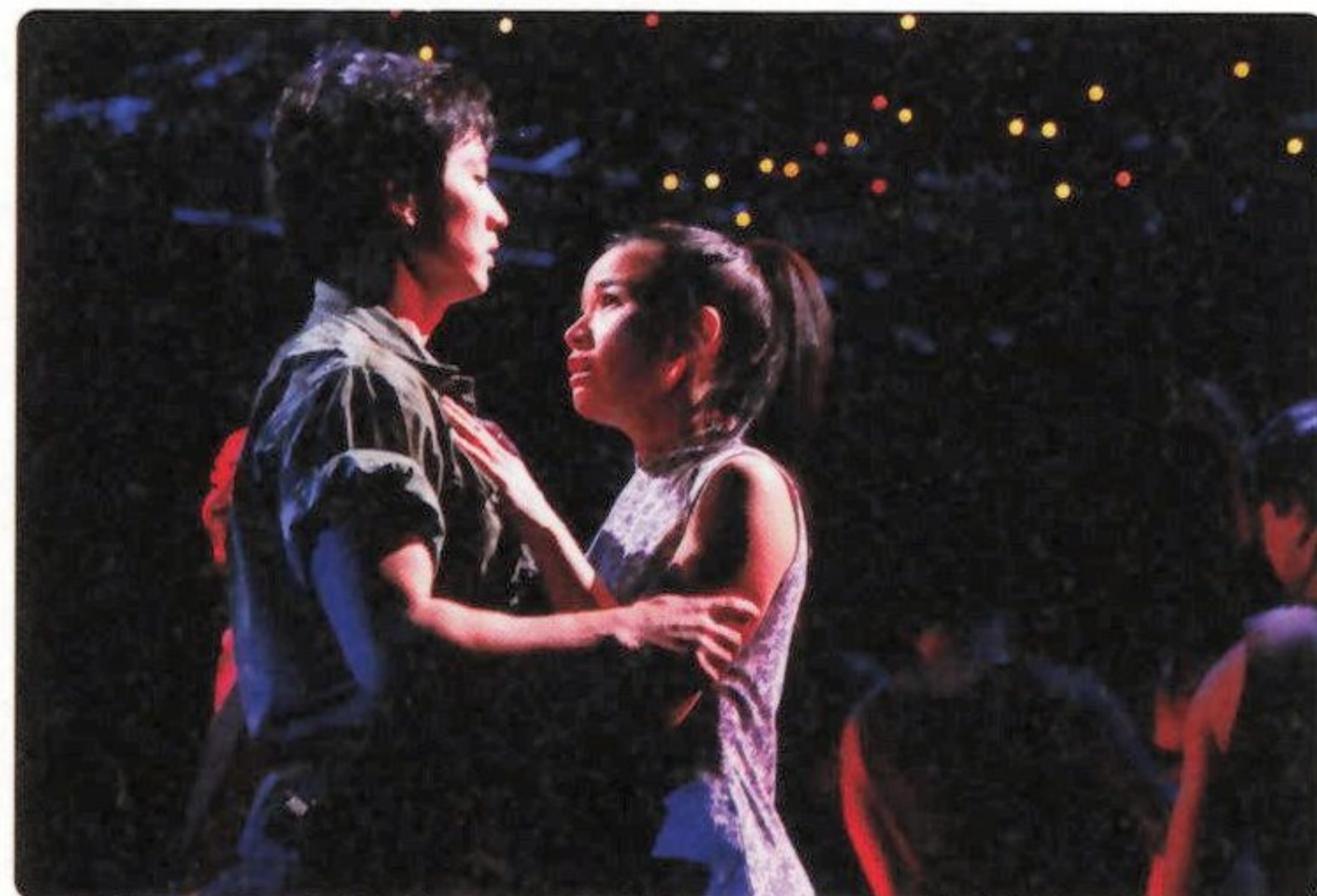
후원 : 경성대학교 부산은행 부산 Home plus 장림점 사마인터넷뉴스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 · 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생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 08 커버스토리 | 세계 4대 뮤지컬, 미스사이공 부산공연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 부산예총 신임회장 송영명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부산에 다다르지 못한 짐_ 이흥이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③ | 괴테와 구노의 <파우스트> _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로시니 ② | 위대한 희극 작곡가 로시니 _ 김종천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⑭ |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에서 시 읊조리는 매니아들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국내 최대 규모의 착시체험 미술관 트릭아이 미술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젬베 & 젬베폴리' 부산지역모임
- 32 리뷰
- 34 프로그램 가이드
- 50 나의 애청음반 _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로체르탄체 K354' _ 조영석
- 51 100자 토크
- 52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7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4월호 통권 244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3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부산공연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이
오는 4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이 오는 4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유료관객 점유율 80%, 대구, 김해 유료관객 점유율 90% 등 전국 각지에서 25만 여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으며 공

연계 최고 화제로 떠올랐던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1989년 영국 런던 초연 이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아왔다.

22년 만에 역사적인 부산 공연을 갖는 만큼 <미스 사이공>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폭발적이다. 서울의 대형공연을 제치고 2월 14일 1차 티켓판매 첫날부터 인터파크 전국예매순위에서 상위 랭크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3월 13일 2차 티켓판매에서는 1억원이 넘는 판매 기록을 보이며 인터파크 전국 3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선보이는 <미스 사이공>은 원 저작권자 카메론 매킨토시 측(CML)과 4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스토리와 한국어 가사를 완전히 수정, 보완하여 <미스 사이공>의 최대 강점인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와 가사를 더욱 살렸다, 또 실제로 무대에 차가 등장하는 '캐딜락 씬(scene)'이 추가되었고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엘렌'역의 신곡 'Maybe'의 처녀 발표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베트남 여성이 울고 있는 아이의 손끝을 붙잡고 있는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탄생되었다.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는 베트남 여성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원작자인 알랭 부브리외와 미셸 쇠베르그에게 강한 영감을 줬다. 알랭 부브리외와 미셸 쇠베르그는 이 사진에 푸치니의 오페라로 잘 알려진 '나비부인'의 이야기를 더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탄생시켰다.

일 시 : 4월 5일(목)~ 4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3:00, 7:30 / 일요일 오후 2:00, 6:30

* 4월 11일 오후 3:00 * 월요일 공연없음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미스 사이공의 저력은 드라마의 힘

‘뛰어난 가창력, 연기, 춤’이 어우러지는 <미스 사이공>은 한마디로 예술의 결정판이다.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 아이를 향한 애끓는 모성과 살인, 자살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에 더해진 감미로운 음악과 웅장한 무대 예술 등 뮤지컬이 지향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뮤지컬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의 베트남전을 소재로 1989년 런던에서 개막한 작품이지만 여주인공 ‘킴’의 사랑이 여전히 눈부시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드라마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20여 년이 지나도 관객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미스 사이공>의 미덕이자 장기 흥행에 성공하는 주요한 포인트.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1300:1의 경쟁률을 뚫은 실력과 배우들이 <미스 사이공>을 빛내고 있다.

연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성기가 엔지니어 역에 캐스팅되어 화려하게 무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계 최고의 스타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클 리와 한국 초연 <미스 사이공>의 신데렐라 김보경이 지난 공연에 이어 나란히 크리스, 김 역으로 출연, 한층 깊이 있게 배역을 소화해낸다. 특히 김보경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김보경’이란 예명을 얻으며 연약한 소녀에서 강철 같은 어머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감동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그 외 뮤지컬계 스타 이견명과 임혜영, 그리고 신예 이하나가 연기하는 크리스와 김도 설득력 있는 매력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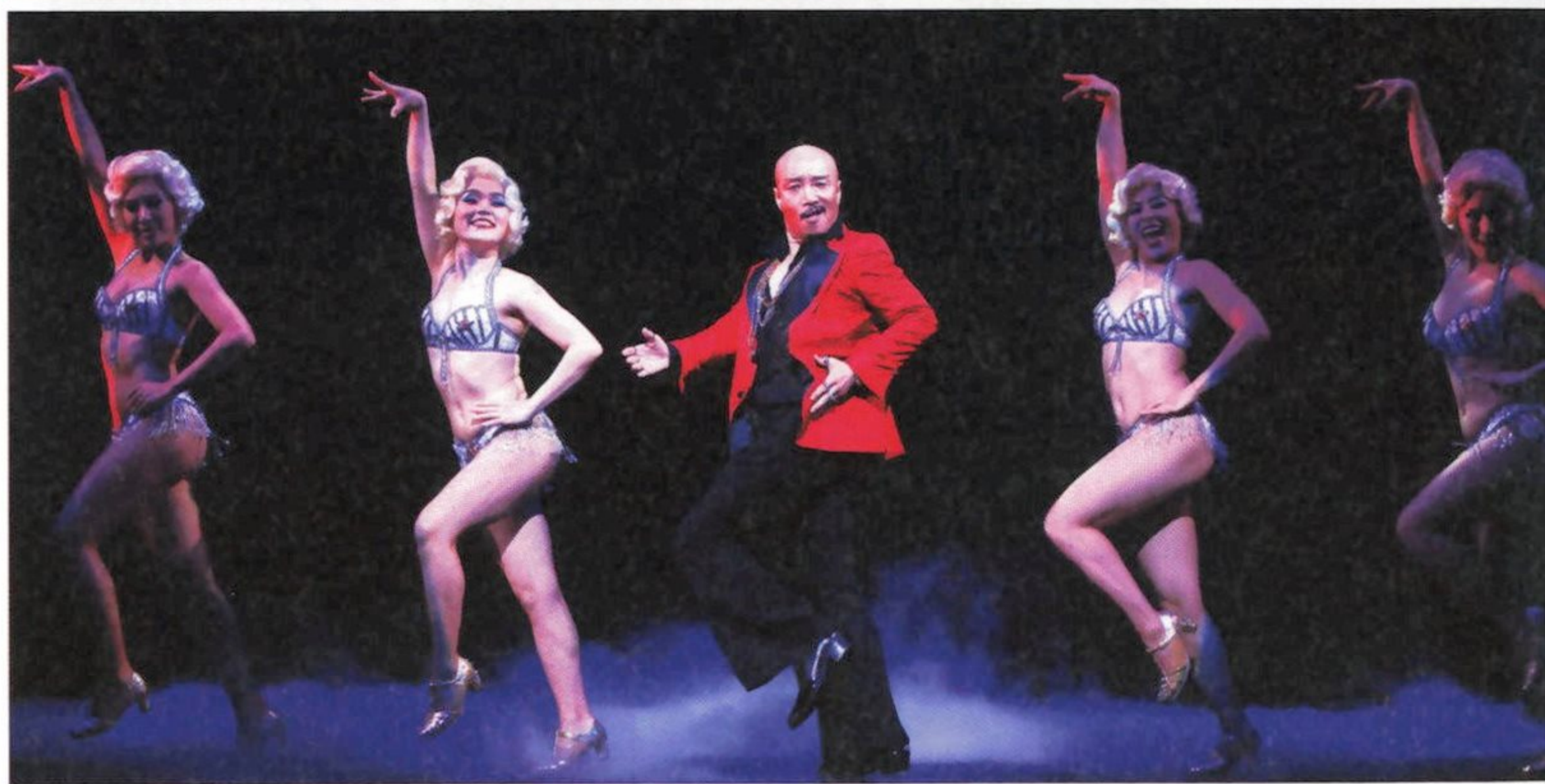
바닥을 울리는 진동과 실물감을 보탠 3D 특수영상,
4년 전보다 정교하고 단단해진 무대 - 조선일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호소력 짙은 사랑,
객석을 울리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 매일경제

‘이젠 우리도 이만큼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내는구나’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 뮤지컬평론가 원종원

자신이 선택한 운명의 굴레를 짊어지고 가는 김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과
어머니의 이름을 지닌 시시포스다. - 동아일보

마지막 총성, 관객들도 감전된 듯,
음악과 드라마의 숨이 멎을 듯한 조화 - 헤럴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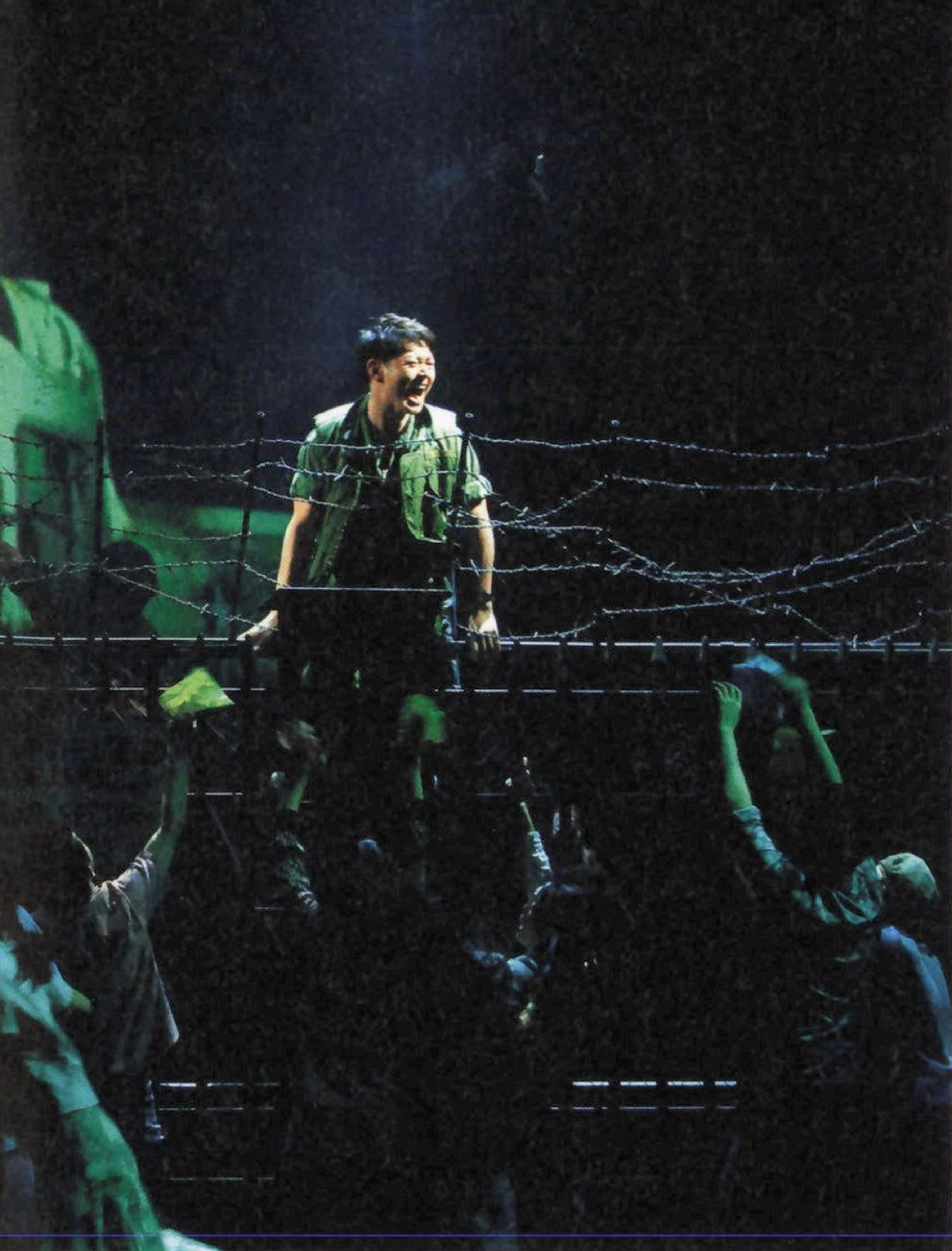


첨단 3D영상과 스타들이 사랑하는 음악

이번 프로덕션에서는 화제가 되어오던 ‘헬기 장면’을 첨단 3D영상으로 생생하게 처리하고, 무대 비주얼을 강화하여 베트남과 방콕 거리를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김과 크리스의 러브스토리를 한층 리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스 사이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중독성 강한 음악이다.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의 2007-08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컨셉트였던 <미스 사이공>의 음악은 또 한 번 세계인을 감동시킨 바 있다. 또 소프라노 조수미도 최고의 뮤지컬로 <미스 사이공>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앨범 <Only Love>에 김과 엘렌의 이중창 ‘I still believe’를 넣기도 했다. 주연을 맡은 김보경과 이견명은 김과 크리스로 무대에 오르는 날을 꿈꾸며 <미스 사이공>의 음악들을 항상 불러왔다고 한다. 2012년 4월,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하는 최고의 <미스 사이공>이 부산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또 다른 시대의 희생자 기회주의자 : 엔지니어

베트남전 전후의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역사의 희생자인 강한 카리스마의 캐릭터.

- 김성기** 2001년 제7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제1회 대구뮤지컬어워즈 덤프스타상
- 임춘길** 2002년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



때묻지 않은 용기의 여인 : 김

전쟁으로 인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미군을 상대로 한 술집에서 일하는, 그러나 순수함을 잃지 않는 베트남 소녀 김. 미군 병사 크리스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뜨거운 열정 이면엔 부모가 정해준 약혼자 투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결연함도 지니고 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다.

- 김보경** 2007년 제1회 대구 국제 뮤지컬페스티벌 여자신인상
- 임혜영** 2009년 제3회 더 뮤지컬 어워즈
2009년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신인상
2011년 KBS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 이하나**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재학중



인간적인 고뇌의 미군 : 크리스

베트남전에 출정한 미군 크리스는 전쟁과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벌이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회의를 느끼다 베트남 여인 김의 순수한 매력에 이끌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 마이클 리** 1998년 Gerland Award 베스트 앙상블상
1999년 Los Angeles Ovation Award
베스트 뮤지컬 배우상 노미네이트
- 이건명** 2001년 한국뮤지컬 대상 신인상
2003년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2006, 2007년 대구 뮤지컬 어워즈 인기스타상
2011년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

Preview

50th 1962-2012
ANNIVERSARY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8회 정기연주회

|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왼쪽부터
지휘 이병욱
플루트 최나경

● ● ●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과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8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지휘자 이병욱(Christopher Lee)은 5세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수석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국가 장학금을 받으며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뉘른베르크 심포니, 괴팅엔 심포니, Bohuslav Martinu 필하모니 등을 객원 지휘하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부지휘자와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OENM의 수석객원지휘자를 역임하고 귀국 후에는 KBS 교향악단, 부천 필하모닉, 코리안 심포니, 원주시립교향악단, 충남교향악단 등을 지휘하였다. TransArt Orchestra Salzburg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욱은 G. Staebler의 '오후의 태양' (세계초연), '마술피리', C.W.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Orfeo ed Euridice)' (한국초연) 그리고 국립오페라단과 R. 스트라우스의 '살로메(Salome)'를 지휘하며 오페라 지휘에도 그의 탁월한 재능을 선보이고 있다.

플루티스트 최나경(Jasmine Choi)은 22세의 나이로 미국 신시내티 교향악단(음악감독 파보 예르비)의 부수석 주자 오디션에서 187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해 관악전공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 교향악단에 입단해 주목을 받았다. 최나경은 미국의 음악잡지 심포

니로부터 2006년과 2007년 연속 '떠오르는 연주자'로 선정되었고, 일찍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로부터 '강한 소리를 가진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서울예고 1학년 재학 중 '커다란 센세이션'이라는 플루트의 거장 줄리어스 베이커의 극찬을 받으며 미국 커티스 음대에 입학한 최나경은 이후 줄리어스 베이커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을 같이 공부한 그의 마지막 제자로 미국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나경은 이번 무대에서 미국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인 리버만 '플루트 협주곡'을 들려준다. 리버만의 '플루트 협주곡'은 전통적인 조성과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모험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곡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느낌이 만연한 가운데 플루티스트의 비르투오소적인 기교와 기량이 청중들을 매료시킨다. 1994년 The National Flute Society(미국플루트협회)는 이 작품을 근대 플루트 협주곡 중 최고라고 평가했다.

리버만 '플루트 협주곡' 외에 슈베르트다운 쾌활함과 명랑함이 느껴지는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슈만 특유의 시상과 낭만파다운 개성과 걱정이 넘쳐흐는 슈만 교향곡 제4번을 함께 연주한다.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특별연주회

Choral-Festival Missa

|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객원지휘 전상철

● ● ●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연주회 두 번째 무대 'Choral-Festival Missa'가 4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부산시립합창단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객원지휘, 시각장애우 플루티스트 오영인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악보 및 작·편곡 담당작곡가 최석태의 '페스티벌 미사'를 4부 합창으로 재편곡,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축제적 연주를 기원하는 축제의 서막을 연다.

객원지휘를 맡은 전상철 지휘자는 섬세하고 풍부한 화음으로 감동을 주는 지휘자로 부산시립합창단의 기획을 맡아 부산시립합창단의 대외적 위상제고에 열정을 쏟은 바 있다.

1부 무대를 장식할 'Choral-Festival Missa'는 2008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순회공연의 위촉곡으로 당시 3부 구성으로 초연된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12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40주년에 의미를 붙여 매 공연의 축제화를 위한 기도문처럼 연주한다.

'Choral-Festival Missa' 외에도 합창으로 듣는 기악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차이코프스키의 현악4중주 제1번 라장조'와 흑인영가 무대 'Swing low, Swing chariot' 'This little light O'mine' 'Ev'ry time I feel the spirit'을, 2부 무대에서는 구노 아베마리아를 비롯해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과 가거든, 마법의 성 등 가요, 민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공연이 이루어지는 4월 20일 '장애우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우 플루티스트 오영인이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출연자로 무대에 선다.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한 오영인은 서울 바로크 합주단, 대구 조이 챔버, 대구 뉴 필 하모니아, 서울심포니, 독일 뷁르츠부르크 챔버, 부산플루트앙상블과 협연 무대를 가지며 연주활동을 이어왔다. 오영인은 현재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플루트 오영인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Ⅱ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

|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왼쪽부터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김성진
베리스 함석현
바리톤 김태우

여성과 주부들이 편안한 오전 시간, 여유로운 클래식 공연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두 번째 무대 '사랑의 묘약'이 4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무대 예술의 결정체인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2012년 웰빙콘서트는 가장 인기있는 대중적인 오페라 작품을 선정, 오페라 작품 속 주요장면과 유명 아리아들을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무대로, 오페라 작품 전체의 감동이 살아있는 오페라 콘서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와 해설을, 명신대학교 예술대학 유철우 교수가 연출을 맡아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감동을 선사한다. 사랑의 묘약은 스크리브의 대본을 기초로 로마니가 각색한 작품으로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요소를 살린 낭만적 수작이다. 19세기 전반의 작품이지만 로시니의 희극과 같은 생기와 즐거움이 적고, 시대적 낭만과 문예 사조의 영향을 받은 아름답고 서정적 목가곡이라 할 수 있다. 도니제티가 35세에 쓴 이 작품의 화성과 관현악법은 그의 원숙기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노래의 매력은 충분하며, 드라마의 내용보다 벨칸토 창법의 가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래를 위한 오페라라 할 수 있다. 특히, 2막에서 네모리노가 부르는 아름다운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사용

될 만큼 유명한 곡이다.

4명의 성악가가 주요 배역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농장주의 딸인 아름다운 아디나역에 소프라노 고예정, 마을의 순진하고 소박한 청년 네모리노역에 테너 김성진, 군인 벨코레역에 바리톤 김태우, 돌팔이 의사 둘카마라역에는 베리스 함석현이 출연한다.

소프라노 고예정은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국제성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 다부르초국제성악콩쿠르, 조반니 칸탄티 리리치콩쿠르 등에 1위 입상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콩쿠르 1위, 파리 국제콩쿠르 2위,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콩쿠르 3위 등을 수상한 테너 김성진은 현재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외 베이스 함석현은 이탈리아 메라노국제성악콩쿠르, 스페인 자코모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독일 쾰른 국제성악콩쿠르 등에 입상하고 국립오페라단, 이탈리아 메라노 극장, 독일 할레 오페라 하우스, 독일 바트라우흐슈테트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바리톤 김태우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극단 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Oresteia)

| 4월 26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00 토-일요일 오후 3: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제39회 정기공연 '페드르'

● ● ● 3월 낭독공연으로 연극애호가들과 만난 부산시립극단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3부작 '오레스테이아(Oresteia)'로 2012년 첫 정기공연 무대를 연다.

'오레스테이아'는 아이스킬로스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리스의 3부작극 중에서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BC 458년에 처음 공연되었다. '오레스테이아(Oresteia)'는 주인공 오레스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가멤논(Agamemnon), 코에포로이(Choephoroe), 에우메니데스(Eumenides)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3부작은 아이스킬로스 특유의 장엄한 시구와 웅대하면서도 몸서리나는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 신(神)의 뜻을 단순히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절대적인 규범에 속박 당하면서도 자기의 행위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존재의 근본을 장엄한 극으로 창조해낸 작품이다.

트로이전쟁에 나가던 그리스군(軍)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여신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으로 역풍이 불자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다. 아가멤논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딸을 죽인 남편에 대한 분노로 떨다가 승전하고 돌아온 아가멤논과 그가 데려온 카산드라를 살해한다.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는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부를 죽이고 "아들아"를 연발하는 어머니마저 죽이고 만다. 어머니의 살해범으로 비난을 받는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정당한 복수라고 자신을 변호한다. 재판은 유죄와 무죄가 가부동수가 되고 재판장 아테네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고 아르고스의 왕위에 오른다.

이번 무대는 연출가 김지용이 고대 그리스의 고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아대학교 재학중 제1회 부산대학연극제 대상, 연출상(페스트-A.까뮈작)을 수상한 김지용은 제23회 부산연극제 희곡상(PLAY_Oasis)을 비롯해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가출소녀 우주여행기), 제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과 희곡상, 연출상, 제24회 전국연극제 금상(PLAY5_Mankind history),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2010년 제28회 부산연극제 연출상(The solar system)을 수상하며 부산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제2회 부산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김지용은 현재 프로젝트팀 이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Preview

제9회 부산국제연극제

Hello, Asia! 아시아의 재발견

| 5월 4일(금) - 5월 13일(일) | 부산문화회관 등 부산 시내 공연장 |

● ● ●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2012 축제가 5월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가 선택한 컨셉은 'Hello, Asia'. 오래된 전통적 유산이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연속되면서 보존되고 있는 아시아는 또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의 유입에 따른 탈 아시아화, 혹은 서구화의 현대모습을 보여주는 '중층성(重層性)'의 모습을 띠고 있다.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아시아의 공연예술이 오늘날 이 중층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동시대의 가치관과 아시아의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세계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아시아 국가의 연극을 통해 찾아보는 무대이다.

올해는 이 시대 아시아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 개성을 담은 뉴질랜드, 대만,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한국 등 7개국 11개의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연극제 전체 프로그램은 'Hello, Asia'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BIPAF CONCEPT'와 컨셉 이외의 세계 우수 작품으로 구성된 'BIPAF OPEN'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초청작품 외에 2013년 프랑스의 아비뇽 OFF 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Go, 아비뇽 OFF' 경연제를 신설하여 축제 기간동안 국내 12개의 작품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입장권 : 개/폐막 공연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일반공연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전 공연 프리패스 카드 10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www.bipaf.org)



● 제9회 부산국제연극제 포스터



● 개막작 '수유기'



● 폐막작 '이방인'

Hello, Asia!

● ● ● 제9회 부산국제연극제의 첫 포문을 여는 개막작으로는 중국 사천성천극원의 <수유기>가 선정되었고 폐막작은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의 <The arrival> 이 선정되었다. '수유기'는 삶의 고난과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가는 기생 '이아선'의 뛰어난 지성과 남편을 향한 사랑, 순정을 그린 중국의 전통극이다. '수유기'를 통해 중국 국가 선정 1급 예술극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사천성천극원'의 수준급 연기와 함께 동양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중국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극인 '천극'을 만날 수 있다.

폐막작 <The Arrival(이방인)>은 초현실적인 시간과 장소를 여행하는 한 남자의 삶을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쉐인 탠(Shaun Tan)의 그림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고단함, 그에 대한 위로와 연대를 그린 세계적인 대작이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와 LG아트센터 공동초청작으로 부산 무대에 오르는 <The Arrival(이방인)>은 2010년 뉴질랜드의 연극상인 'Chapman Tripp Theatre Awards'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부산국제연극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매년 즐거움을 선사해온 다양한 부대행사들은 2012년에도 이어진다. 공연예술 전문인의 자질 향상과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BIPAF 워크숍, 배우와 관객이 만드는 소통의 시간 '관객과의 대화',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거리 쇼케이스 공연,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놀이터 BIPAF ZONE 등이 마련되고 7월과 12월에는 청소년 연극캠프가 열린다.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10분 연극제'는 '일반부'와 '전공대학부'로 나누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연극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BIPAF CONCEPT

개막작 수유기 사천성천극원 _중국
1:0 M.O.V.E. Theatre _대만
Suddenly Married SEINEN DAN _일본
자장가 연희단거리패 _한국

BIPAF OPEN

폐막작 The arrival Red Leap Theatre _뉴질랜드
병사이야기 플라스 극장&아시아나우 프로덕션
(벨기에&한국 공동제작)
개똥할매 극단 맥(한국 & 이탈리아 공동제작)
길 극단 더블스테이지 _한국(부산 공연제작 사전지원 작품)
코마치후덴 연희단거리패 _한국(자유참가작)
짹짹 공간아트컴퍼니 _한국(자유참가작)
2012 부산연극제 대상작

경연프로그램 Go, 아비뇽 OFF

굿거리 트로트 극단 자갈치
엄마, 안녕 연극놀이터, 씬
조용한 어항 극단 누리예
천하제일 남가이 극단 하땅세
행복한 리어커 아트 컴퍼니 행복자
환청 극단 그림연극
Brother 댄스씨어터 창
연옥 : 이탈한 자가 문득 극단 거미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꿈동이 인형극단
FACE 극단 ETS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Factory 1+1+1
□ 임프로드바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국제연극제 초대 이벤트

4월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게시판에 공연관람을 신청하신 분을 추첨하여 초대권을 드립니다.
- 공연당 5명, 자유참가작 코마치후덴, 짹짹 제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향유하는 환경 조성”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시연합회 신임 회장 송영명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상상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준다. 새봄과 함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시연합회(이하 부산예총)회장으로 취임한 송영명 신임 회장도 2012년 새봄 부산문화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당선의 기쁨보다 요즘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제 예총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취임 후 보름이 지났지만 송영명 신임회장은 지역 예술인과 선후배 예술인들, 시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신임회장으로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카피처럼 그에게 칠순의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산 화단을 대표하는 구상화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송영명 회장은 1962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지역 초·중·고교 미술교사, 구포중학교와 부경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열혈 활동가이다. 정년퇴직 후 2007년부터 부산미술협회 회장을 맡아 부산미술계를 위해 봉사한 만큼 부산지역 문화계 사정에도 밝다.

4년 임기동안 송영명 회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d 예술인들과 시민과의 소통을 화두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작만이 예술인의 책무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예술인들의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 교감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부산예총을 비롯한 10개 산하단체는 시민과 예술과의 교감을 위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송영명 회장. 부산미술협회 회장 재임 중 고신대학교 병원, 백병원, 효성시티병원 등 부산지역 6개 병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시민들이 딱딱한 병원 공간에서 쉽게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병원 갤러리를 제안해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저녁 식사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 공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지역 병원에서 만나는 미술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당장 큰 변화는 거둘 수 없지만 소규모의 지역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감성이 살아날 것이라는 송영명 회장은 관객들이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예술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민들의 감성을 깨우기 위해 취임 후 가장 큰 고민은 지난해 지역 예술인을 위해 문을 연 부산예술회관 운영 방안이다. 부산예술회관 명칭에서부터 공간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고 있는 송영명 회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공간인 만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폐교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이 작은 마을에 가나자와 미술관을 조성해 세계적인 명소로 키웠고 스페인의 작은 항구도시 빌바오가 조선 산업의 위기에서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부산의 지역 특성을 갖춘 예술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평생 예술 활동을 한 원로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수도권에 편중된 문예진흥기금 문제 등 그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송영명 회장은 취임 후 부산예총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그의 그림 110점을 기증,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알리기도 했다.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는 강인함과 오랜 행정 경험으로 부산예총의 변화를 이끌어갈 송영명 회장. 부산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선후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 올린 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그려본다.



바이링구얼(Bilingual) 연극의 매력 부산에 다다르지 못한 <짐>

| 정복근 작, 사카테 요지 연출 |

이홍이_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희곡번역가

2000년대가 되면서 한일 연극계의 교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양국의 작품이 서로에게 소개되고, 번역되어 공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작품을 만드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강 건너 저편에>(히라타 오리자, 김명화 작/이병훈, 히라타 오리자 연출), <야키니쿠 드래곤>(정의신 작/연출)과 같이 많은 관객들을 만나며 큰 호평을 받는 작품도 탄생했다. 이와 같은 합작연극은 왜 두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두 언어를 쓰는 데에 대한 필연성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고 신선한 표현형식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새로운 도전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2008년부터 매해 한국을 찾는 연출가 타다 준노스케(多田淳之介)가 그 중 한 명으로, 지난 11월 소극소극장에서 부산 배우들과 함께 <LOVE>를 무대에 올린 뒤, 12월 서울에서 <재/생>이라는 작품으로 한일 배우를 출연시켰다. 그는 이전부터 <로미오와 줄리엣>(2008년 아르코소극장, 2009년 남산예술센터, 후지미☆키라리 멀티홀), <LOVE the world 2010>(후지미☆키라리 멀

티홀), <LOVE ver.2010>(원더스페이스극장)에서 계속해서 한일 배우들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해왔다. 한편 작년 연말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단 카키쿠우카쿠(柿喰う客)와 한국의 극단 연극미가 공동으로 제작한 <검찰관>이 도쿄에서 공연되었고, 일본의 극단 포카린 기억사(ぽかりん記憶舎)가 <WæNDERING>이란 작품으로 한국배우들을 불러 도쿄와 코치(高知)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이밖에도 한일 합작작품의 사례를 찾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쉬운 점은 교류의 횟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한국작가들의 작품이 그다지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작가 정복근의 작품 <짐>이 한일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는 귀중한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렇게까지 근대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작품이 일본 무대에 오른 적이 있었을까? 연출을 맡은 이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연출가 사카테 요지(坂手洋二)로, 번역 역시 베테랑 번역가 이시카와 쥬리가 담당했다.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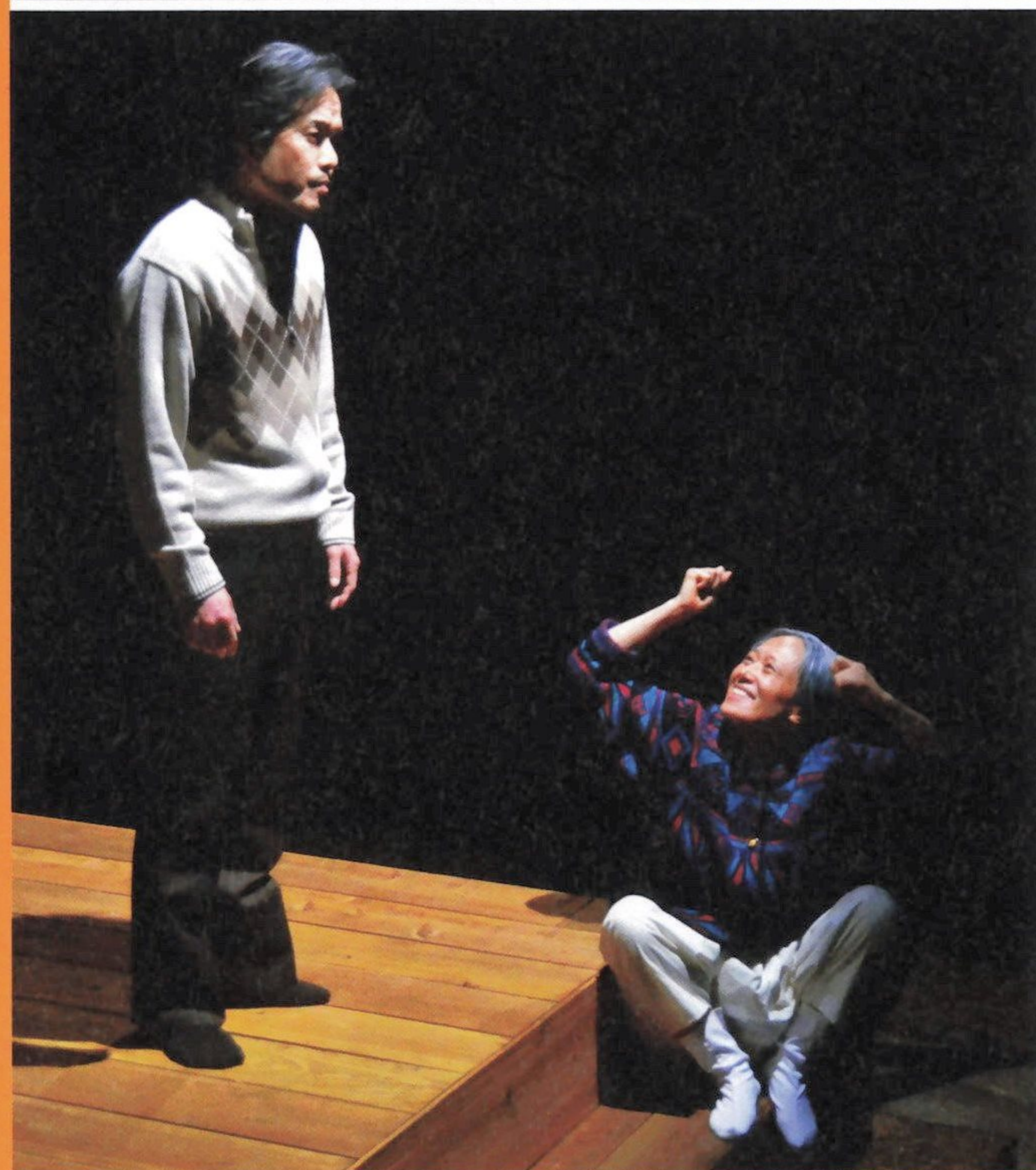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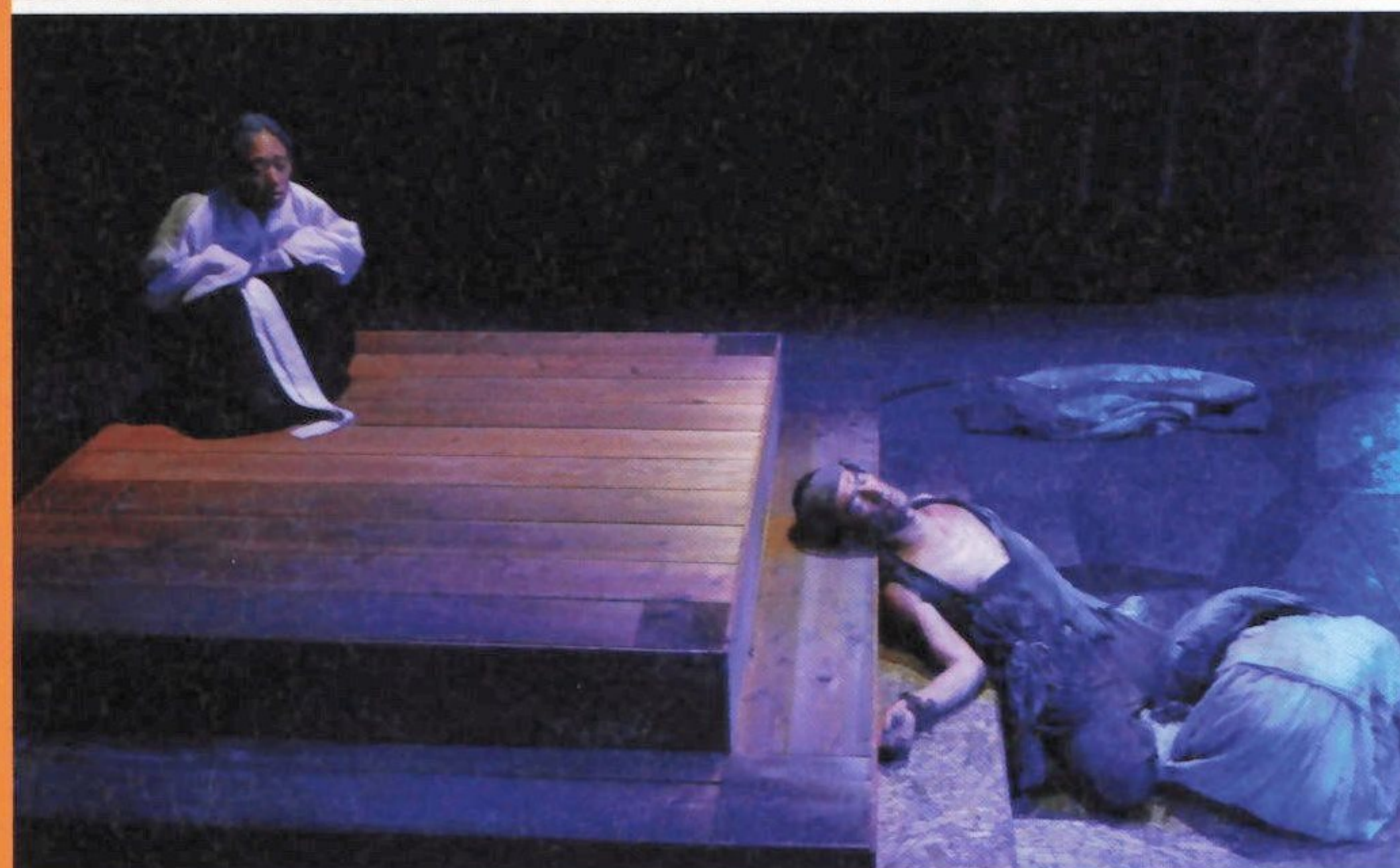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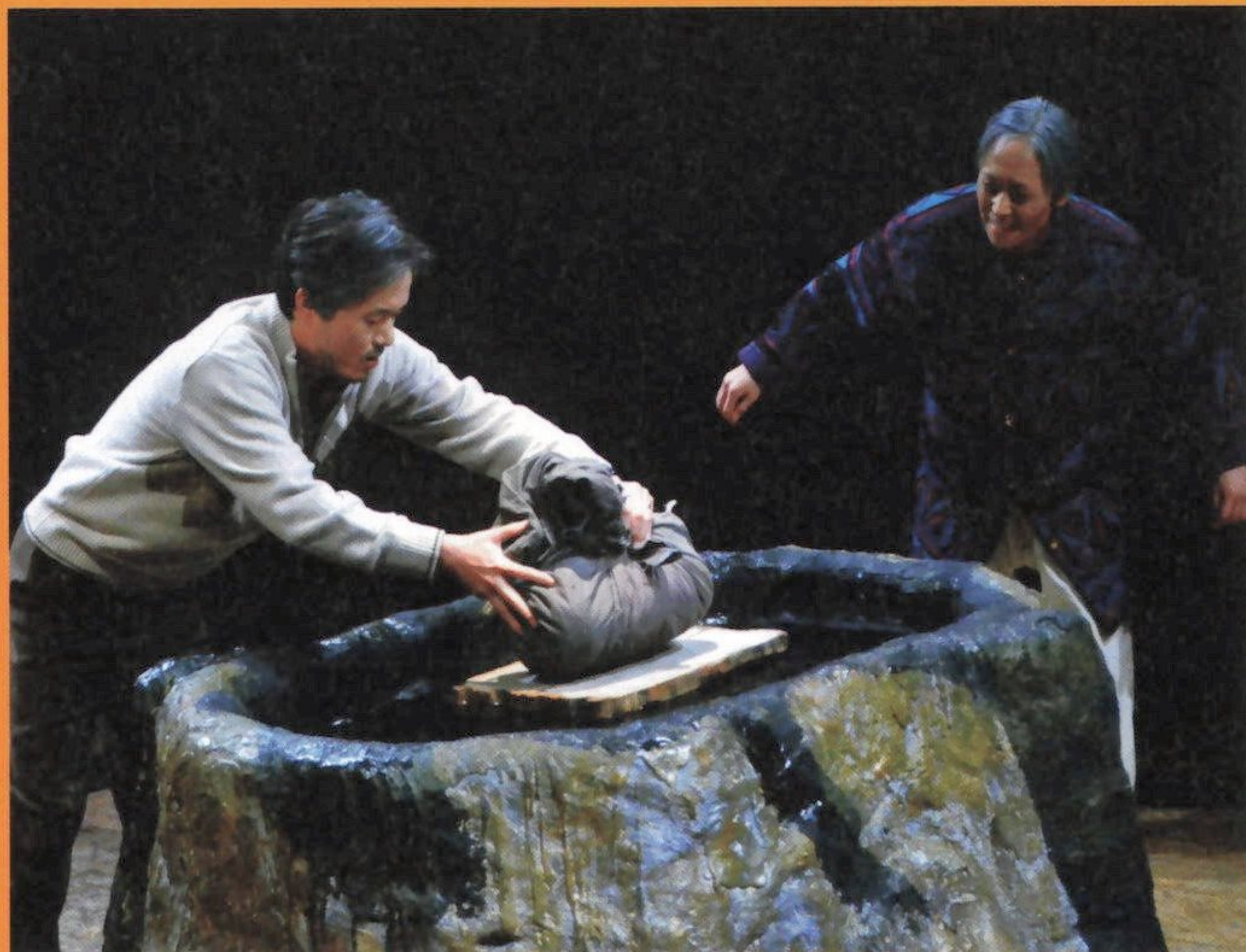
〈짐〉은 2007년 서울 남산예술센터에서 한태숙의 연출로 초연되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극단 도쿄연극양상블의 보금자리 '브레히트의 작은 극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일본판 〈짐〉은, 70분이 채 안 되는 서울공연에서 약 95분으로 상연시간이 늘었을 만큼 대폭 수정되었다. 연습통역을 맡은 내게 처음으로 주어진 대본은 총 세 개. 초연 때의 대본과 일본공연을 위해 작가가 직접 수정한 대본, 그리고 이 두 대본의 장점을 취해 새로 구성, 편집한 사카테 요지 버전의 대본이었다. 연습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대본에도 여러 곳 수정할 부분이 생겼고, 결국 네 번째 대본이 주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는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배의 수상한 침몰사건을 다루고 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김운식의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이 배달된다. 일본 아오모리현 무츠시에 사는 오노 요시코라는 여자가 보낸 짐이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운식은 이런 때에 정체 불명의 짐은 받을 수 없다고 되돌려 보내지만, 요시코는 분명히 당신의 짐이라며 다시 되돌려 보낸다. 일본과 한국을 몇 번이나 오가는 짐은, 두 집안의 오랜 상처와 비밀을 들춰내기 시작한다. 1945년 8월 22일,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 한국인들은 일본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아오모리현 무츠시 해안으로 모인다. 그들을 부산으로 데려다줄 배를 타기 위해서다. 그중에는 강제징용되어 일을 했던 창수, 그리고 종군위안부에 있다가 도망 나와 살고 있던 정화가 있다. 창수에게는 한국에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채 살다 정화에게 마음을 품고 있고, 위안부로 있던 시절 도망치다 잡혀 팔 한 쪽을 잘린 정화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한다.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정화. 실제로 집안 망신, 나라 망신이라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국은 반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해안에 선 사람들을 떨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소문이 무츠시를

떠돈다. 대부분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인 탓에 이들을 출국시키면 군사기밀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는 판단에 일본 해군이 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소문이다. 배는 결국 떠나고, 8월 24일 부산으로 향해야 하는 배는 이상하게도 교토부 마이즈루만 근처에서 침몰하고 만다.

요시코가 보낸 짐은 이때 살아남은 정화가 꼭 안고 있던 창수의 짐으로, 정화에게 방을 내주었던 요시코의 할아버지가 보관해왔던 것이었다. 한편, 정화는 운식의 고모할머니로, 20년 전 운식이 할아버지의 임종 전에 누이동생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무츠시를 찾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짐에서 나오는 정화 명령은 결국 운식이 모시고 사는 치매 할머니로부터 "사실 내가 편지를 감췄다"는 고백을 끌어낸다.

극 중 실제 한국인이 연기한 배역은 운식(정승길)과 그의 할머니(우미화)로, 과거 무츠시에 있던 한국인들과 그들의 명령을 연기한 코러스들은 재일교포 3세 배우인 홍미옥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이었다. 우키시마마루 사건이라는 실화가 갖는 힘의 크기는 엄청난 것이어서, 특히 한국인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처음에는 당



혹해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었다. 다른 일본인 배우, 스태프,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까지, 이 무거운 테마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춘 사카테 요지의 해석은 점점 모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한국 배우 두 사람과의 공동작업은 이 희곡을 공연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연극이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알게 되었다는 리얼함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초연 당시는 객석 정면을 보고 거의 모놀로그에 가까웠던 윤식과 요시코의 대사를, 짐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관객들은 무대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서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객석의 위치가 높다. 객석 아래에는 스피커와 악기들이 놓여있고, 망령들은 그 아래에서 쭉 나오고 쭉 들어가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생각하기 앞서 몸이 움츠러드는 경험이다. 그것이 이들이 내뱉는 대사가 너무나 잔혹해서 미처 체감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한국 배우 두 사람과의 공동작업은 이 희곡을 공연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연극이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짐



같은 의미에서 요스키와 할아버지 사이토와 윤식의 할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망명들이 증언하는 일본 군인의 만행과 횡포, 그리고 그런 참극에 희생된 동포들을 내친 당시의 한국은 오히려 지나치게 경악스러워 거리감을 두게 된다. 여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전쟁, 역사의 비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토와 윤식의 할머니가 느끼는 죄책감은 매우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사이토의 경우, 당시 마을을 돌아다니는 소문을 한국인들에게 말해줘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그 한 마디 말을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 거기다 대를 이어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한편 윤식의 할머니 역시, 정화에게서 온 편지를 서랍 깊이 감출지 말지를 고민한다. 나중에 그 편지를 들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치매 노인이 되는데, 우미화가 연기한 할머니가 시누이 편지를 감춘 때로 돌아가 후회와 자책을 길게 늘어놓으며 점점 노인이 되는 대목은, 그녀가 한 평생을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행동은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사이토는 한국인들이 배에 타는 것을 말렸을 경우 군인들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언니, 그 언니에게 양젓물을 먹여 뒷산에 묻은 뒤 울다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정화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자살한 마당에, 그녀가 돌아오면 또 집안에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 뻔하다는 공포는, 어딘가 납득할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리얼하게 전달된다. 게다가 초연에서는 희미했던 요시코와 할아버지, 윤식과 할머니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부여되면서 그 효과는 훨씬 커졌다. 한국어와 일본어에 텅기듯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하는 짐. 그 짐을 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살려줘', '가자' 등 어려운 한국어 대사를 위해 많이 노력해준 코러스 배우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자막 없이도 관객들의 마음에 닿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괴테와 구노의 〈파우스트〉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FAUST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대표작인 희곡 〈파우스트〉는 구상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린 대작이다. 마법사 파우스트는 16세기에 독일 전역에 유행한 전설의 주인공이었는데, 악마와 계약한 대가로 평생 갖가지 향락을 즐겼지만 결국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단순한 교훈담을 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바꿔놓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말로였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마법사가 아니라 학자이며, 쾌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달할 수 없는 갖가지 지식을 손에 넣기 위해 악마와 계약한다. 오래된 전설의 신선한 해석은 괴테의 희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파우스트〉의 제1부는 일명 ‘그레첸 비극’으로 불린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 좌절한 중년의 석학으로 묘사된다. 이때 메피스토가 파우스트 앞에 나타나 마법의 힘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고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패배를 인정하고 영혼을 내놓기로 계약한다. 마법의 힘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순진한 처녀 그레첸을 유혹해서 타락시킨다. 그레첸이 미혼모로 낳은 아기를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힘을 빌려 그레첸을 탈출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레첸은 도움을 거절하고 순수히 사형을 당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영혼을 구원받는다.

제2부에서 파우스트는 트로이의 미녀 헬레네를 저승에서 불러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헬레네는 저승으로 돌아가고 파우스트는 다시 혼자가 된다. 이제 파우스트는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대규모 간척



파우스트 중 '왈츠' ●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자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고는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말하게 된다. 그 순간 파우스트는 죽어서 쓰러지지만, 메피스토와 맺은 계약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레첸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다.

〈파우스트〉는 문학사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를 관통하며 형성된 작품이다. 시대와 함께 변화한 저자의 사상이 반영된 까닭에, 제1부와 제2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제1부가 중세를 배경으로 마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제2부는 근대를 배경으로 기술을 이용한 인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흔히 〈파우스트〉라고 하면 중세적인 분위기의 제1부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제2부에서 만년의 괴테가 근대사회의 출현을 예견하며 내놓는 통찰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시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시대와도 가까운 작품이다.

가곡의 역사
OF AUST

프랑스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작곡가인 구노(1818-1893)는 오페라와 종교음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파리 음악원 출신으로 스물 한 살에 로마대상을 받아 국비로 로마에 유학하였다. 파리에 돌아온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극음악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서른아홉 살부터 오페라의 작곡에 의욕을 갖게 되어 오페라 <파우스트>에 착수하였고 마흔한 살에 완성하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수성과 종교적인 경건함을 겸비한 그는 명쾌한 선율과 부드럽고 투명한 색채감을 잘 융합시켜 대중적이면서도 품위 있고 서정성이 가득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오페라는 아리아 중심을 피하고 섬세한 감정과 경쾌한 정서에 의해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발표하여 연속 100회 상연을 기록하는 등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종교음악분야에서도 걸작을 남겼고 그의 가곡은 근대 프랑스가곡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는 문호 괴테의 동명희곡을 바탕으로 한 걸작이다. 하지만 괴테의 원작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페라는 그것을 모두 담지 못하고 주로 파우스트와 마르가리테의 만남과 이별을 줄거리로 한 제1부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무엇보다도 방대한 내용과 심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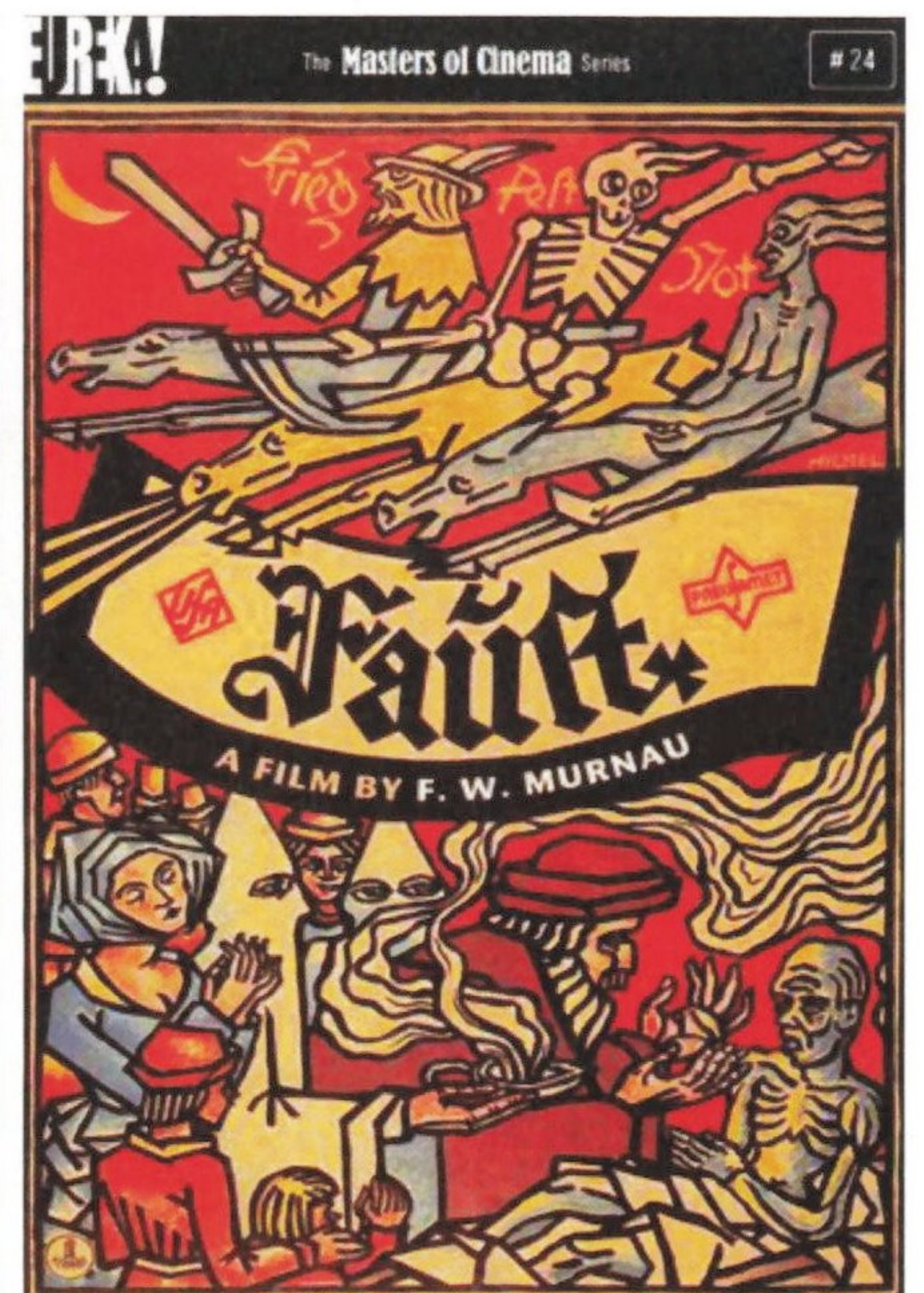
정신적 가치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오페라와 맞지 않는 소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만들어진 오페라들은 대부분 이 희곡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재인 '파우스트 박사과 마르가리테의 사랑이야기'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구노도 괴테의 원작을 변형시켜 현실의 인간적인 본능과 높은 이상의 세계 가운데서 번뇌하는 파우스트가 아니라 사색에 지친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으로 현실세계에 뛰어들고 이어서 지순한 영혼을 지닌 마르가리테와의 사랑에 빠진 모습만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요소는 사라지고 파우스트와 마르가리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슴 아픈 사랑의 힘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명작이다.

5막으로 구성된 이 오페라는 연주시간이 3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파리의 리릭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에 그 당시 파리 사람들은 비극적인 내용을 즐기지 않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발레를 첨가하여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상연했을 때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구노의 이 작품은 비록 원작을 상당히 왜곡했다는 악평을 지니고 있으나, 낭만주의의 예술성을 고양시킨 역작으로 높이 평가되며 프랑스 오페라 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노 '파우스트' •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

위대한 희극 작곡가 로시니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로시니 생가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는 1792년 2월 29일 이탈리아의 페자로에서 태어났으며, 이 날짜로 인해 4년마다 생일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트럼펫과 호른 연주자인 아버지와 소프라노로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로시니는 어린 시절을 주로 공연장에서 보내며 음악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이 볼로냐에 정착하게 되면서 로시니는 볼로냐의 음악협회(마르티니 국립음악원의 전신)에 입학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악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목 질환 때문에 더 이상 무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청중 앞에서 노래도 자주 불렀으며, 극장 무대에 서기도 했다. 목소리가 상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반주자로, 나중에는 지휘자로 일했다. 그는 마테이로부터 성악, 첼로, 피아노, 대위법, 화성학, 오케스트라 등을 배우며 당시 구입할 수 없었던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등의 악보를 빌려 성악부분만을 발췌 사보하고 자신만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식의 기악곡 OPERA BUFFA

로시니가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얻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기악곡들이 계속 생겨난다. 어린 시절 그의 다양한 기악곡들은 1806년 볼로냐의 필하모니 아카데미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로시니는 오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오페라 대본을 구입하기 시작한다. 1809년 그의 첫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시작으로 37편의 오페라를 작곡한다. 그것은 로시니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많은 공백을 멜로드라마의 음율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케루비니의 '메테아'는 노래를 구어체의 대사로 연결하는 오페라 코미크의 형식(케루비니는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작곡가로 메테아 역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초연됐다)이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역시 대사가 삽입된 징슈필 형식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탈리아 멜로드라마의 강한 정지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동 시대의 이탈리아 멜로

드라마는 질보다는 양이었으며 판에 박힌 듯한 진부한 형식이 힘겹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로시니가 태어난 해에 초연된 치마로자의 '비밀결혼'의 성공으로 변화가 오게 되고 희극장르를 추구하는 어떤 작곡가도 치마로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로시니를 제외한 모든 작곡가들이 치마로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1810년 베네치아의 산 모세 극장의 요청으로 작곡된 '약속어음'은 같은 해 11월 3일 초연되었으며 콘트라alto 가수인 로사 모란디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었다. (당시는 이미 성악가를 정해놓고 그들의 음색이나 음역, 테크닉에 맞게 작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의 멜로디와 리듬의 표현이 기운차고 간결하며 후에 셋잇단음표와 여섯마디 그룹을 즐겨 사용하는 로시니 오페라의 골격을 나타내 주었다.



로시니의 아버지 주세페 로시니 ●



로시니의 어머니 안나 귀다리니 ●



오페라 결혼어음의 한장면 ●

OPERA BUFFA 위대한 희극 작곡가

로시니는 각지에서 작품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작품을 내 놓아 흥행주들은 물론 프리마 돈나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게 된다.

‘바빌로니아에서의 치료’에서 치료 역을 노래한 위대한 콘트라alto 가수인 마리아 마르콜리니의 도움으로 1812년에 상연된 ‘바빌로니아에서의 치료’를 제외하고는 로시니의 초기작품은 모두 희극이었다. ‘바빌로니아에서의 치료’는 카스트라토 혹은 여성의 목소리가 비극 멜로드라마의 영웅이었던 위

대한 이탈리아의 전통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이다.

베네치아의 산 모세 극장을 바탕으로 로시니는 ‘행복한 착각’ ‘비단 사다리’ ‘도둑의 기회’ 등을 작곡한다. 이들 작품에서 로시니는 치마로자나 모차르트의 악절보다 한층 진보된 악절을 만들어 냈다.

당시 흥행주들은 일반적으로 표절의 힘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공이 이미 확인된 단편 삽입을 허락함으로써 절반

의 흥행 성공을 보장 받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도가 지나치지 않을 경우 관객들도 참아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작법이기도 했다. 항상 새로움에 굶주려 흥행주가 새로운 작품의 제시를 기다리는 관객들, 그 속에서 항상 조급함에 시달리던 작곡가들 사이에서 로시니는 새로운 것들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관객은 물론 오페라 가수들과 특히 예술가들까지 로시니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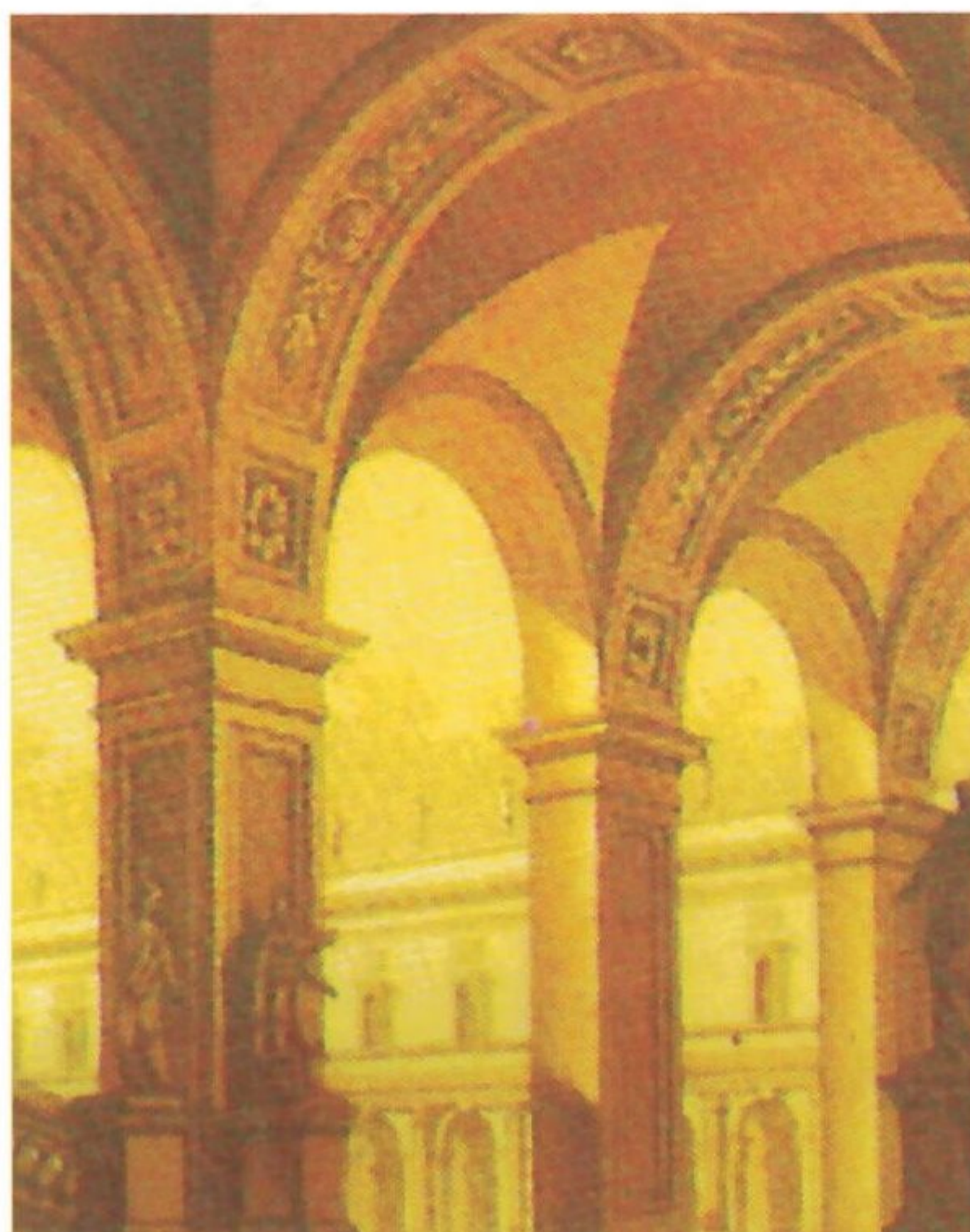
그 이유는 가수들에게 아리아를 덧붙이도록 허락해주는 관대함과 성악가들에게 높게 또는 낮게 이조하는 배려, 그리고 그의 창조적인 작품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이해했다.

오페라 가수의 아들인 로시니는 오페라 가수들의 세계와 그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음역을 부각시키고 적절한 장식음의 사용으로 그들을 더욱 자신있게 한다.

로시니의 개성은 그의 크레센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성악은 물론 오케스트라 모든 부분에 긴 악절의 피아노에서부터 보다 복합적인 포르티시모까지 매력이 충만한 악절로 구성되어 있고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 ‘비단 사다리’ 등의 서곡들은 오케스트라도 목소리처럼 코믹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위대한 희극작곡가로서 로시니는 ‘브루스키노 아저씨’에서도 나타난다. 그 작품에서 바이올린의 전개는 관객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곧 빙빙 돌고 있다고 믿게 한다. 성악부분에서도 특히 풍자적인 부분에서 최대의 절정을 나타내 보였다.



오페라 ‘시금석’은 젊은 신사들과 모든 귀부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부유한 한 자산가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 그의 모든 재산을 차압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풍자의 절정을 잘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마르콜리니와 갈리 같은 주인공 덕분에 1812년 9월 초연하여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이로 인해 군복무를 면제 받았으며 초연한 해에 53번이라는 공연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 시금석을 위한 19세기 무대 디자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에서 시 읊조리는 매니아들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홍도는 40~50대에 아회도(雅會圖)를 더러 그렸다. 아(雅)란 바르고 우아하다는 뜻이며, 아회란 우아한 사람들이 시문을 즐겨 읊는 모임을 말한다. 모이는 구성원은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었다. 사대부들이 정치성향과 학맥을 같이하는 양반들간에 모여서 여는 것 외에, 문화예술의 수요가 높아지던 정조 연간부터는 중인들의 모임이 잦아졌다. 이들은 변변한 벼슬을 못하였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하여 늘 빈궁하게 살면서 시를 지어 현실사회의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이를 여항문학(閭巷文學) 또는 위항(委巷)문학이라 한다. 여항(閭巷)이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동네라는 뜻이다. 양반들이 마당 너른 집에 살았는데 비해, 중인층 이하는 비좁은 동네에 주로 살았으므로 이들을 칭하는 말이다.

여항문인들은 18세기 이후 서화·시문·음악을 즐기는 매니아들이었다. 서화감상과 수집활동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나 상공업이 활발해지고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문인들 사이엔 완상품을 구하려는 수집가들이 늘어났다.

김홍도의 후기 풍속화를 보면 문인화풍을 느끼게 한다. 40대 초에 안기찰방을 지내고 40대 말에는 연풍현감까지 역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양반 문사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후기 풍속화 가운데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작품 외에도 김홍도는 더 많이 그렸다. 화단에 함께 몸담고 있었던 김응환(金應煥:1742~1789), 박유성(朴維城:생몰년미상), 이인문(李寅文:1745~1821) 등과 함께 그린 것들과 마성린(馬聖麟:1727~1798), 차좌일(車佐一:1753~1809), 천수경(千壽慶:1757~1818), 장혼(張混:1759~1828), 조수삼(趙秀三:1762~1849) 등 여항문인들이 제화발문(題畫跋文)을 써준 작품 등에서 흔적을 알 수 있다.

역관, 의원, 서리나 야전, 화원들은 모두 중인층이었다. 양반들이 궁궐에 가까운 북촌 일대에 살았는데 반해, 역관·의원·시전상인들은 청계천 일대에, 서리·야전들은 도성 서쪽 인왕산 자락에 주로 살았다.

미산(眉山) 마성린은 서예가로서 침지를 지낸 인물이다. 송석원(松石園) 천수경은 학자로서 시짓기를 잘했는데 마을의 부자들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앞다투어 초빙했다고 한다. 그의 집 뒷마당이 바로 송석원이었는데 호(號)는 여기서 나왔다. 사명자(四名子) 차좌일은 경사와 서화에 밝았으며 무관직을 지냈고, 이이엄(而已廣) 장혼은 교서관에서 말직을 지내던 시인이었다. 추재(秋齋) 조수삼은 발이 닿지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팔도를 누볐던 여행시인이었다. 그 외 김낙서(金洛瑞), 서리출신 엄계흥(嚴啓興), 박윤묵(朴允默:1771~1849) 등 여럿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송석원시사 멤버들이었다. 그 중 박윤묵이 가장 젊은 새내기였다.

송석원시사는 일명 옥계시사(玉溪詩社)라고도 불렸다.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옥계라 했는데, 그 계곡의 솔숲 바위 아래 초가를 짓고 모임터로 삼았다. 물맑은 인왕산 자락 계곡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니 아무 격의가 없었고 자주 모여서 술마시고 시 지으며 놀았다. 그러다가 1786년 어느 여름날 옥계 청풍정사에 모여 시사를 결성했다. 이른바 시문학 동아리였다.

송석원시사야연도

오늘 감상할 작품은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종이담채, 25.6×31.8cm,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이다. 이 작품은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이라는 시화첩 속에 들어있는 일부로, 이인문이 김홍도의 집에서 그렸다는 <송석원시회도> <수하모옥도(樹下茅屋圖)>와 비슷한 소재이다. 옥계청유첩은 이인문이 그린 시회도와 4매의 제화시, 장훈의 서, 천수경의 발문, 마성린의 추발문, 차좌일·박운묵·조수삼·김낙서 등 9명의 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소재는 1791년 6월 15일 유두일(流頭日)에 김홍도가 평소 친분이 있던 송석원시사 회원들의 동아리 모임을 그린 것이다. 맨 끝에 단원의 호를 쓰고 '홍도(弘道)'의 주문방인(朱文方印)과 '사능(士能)'의 백문방인(白文方印) 관지를 찍었다.

그림속으로 들어가보자.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보름달이 구름에 살포시 겹친채 아스라이 비치는 장면이다. 어슴프레한 주위는 숲으로 둘러있고 앞쪽 사립문 안으로 초옥이 두 채 붙어있다. 앞마당에서 위쪽으로 너럭한 뒷뜰이 펼쳐졌고, 뜰주위는 무성한 신록의 잎새들이 감싸고 있다. 담묵과 담채를 가볍게 조화시켜 놓아 색감이 은은하다.

시사회에 참석한 인물들이 각각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공간으로 이끌고 있다. 이들이 그림의 초점이다. 등잔에 불 밝혀 놓았고 가운데는 술병과 잔이 놓여져 있다. 이미 나눠 마신 것 같다. 한창 시문을 주고받으며 세상사를 풍자하고 있는 장면인데, 앞쪽에 약간 떨어져 앉은 한사람과 아예 일어서서 뒷짐지고 행보를 하는 사람은 한창 묘한 시구를 구상 중인 모양이다. 말그대로 그윽하고 우아한 모임처럼 느껴진다. 다만 자연속에서 시짓고 술마시며 담론을 즐기는데 한가지가 빠졌다. 음악이다. 거문고를 뜯어야 하는데 아쉽다. 조출하게 모아자고 했던 모양이다.

모임이 있고 몇 년 지난 1797년에 김홍도가 그려놓은 작품에다가 제화시가 덧붙여졌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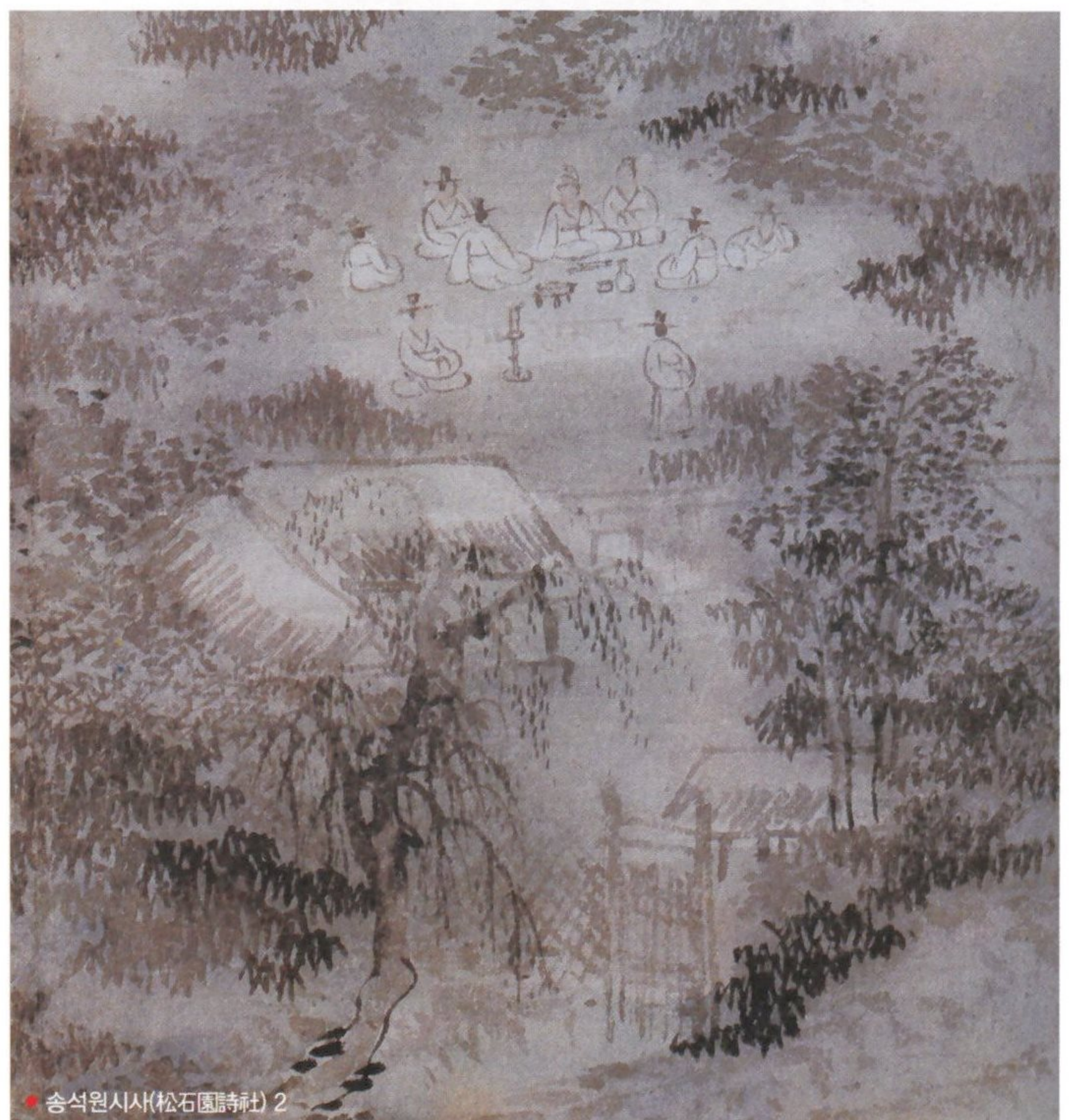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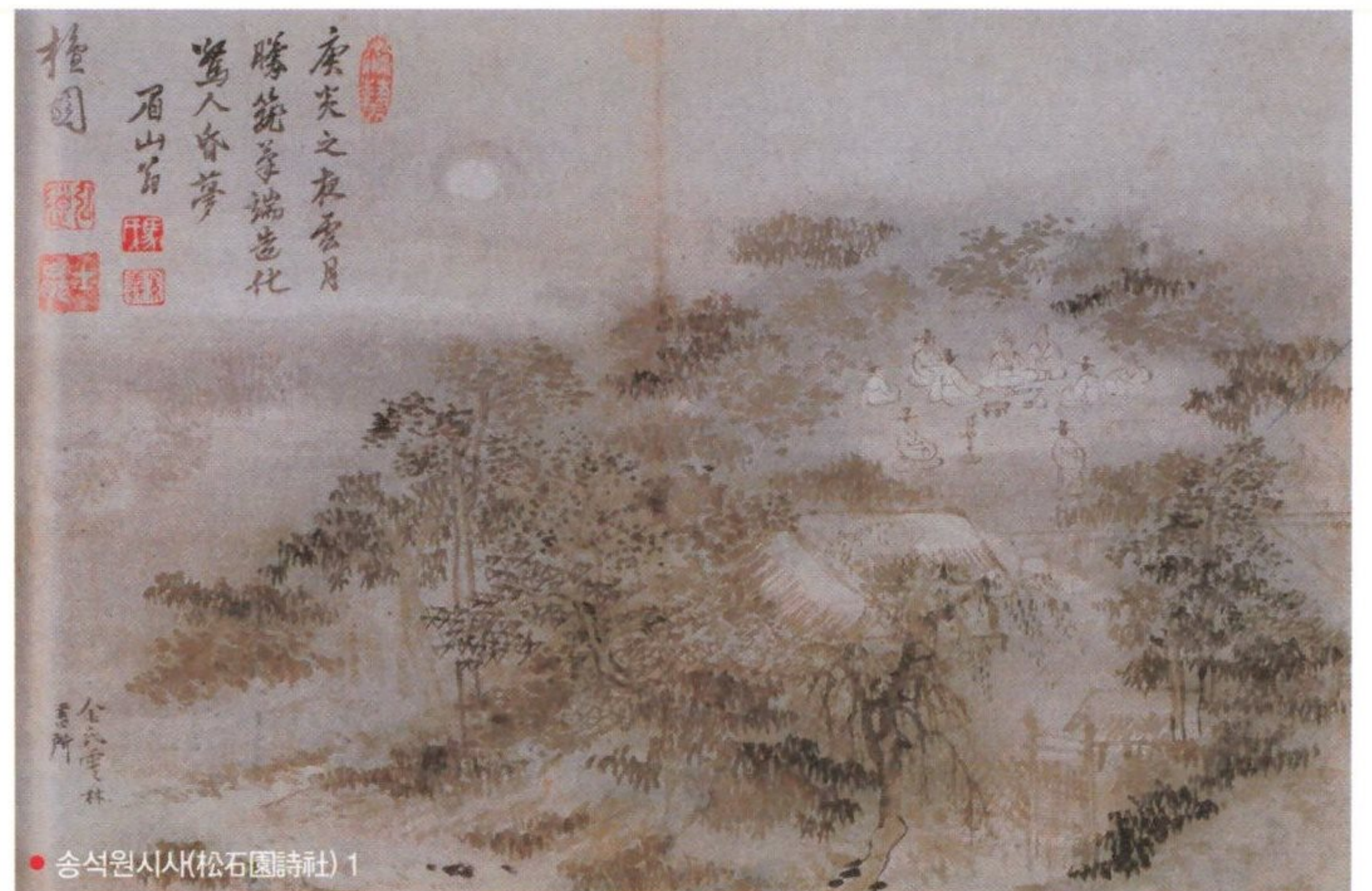
유월 더운날 밤에 구름속의 달 아스라한데 / 庚炎之夜 雲月朦籠
 붓끝의 조화는 사람을 놀래켜 혼을 빼는구나 / 筆端造化 驚人昏夢
 미산옹 / 眉山翁

이 시는 고희를 넘긴 마성린이 썼다. 스스로 미산옹이라 했듯이 송석원동아리는 아니고 여향시단의 만형인 셈이었다. 그는 글씨를 매우 잘 썼는데, 특히 해서와 초서가 뛰어났다. 낙관은 '마씨(馬氏)'의 백문방인과 그의 자(字)인 '경희(景羲)'의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그림의 왼쪽 아래에 김씨운림서소(金氏雲林書所)라는 자그마한 글귀가 보인다. 김

홍도나 또는 김씨 성을 가진 집에서 그렸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필자는 획법으로 보아서 글 자체가 당시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내려와 그림을 소장하던 어느 누가 쓴 것이라 판단된다.

시회가 열린 날은 <옥계청유첩>속에 나오는 천수경의 발문에 보이는데, 신해년 유두날 저녁이라 되어 있다. 발문의 뒷장에서 마성린은 <추서옥계청유첩후(追書玉溪淸遊帖後)>에서 시화첩에 보이는 화법의 신묘함과 시와 글씨의 맑고 참됨이 과연 난정수계(蘭亭脩契)나 서원아집(西園雅集)에 비길 만하다고 했다.

색다른 취미와 또다른 사고 그리고 다양한 풍류. 뛰어난 붓끝으로 세상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재주와 낭만. 이것들이 여향시단의 아이콘이라 하겠다. 지면관계로 천수경의 집 뒷뜰을 무대로 한 송석원에 얽힌 일화나 여향시단의 풍류시는 다음 기회에 풀어놓기로 한다.





유쾌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미술관 '트릭아이 미술관'이 가족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동래온천으로 유명한 부산 허심청 지하에 문을 연 트릭아이 미술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착시체험 미술관으로, 일반 미술관과는 달리 관객들이 직접 작품을 보고 만지며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이다.

'유쾌한 눈속임' 국내 최대 규모의 착시체험 미술관

트릭아이미술관

TRICKEYmuseum

트릭아이(trickeye)는 눈속임 그림을 뜻하는 프랑스어 트롬프뢰유 (Trompe-l'oeil)의 영어식 표현. 극사실주의로 그려진 미술작품 위에 투명도가 높은 특수도료를 씌움으로써 빛의 굴절, 반사, 원근 등에 따라 2차원 평면 그림이 마치 3차원의 입체 그림처럼 되살아난다.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만지고 작품 속에 들어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

미술관이라면 으레 떠올리기 쉬운 조용함도 트릭아이 미술관에서만큼은 예외. 미술관에 들어서면 전시장 곳곳에서 관람객의 탄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일반 미술관에서는 좀체 들을 수 없는 카메라 셔터 소리도 여기서만큼은 요란하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진을 이용해 초점을 맞추면 보다 또렷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지하 1, 2층에 자리한 트릭아이 미술관은 모두 13개의 상설 테마전시관

과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관람객과 만나는 곳은 역사관. 눈속임 미술장르의 역사적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역사관은 눈속임 미술의 기원으로 알려진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화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일화를 그린 작품에서부터 눈속임 기법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페르보렐 텔카소의 '비평을 넘어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트릭아이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명화를 트릭아이 기법으로 재탄생시킨 '명화관', 짜릿한 롤러코스터 타기,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하기, 돈벼락 맞아보기 등 생활 속에서 꿈꿔왔던 상황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생활관', 천장과 바닥이 뒤바뀐 거꾸로방과 거인이 된 듯한 착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인

방을 지나면 '옵아트관'을 만날 수 있다. 옵아트는 특정한 형태나 색채를 이용해 시각적 착각을 유발하는 미술장르로, 기하학적 패턴의 모양이 조작되고 반복됨으로써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착시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거울을 이용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을 실제인양 경험할 수 있는 거울방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공중부양마술 등 서커스의 마술사가 된 듯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서커스관', 영화 '아바타' '헐크' '미이라' '터미네이터' 등 유명 영화감독들과 애니메이터들의 홀로그램 작품이 소개되는 '3D & 홀로그램관' 외에도 어둠과 빛으로 구성된 루미나이트 색채가 시각적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가상수족관인 '아쿠아리움관', '트릭아이 사파리'의 동물들이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물관', 관람객이 직접 패션쇼 모델이 되어보는 '패션관'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테마관들이 관객들을 반갑게 맞는다.

전시관 관람에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보자. 화이트와 블루가 매력적인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를 배경으로 한 산토리니광장에서는 마술쇼와 더불어 문화예술공연이 정기적으로 펼쳐져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전 역시 또다른 볼거리. 현재 갤러리에서는 베스트셀러인 '마법천자문을 찾아라'의 작가인 임성훈의 '올림푸스 12신을 찾아라' 전시가 개관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다. 임성훈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복잡한 그리스 신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특히 미션지에 숨은 그림을 찾아오면 '추억의 점빵'에서 각종 선물뽑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갤러리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개인전을 비롯해 신인작가 공모전도 가질 계획이다.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8:00(연중무휴)
 관람료 : 일반 1만 2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문의 : 트릭아이미술관(557-1577, www.trickeye.com)





아프리카 영혼의 소리 '젬베'를 배우는 '젬베 & 젬베폴라' 부산지역 모임

'아프리카의 영혼'이라 불리는, 서아프리카 말리제국의 전통 타악기 젬베(Djembe), 언제부터인가 영혼을 뒤흔드는 그 젬베 소리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 젬베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젬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화제를 일으켰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인디밴드 '10cm'의 공연에도 등장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젬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단한 나무 속을 판 뒤 그 위에 염소가죽을 씌운 '젬베'는 깊은 울림을 내는 악기로 유명하다. 북처럼 가죽을 맨손으로 두드려 흥겹고 경쾌한 리듬을 내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결혼식이나 성인식 같은 축제에서 연주되기 때문에 '기쁨의 악기'라고도 불린다.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하면 'Dij'는 '모이다, 모이다', 'be'는 '누구나, 누구든지 모두'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젬베는 대부분 혼자 연주되기 보다는 베이스 역할을 하는 Dundunba, Sangban, Kenkine와 함께 연주되는 공동체 악기이다.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젬베가 세계로 퍼진 것은 케냐 출신의 젬베 거장 마마디 케이타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부터이다. 2008년과 2009년 두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많은 화제를 낳았던 마마디 케이타는 현재 젬베와 서아프리카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음악학교 '탐탐 만딩고'를 설립해 전 세계에 젬베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중인 젬베 동호인은 30~40여명. 이들은 젬베동호회인 '젬베 & 젬베폴라' 부산지역 모임을 통해 젬베와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젬베폴라'는 젬베를 연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지난 2008년 개설된 전국 동호회인 '젬베 & 젬베폴라'는 거장 마마디 케이타가 인정한 국내 최고의 젬베폴라인 나모리 이영용 씨가 만든 젬베동호회로, 정기적인 오픈클래스 레슨과 워크샵, 드럼서클(타악기 즉흥 연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룹음악활동)을 통해 젬베를 알리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성된 '젬베 & 젬베폴라' 부산지역 모임은 아프리카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오픈레슨 모임이다. 고등학생인 1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나이 뿐만 아니라 직업도 전문연주자에서부터 문화

기획자, 간호사 등 다양하다. '젬베 & 젬베폴라' 부산지역 모임은 매주 오픈클래스 레슨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드럼서클을 통해서도 일반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는 8월 100명의 젬베가 해운대 바다에 울려 퍼지는 드럼서클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이영용 씨가 진행하는 젬베워크샵이 일년에 1~2차례 열린다. 젬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2011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용두산공원 일요상설무대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젬베의 매력을 알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주법이 간단해서 남녀노소 막론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악기로, 우리 국악과도 잘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현재 부산무형문화재 제 6호 '부산농악' 상쇠 이수자이자 '사물놀이 청'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호 씨. 박순호 씨가 젬베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4년. 일본에서 같이 활동하던, 가수 강산에의 음반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연주자인 라티르 씨를 통해 젬베를 처음 접하고 레슨을 받았던 박순호 씨는 이후 마마디 케이타의 제자인 일본의 히로키, 우리나라 이영용, 기니 출신의 세계적인 연주자 반구라 케 등 젬베 워크샵을 통해 젬베를 비롯한 아프리카 음악과 문화를 배우오고 있다.

“젬베는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기쁨이 더 큰 악기”라는 박순호 씨.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젬베를 알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젬베 사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의_젬베&젬베폴라(cafe.naver.com/djembefola)
박순호(010-2545-9938)



Review

부산챔버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음악의 재발견

박진홍_음악평론가

● ● ● 2012년 3월 15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챔버오케스트라의 13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봄비가 내렸건만 아직 추위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밤이었다. 부산에서는 규모가 작은 4중주나 5중주의 연주는 종종 찾아 볼 수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주회가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평소 바로크 실내악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치밀함과 화려함을 좋아했기에 피곤한 일상의 휴식처로 적격이었다.

임병원의 바이올린 솔로로 연주된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의 '사계' 중 '봄'이 연주회의 시작을 알렸다. 잘 알려진 작품이지만 바로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해석으로 인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작품의 담백함을 헤친다. 하지만 이날 연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작품 속에 있는 음악 요소들의 표현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비발디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과감성과 정교함이 만들어 내는 경쾌한 리듬의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이 이 작품의 맛을 배가시켰다.

이어서 바순협주곡 7번이 윤태준의 솔로로 연주되었다. 평소 그가 가진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음색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기존의 연주보다는 다소 빨라진 템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듬감과 프레이즈의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양옥진, 김판수의 솔로로 연주된 두 대의 첼로 협주곡과 이리나, 김언

정, 김은정, 김희진이 독주군으로 연주한 네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촉촉이 내리는 봄비의 싱그러움과 더불어 나른한 봄날의 오후를 연상 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주회에서 비발디의 작품을 여러 개 모아서 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비발디의 작품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악기들의 솔로를 포함한 연주를 이어서 감상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악기들로 표현하는 음악적 다양성들을 함께 느껴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후반부에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관현악 조곡 제2번이 유주영의 플루트와 함께 연주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갖가지 장식들이 그림 속에서 하나 둘 튀어나와 현실의 실물로 구체화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하는 훌륭한 연주였다. 단지 몇몇 부분에서 현악 합주의 음량이 독주 악기에 비해 커서 플루트의 맑은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 곡은 다소 생소한 앙뜨완느 마우(Antoine Mahaut, 1720-1785)의 신포니아 6번이 최영식의 솔로 비올라로 연주되었다. 필자 역시 처음 듣는 작곡가의 작품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마우는 벨기에 출신의 작곡가로서 바로크 말기와 고전 초기에 걸쳐 있는 작곡가이다. 그의 신포니아는 전형적인 바로크적 색채를 가진 작품으로 필자는 특히 느린 2악장에서 마음을 아늑하게 이끄는 비올라의 솔로가 인상적이었다.

이날 연주 전반에 걸쳐 필자는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나 미술 작품들을 여유로이 살피며 섬세함과 화려함을 느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래서 당시에는 기괴하다고 까지 표현되었던 다양한 음악의 혁신들을 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다듬어 표현함으로써 '바로크음악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훌륭한 연주를 선사한 무대였다.



부산 챔버 오케스트라

부산독립영화, 현재를 말하다



김희진_영화감독

● ● ● 중구 중앙동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의 인문학센터인 백년어서원에서 기획한 '부산독립영화, 현재를 말하다'는 지역 인문학 공간의 탐구 영역이 부산의 독립영화에 이르렀다는 좋은 현상을 보여준다. 변방의 인문학과 변방의 영화가 만나는 이 드문 기회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시도들 중에서도 값진 기획이라고 할 만하다.

부산 독립영화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 초반 즈음부터 비롯되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거나 사회 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던 젊은이들이 영화 제작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 인식을 외부로 펼치기 시작하면서 출발한 독립영화 '운동'은 영화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주장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가 지니는 영향력을 외부로 인식시키는 시도였다. 만약 영화가 오락만을 제공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이 투입되는 영화 활동이 소극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행히 영상시대를 맞으며 비롯되는 부산의 독립영화 활동은 새 시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고를 반영하면서, 아울러 지역 영화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집중화된 산업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고만 인식되던 영화제작 환경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에 적당했다.

부산의 독립영화는 그리 순탄하게 역사를 만들어 오지는 못했다. 독립영화란 제작자의 요구에 계약으로 종속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감독이 직접 제작을 맡거나 단체나 모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오던 부산독립영화들은 당연히 제작비와 연관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비정기적인 일을 하며, 빛을 내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 만들어졌던 부산독립영화들은 다행히 제작의 힘겨움을 견디며 제작환경에서 비롯되는 경험을 버팀목 삼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함과 동시에 몇몇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백년어서원에서 마련한 이번 '부산독립영화, 현재를 말하다'에서도 여

전한 독립영화만의 느낌이 살아있었다. 이미 두 번째 장편영화를 만들어낸 김백준과 최용석 감독의 <작별들>과 <이방인들>은 상업영화에서 기피하는 연출 방식을 통해 영화 표현 방식의 다양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삶을 다루는 영화의 태도를 드러내 보였다. 배기성, 이성욱, 안현준 감독의 단편영화들인 <상수>, <소녀들>, <채워질 수 없는 것들> 역시 단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밀도있는 연출과 함께 이상으로 멀리 나아가지 않는 현실의 공간을 잘 다루고 있다. 김지곤 감독의 <할매>는 산복도로라고 하는, 현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담아내며 생생한 현실 인식을 이끌어낸 점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박준범 감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도다리>라는 작품을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처한 삶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청춘 영화의 활기를 잃지 않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상영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각 영화의 감독과 비평가가 나란히 앉아 나누는 대담 코너였다. 자칫 작품에 대한 평가나 담론도 없이,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는 독립영화에 있어 이러한 대담 형식의 진행은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있는 시도였다. 감독의 목소리 뿐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평론가와 대담은 영화 작품 역시,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이것은 곧 인문학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최근 시선을 받았던 부산독립영화들을 이렇게 한 달간의 일정 안에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기회도 반갑지만 원도심의 자그마한 인문학 공간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매개로 한 인문학 행사의 열기 또한 의미 있었다. 소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대표적인 표현매체인 영화가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인문학의 현장과 만나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자주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서른, 축제를 시작하다’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4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개막식 | 3월 30일(금) 오후 7:0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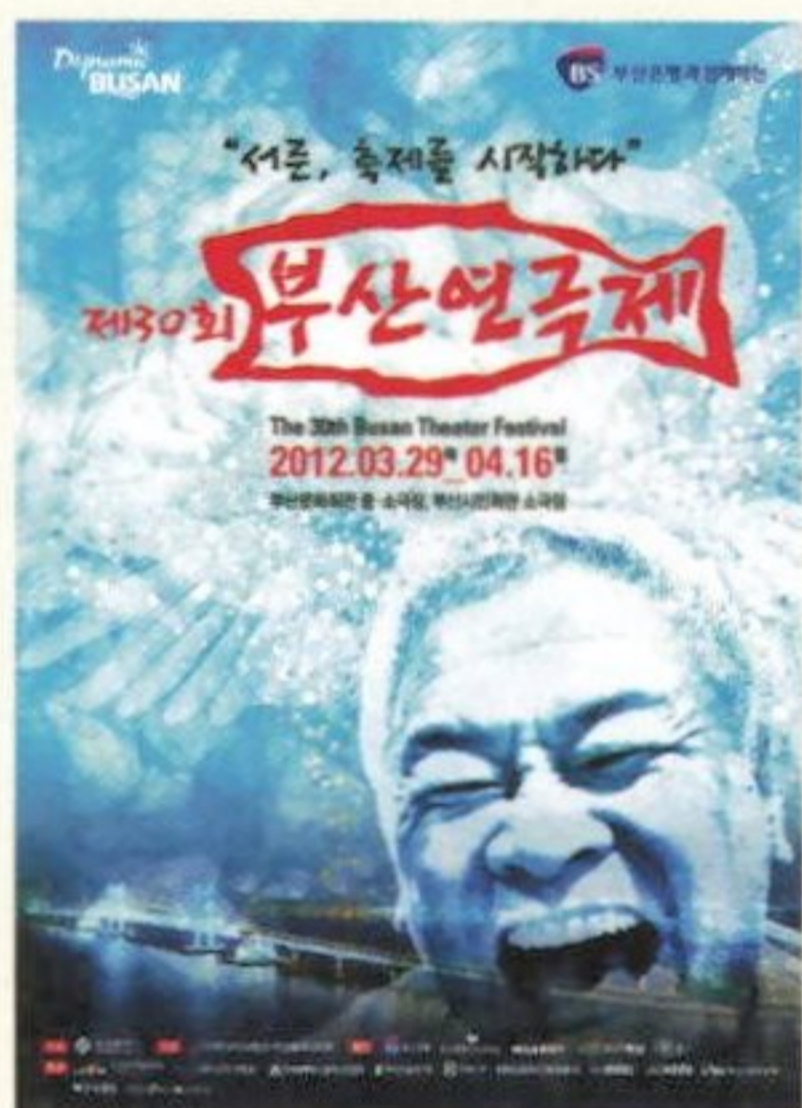
시상 및 폐막식 | 4월 16일(월)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입장료 | 개막 R석 3만원 · S석 1만 5천원

경연작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부산연극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산연극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 최고의 연극 축제 제30회 부산연극제.

2012년 제30회 부산연극제를 맞아 인천시립극단의 개막축하공연 ‘햄릿’, 10개

극단의 경연무대와 자유 참가팀들의 축하공연, 부산 시민연극제 등 풍성한 연극축제가 펼쳐진다.

▶ 개막축하공연 인천시립극단 ‘햄릿’

3월 30일-31일 **금요일** 오후 평일 7:00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사랑과 광증〉, 〈두귀족의 친척〉, 〈맥베스〉 등을 통해 셰익스피어 작품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온 인천시립극단의 개막축하공연 ‘햄릿’.

부왕(父王)을 독살한 숙부에게 왕위와 어머니를 빼앗긴 주인공 햄릿의 복수 과정을 그린 ‘햄릿’은 특유의 이야기 구조와 깊이 있는 인물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무대화되어왔다. 인천시립극단의 햄릿은 햄릿의 꼬리표였던 우유부단을 떼어내고, 섬세하고 치밀한 행동력 있는 인물로 그려냈다.

▶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3월 29일-4월 3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더블스테이지(010-7400-6199)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여행을 떠나요’.

자폐증으로 세상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32살 재호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 작, 연출/김동민

▶ 경연참가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여인화’

4월 2일-3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연구집단 시나위(010-6807-6066)



현대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면들을 극을 통해 형상화 해온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신작 ‘여인화’는 스승과 동료들을 배반하고, 고려의 인재들을 형장에 세워 참형시키며 조선시대 지방행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태수와 망나니 망이, 연화를 통해 현대사회 정치인들의 끊이지 않는 권력다툼과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민중들의 답답한 현실을 보여준다.

· 작/김재환 · 연출/반필우

▶ 경연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여명의 사면’

4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창작연구소 몽키프로젝트(908-5807)



2012년 지구 종말을 가상으로 그린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여명의 사면’은 지구 종말 후 바다에 잠기지 않은 대지를 떠돌아다니며 대지를 덮은 쓰레기들을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태양이 사라져 버린 파괴된 지구를 다시 복원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판타지적 요소가 강한 뮤지컬로 그려냈다.

· 작, 연출/오리라

▶ 경연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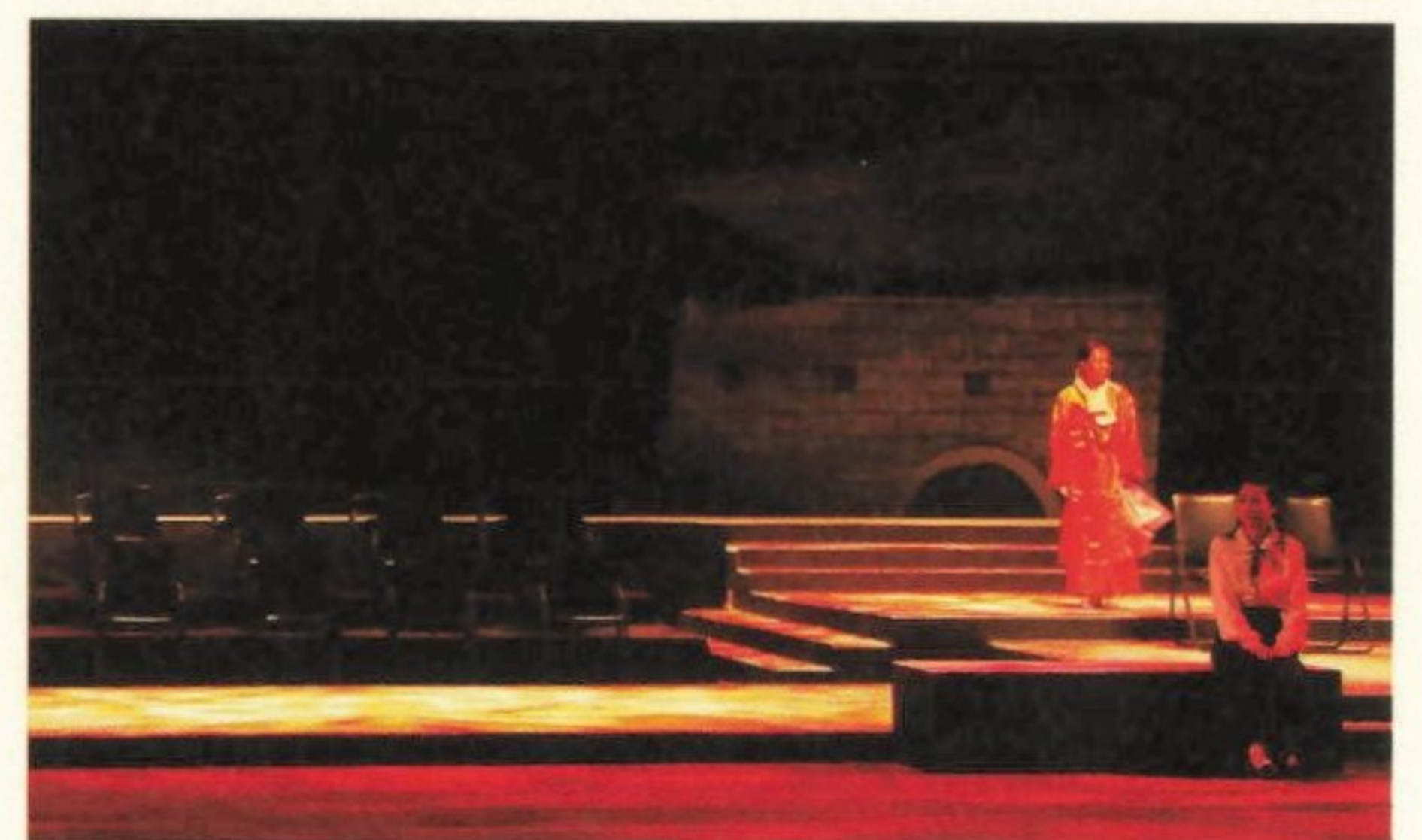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4월 8일-9일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바문사(010-6519-1683)



유교사상에 의해 자신을 감추고 자유롭지 못함을 강요받았던 조선시대 계급이 다른 세 여인들의 사랑과 인생, 한(恨)을 표현한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인두로 지져 죽은 시체를 검시한 궁의 의생 조이경이 시체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당쟁으로 숙적이 된 죽마고우 김석과 이정한 집안의 비밀이 밝혀진다.

· 작/최은영 · 연출/이선주

▶ 자유참가작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 ‘청춘정담’

4월 10일-15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



덤덤하지만 진실된, 그래서 오히려 더 낯설 수 있는 사랑이야기를 담은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의 ‘청춘정담’. 5년째 사귀어온 연인 정수연 커플, 현실적인 여자 박지희 커플, 힘든 사랑의 아픔을 가진 안은경 커플 등

여섯 연인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랑을 돌아본다.

· 작/김호진 · 연출/도정우

▶ 경연참가작 극단 하늘개인날 ‘그분이 오신다’

4월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



현대 추사 김정희 연구의 권위자인 김상필과 8년 5개월을 제주도 유배지에서 고독과 싸운 김정희를 그려낸 극단 하늘개인날의 '그분이 오신다'. 김상필의 죽음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진정한 잘못의 시인과 참회가 이루어질 때 소통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작/김문홍 · 연출/곽종필

▶ 경연참가작 극단 맥 '대양 07호'

4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극단 맥(010-5232-1350)



만선을 하여 귀향하던 배가 좌초되고 서서히 침몰해 가는 과정을 그린 극단 맥의 경연참가작 '대양 07호'. 원앙어선의 난파선 선실,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그 속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코믹하게 풀어간다.

· 작/김영근 · 연출/이정남

▶ 자유참가작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 '봄의 향연'

4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권 | 초대
 문 의 |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010-9944-8825)

국공립협회 하모니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5년 이상 경력의 하모니카 연주인들로 구성된 세미 프로페서

널 순수 단체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의 축하무대.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은 성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추억의 하모니카 선율을, 청소년들에게는 하모니카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봄에 듣는 명곡메들리/포스트 명곡메들리, 대니보이, 티엔미미
 하모니카 독주/소양강 처녀, 숨어우는 바람소리, 해변의 여인, 베사메 무초, 꽃밭에서, 연가
 부산을 소재로 한 메들리/돌아와요 부산항에, 해운대 엘레지 등 수곡
 · 음악감독/박기국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4월 5일-4월 29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4월 11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 없음)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관람대상 | 15세 이상 관람가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지도필요)
 문 의 | 성우기획(1599-1980)
 부산문화회관(607-6058)



1989년 영국 런던 초연 이후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부산무대. 22년 만에 부산 무대에 오르는 '미스 사이공'은 브로드웨이 공연 시작 전 최다 예매판매기록으로 기네스 북에 오르는 것은 물론, 수많은 시상식의 수상기록을 세우며 그 명성을 이어왔다. 사이공이 몰락해 가기 몇 주 전, 미국에서의 희망찬 삶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는 한 베트남 여인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된 '미스 사이공'은 1975년 사이공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의 철수

가 시작되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미군과 젊은 베트남 여인의 강렬한 러브 스토리로 전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 아이를 향한 애틋한 모성과 살인, 자살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에 더해진 감미롭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웅장한 무대 예술 등 뮤지컬이 지향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뮤지컬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 프로듀스/카멜론 맥킨토시
 · 디렉터/로렌스 코너
 · 작곡/클로드 미셸 손버드
 · 극본, 가사/알랭 부브리
 · 안무/제프리 가렛 · 음악 감독/가이심슨
 · 국내 연출/최용수 · 국내음악감독/김문정
 · 출연
 김성기, 임춘길, 김보경, 임혜영, 이하나, 마이클 리, 이건명, 김우형

임효진, 최민경 피아노 듀오 콘서트

4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최민경(010-9476-2687)



피아니스트 임효진과 최민경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연주회. 임효진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 반주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민경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빈 국립음악대학교 최고과정을 졸업했다.

프로그램

브람스/왈츠 작품 39(4hands)
 드뷔시/작은 모음곡(4hands)
 라흐마니노프/교향적 무곡 작품 45(2hands)

허혜정 피아노 리사이틀

4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대학교,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허혜정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나장조 KV 333

바딩스/소나타 IV(1945)

슈만/다윗동맹무곡집 작품 6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제478회 정기연주회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이병욱



최나경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이 지휘하고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8회 정기연주회.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부지휘자와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OENM의 수석객원지휘자를 역임한 이병욱은 귀국 후 KBS 교향악단, 부천 필하모닉, 코리안 심포니, 원주시립교향악단, 충남교향악단 등을 지휘하며 주목받았다.

플루티스트 최나경은 22세의 나이로 미국 신시내티 교향악단(음악감독 파보 예르비)의 부수석 주자 오디션에서 18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해, 미국 메

이저 교향악단에 입단한 관악계 첫 한국인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로자문데 서곡

리버만/플루트 협주곡

슈만/교향곡 제4번 라단조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특별연주회 Choral-Festival Missa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특별연주회 무대 'Choral-Festival Missa'.

부산시립합창단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객원지휘, 시각장애우 플루티스트 오영인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악보 및 작·편곡 담당 작곡가 최석태의 '페스티벌 미사'를 4부 합창으로 재편곡,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축제적 연주를 지원하는 축제의 서막을 연다.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한 오영인은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최석태/Festival Missa

합창으로 듣는 기악곡/바흐 G선상의 아리아(Arr. J. Rathbone), 차이코프스키 현악 4중주 중에서도(Arr. R. Allwood & E. Gardner)

흑인영가/Swing Low, Sweet Chariot, This Little Light O'mine

남성합창/구노 '아베마리아', 백학,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7 '좋아서 하는 밴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이름도 없이 전국을 돌며 거리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좋아서 하는 밴드>가 하늘아래 그 콘서트 27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노래하는 퍼커셔니스트 조준호, 기타치는 베이시스트 손현, 아코디언 치는 피아니스트 안복진, 음악하는 베이시스트 백가영으로 결성된 <좋아서 하는 밴드>는 2009년 4월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진솔한 가사가 더해져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EP '신문배달'을 발매했다.

전국을 누비며 거리 공연을 하는 이들의 유쾌한 여정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2009년 제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그 해 12월 개봉되기도 했다.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4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운영국장 이상훈(010-2066-1331)



악기전공 연주자와 프로급 아마추어 연주자 등 80여 명의 정단원, 30여명의 배움 단원으로 구성된 라온제

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4회 정기연주회,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9년 출범 이후 그동안 사랑 나눔 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그리고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 사랑을 실천해왔다. '라온제나'는 순우리말로 '기쁜 나, 즐거운 우리'라는 뜻이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먼트 서곡
하이드리히/생일축하변주곡
모차르트/교향곡 25번 등 수곡

**파벨 플루트 페어 스페셜 콘서트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4월 22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플루트하우스(02-3487-2462)



세계적인 플루트 브랜드 파벨 플루트의 부산 페어 스페셜 콘서트로 마련되는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연주와 무대 매너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은

서울대학교, Manhattan School of Music 대학원을 졸업하고 25세에 KBS 오케스트라에 부수석으로 입단하며 15년간 재직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 Powell flute Artist로 위촉되어 세계 정상급 플루티스트들과 나란히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신정은 세계적인 재즈의 거장 Claude Bolling Trio와 Suite for Flute의 2005~2009년 수차례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포레/경연의 소품
무케/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목신의 피리' 작품 15
모우어/플루트 솔로, 앙상블, 타악을 위한 'Sonata Latino' 등 수곡
· 타악/하경륜(드럼), 이병진(궁가), 한진우(타악기)
· 플루트앙상블/차민경, 공주리, 곽문정, 김동호
· 베이스플루트/김동욱

· 알토플룻/유혜성 · 피콜로/정수진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배천중(010-7576-4110)



배천중 김화정 김연주

부산에 위치한 30여개의 사찰 합창단에서 선발된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합창단은 2001년 제1회 전국불교합창제를 시작으로 2002년 리바겔 가루다 음악제(은메달 수상),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동메달 수상), 2008년 제8회 전국불교음악제, 2009년 불교음악페스티벌 등에 참가했다.

프로그램

이흥렬/꽃구름 속에
류권하/돌부처
임공수/강건너 봄이 오듯 등 수곡
· 지휘/배천중 · 피아노/김연주
· 출연/소프라노 김양희, 테너 김화정,
권용우 사물놀이단, 여여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
-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롭게 기획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두 번째 '사랑의 묘약'.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해설, 명신대 예술대학 유철우교수의 연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한 소프라노 고예정,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콩쿠르 1위, 파리 국제콩쿠르 2위 등에 입상하고 인제대 교수로 있는 테너 김성진, 국립오페라단, 이탈리아 메라노 극장, 독일 할레 오페라 하우스, 독일 바트라우흐슈테트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베이스 함석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태우가 오페라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프로그램

도니제티/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Prelude, Quanto è bella, Come Paride vèzzoso, Udite, udite, o rustici, Voglio dire lo stupendo, Lalla rallarà la, la, la, lo son ricco e tu sei bella 등 수곡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고예정
- 테너/김성진
- 베이스/함석헌
- 바리톤/김태우

부산시립극단 제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Oresteia)'

4월 26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00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제39회 정기공연 '페드르'

3월 낭독공연에 이은 부산시립극단의 2012년 첫 정기공연 무대 '오레스테이아(Oresteia)'. '오레스테이아(Oresteia)'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3부작으로 그리스의 3부작 극 중에서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BC 458년에 처음 공연된 '오레스테이아(Oresteia)'는 주인공 오레스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이스킬로스 특유의 장엄한 시구와 웅대하면서도 몸서리나는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

연출을 맡은 김지용은 제23회 부산연극제 희곡상(PLAY_Oasis)을 비롯해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가출소녀 우주여행기), 제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희곡상, 연출상(PLAY5_Mankind his-

tory), 제24회 전국연극제 금상(PLAY5_Mankind history),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2010년 제28회 부산연극제 연출상(The solar system)을 수상하며 부산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 연출/김지용

제23회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4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현악전공학생들로 구성된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의 제23회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공동대표 겸 악장, 뮤즈앙상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병원 교수의 지도, 지휘로 감미로운 현악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 3번 KV.138
- 비발디/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3 제 10번 RV.850
- 바흐/관현악 조곡 제2번 나단조 BWV.1067
- 브리튼/단순한 교향곡 제 4번
- 연주/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악장 이리경)
- 협연/이나래(플룻), 이리경, 전해림, 오하람, 정혜양 (이상 바이올린)

썬 공연단-라틴아메리칸 댄스 공연 'The Sun : Latin performance'

4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초등학생 50% 할인, 중고생 30% 할인)
문의 | 썬 공연단(644-6627)



2006년 창단된 국내 최초 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단인 썬 공연단의 제 6회 라틴아메리카 댄스공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 제주, 부산, 마산 4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져온 썬 공연단은 2008~2011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한 신지용 단장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안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댄서들과의 관계를 통해 열정적인 라틴댄스를 선보여왔다.

프로그램

SAMBA, Rumba, CHACHA, Waltz, SWING, Paso Doble, ARGENTINE TANGO, Rumb, Jive, Tango

· 출연
신지용(썬 공연예술단 단장), 최해정, 김창성 & 김정경, 신세웅 & 김민경, 박용국 & 김푸름(이상 수석무용수), 남종현 & 임화정, 윤이주 & 김은정 외

제12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4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년경(017-563-5301)

한국피아노학회 소속 부산, 영남지역 피아니스트들이 들려주는 제 12회 정기연주회.

독주, 듀오, 3중주, 4중주 등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사랑의 기쁨(클라이슬러) 편곡
팔라/허무한 인생, 첫 번째 스페인 무곡, 두번째 스페인 무곡

슈베르트/론도 작품 138 D.608 등 수곡

· 연주
안준희, 황정미, 박필은 & 김지령, 고은경 & 장진이, 이경옥 & 정년경 & 금찬이, 신애정 & 이윤정, 김승희 & 박선미 & 이인영 & 하수연, 이동섬 & 최정윤 & 최민경 & 이진성

소프라노 이영숙 독창회 '풍경 소리'

4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공연기획 락연(055-313-9465)

신라대학교와 동대학원, 'G.Donizetti Accademia Musicale'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한국불교음악 협회 회원, 양덕사합창단, 푸른솔중창단 지휘자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영숙 독창회.

프로그램

- 이진구/머물고 싶은 그 곳
- 이달철/오늘
- 조영근/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
- 변규백/염주
- 박이제/님이시여
-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터 메쵸' 등 수곡
- 피아노/이경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5월 1일-2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민정(010-6531-0307)

1990년 창단 이래 부산지역 피아노 듀오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43회 정기 연주회.

5월 1일 첫째 날은 피아노 듀오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부산대학교 권혜령 교수와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배수정의 듀오무대, 5월 2일 둘째 날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피아니스트들이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듀오 음악의 세계를 펼친다.

5월 1일 권혜령 & 배수정 듀오연주회



권혜령 배수정

프로그램

- 모차르트/소나타 K.448
- 피아졸라/안녕 노니노, 리베르 탱고
- 드뷔시/6개의 고대 비문
- 리스트/돈 조반니의 회상

5월 2일 듀오연주회

-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작품 15
- 바흐/사콘느
- 볼콤/악마의 키스
-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등 수곡
- 연주/박희정 & 고정오, 최민경 & 임효진, 하수연 & 이인영, 심정연 & 김미현, 김은주 & 고은정

최영화 비올라 독주회

5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영화(010-3564-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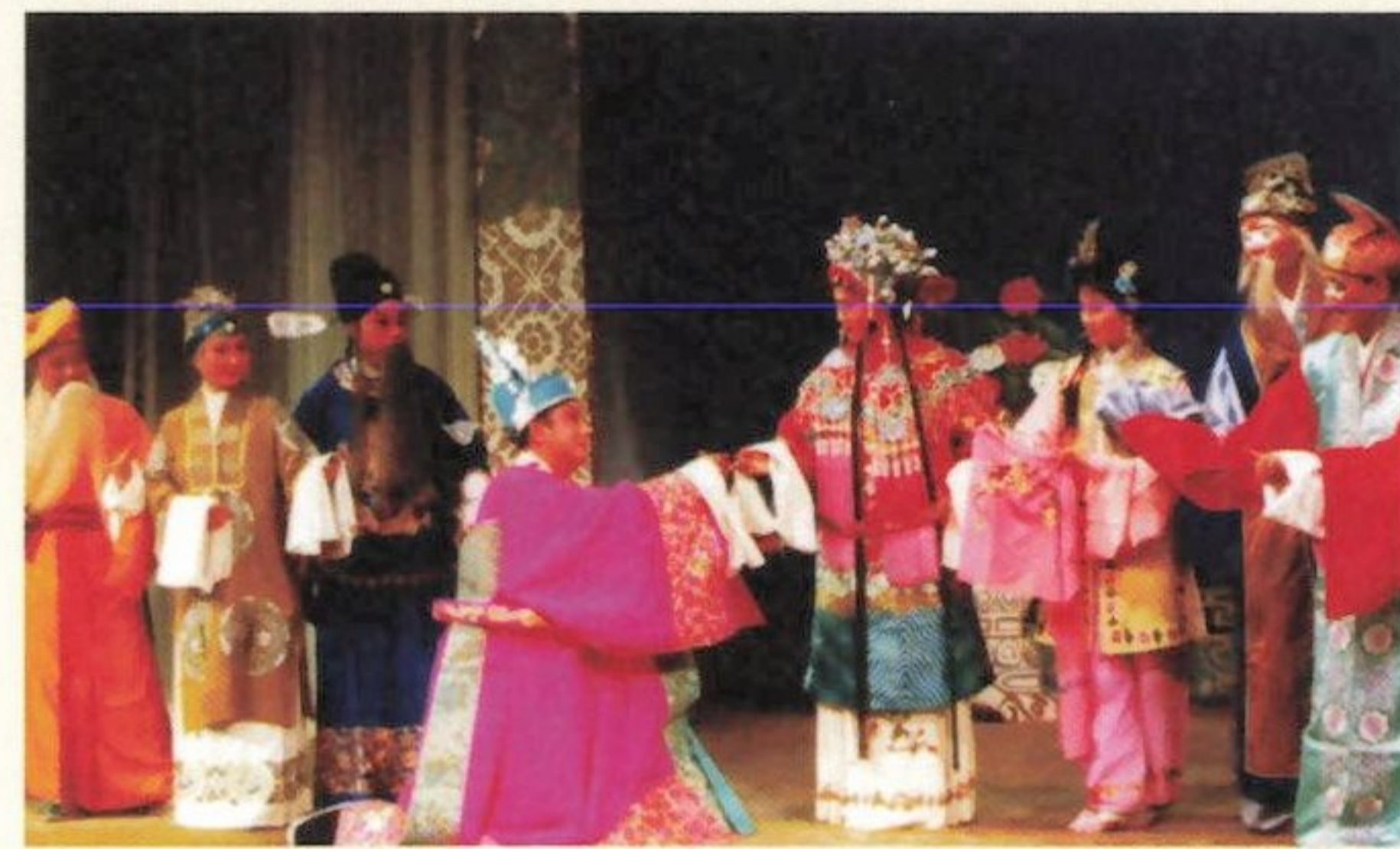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여성실내악단 레이디스필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화의 비올라 독주회.

프로그램

- 시벨리우스/론도
- 칼리보다/모음곡 제 5, 6곡
- 브루흐/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중 제 2, 3, 4악장
- 니노로타/인터메쵸

Hello, Asia! 아시아의 재발견
201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5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권 | 1층 2만5천원 · 2층 2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아시아 공연 예술의 다양성, 특성을 만날 수 있는 201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경극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극 중 하나로 꼽히는 동양의 오페라 '천극'으로 관심을 모으는 '수유기'는 중국 당대의 애정소설 '이와전'의 절묘한 만남이 돋보이는 동양 연극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중국 전통극이다.

'수유기'는 중국 전통예술인 '천극'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연기 기법과 특색 있는 형식 안에 삶의 고난과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가는 기생 '이아선'의 뛰어난 지성과 남녀 간의 사랑의 행로를 흥미 있게 엮은 애정소설 '이와전'을 적절히 녹여낸 작품이다.

사천성천극원은 중국 남서부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극단이자 40여 년간 200여 개의 우수 작품들을 쏟아내며 중국 국가 선정 1급 예술극원으로 수준급 연기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극단이다.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Music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 '카르멘'

3월 29일(목), 4월 12일(목), 26일(목)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VIP 5만원 · 일반 3만원
문의 |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2009년 창단 후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오페라 상설공연 첫 번째 무대.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비제의 걸작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아리아를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지휘, 해설/김병수(상임지휘자)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출연/박소연, 김지호, 장은영, 박종준(3/29일, 4/26일), 김수현, 허동권, 장은영, 윤오건(4/12일)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3일 김창곤 정악독주회 세 번째 이야기 '아쟁풍류'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아쟁양상블 '아쟁의 꿈' 대표로 있는 김창곤 정악독주회.

프로그램

- 경풍년(평조두거), 관악영산회상
- 반주/이영(피리), 이상원(대금), 박거현(장구)

10일 서현미의 춤 '풍류가 있는 곳에'

신라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으로 있는 서현미의 춤.

서현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다.

프로그램

- 이매방류 승무, 17현 가야금과 해금 이중주 '황토길', 강선영류 태평무, 이척류 산조춤, 풍류가 있는 곳에
- 춤/장래훈, 김주령, 이현정, 이현, 김주현
- 가야금/오은영(가야금) · 해금/이은주
- 해설/이현숙

17일 정인경 가사(歌詞)발표 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이자 한얼정악연구회 대표로 있는 정인경 가사 발표무대.

정인경은 1996년 전국가사경창대회 장원, 2004년 전국 시조·가곡·가사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 상사별곡, 춘면곡, 처사가, 죽지사, 백구사, 어부사, 황계사, 길군악, 수양산가, 매화가

24일 민속연주단 '선풍(仙風)' 공연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민속연주단 '선풍(仙風)'의 무대.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공연기획 락연(055-313-9465)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템플대 음대와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국립오페라단 주역 선발 공

개 오디션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과 오라토리오 독창자, KBS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이스트만 교향악단 등과의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피아노/이소영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1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4일 라 무지카 앙상블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음악가들-드보르작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라 무지카 앙상블이 들려주는 드보르작 음악의 밤.

- 연주/황지원, 우소라(이상 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김판수(첼로), 이진성(피아노)
- 해설/황지원

18일 비르투오조 앙상블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정준수, 피아니스트 성민주로 구성된 비르투오조 앙상블과 연세대학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한 신예 피아니스트 박소연이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라단조 작품 49
- 아렌스키/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라단조 작품 32

25일 김동욱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부산첼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Kv.304

김정권/꿈의 정경

비에나프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4 등

- 피아노/김정권(부산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차소용 독창회 남유럽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4월 5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공연기획 락연(055-313-9465)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차소용 독창회. 스페인 오페라 장르 살수엘라의 주역가수로 명성을 얻은 차소용은 스페인 그랑카나리아 정부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영예(Honor)상을 세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랜 경륜과 깊은 감수성으로 가다듬은 남유럽의 노래를 들려준다.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26일 공연없음)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5일 재즈밴드 크로스노트(CrossNote)

'재즈와 사랑에 빠지다'

심규성(트럼본), 황성렬(트럼펫), 김수지나(해먼드 오르간)로 구성된 재즈밴드 크로스노트의 무대.

12일 테너 장진규 초청독창회 'Love is...'



동의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소극장뮤지컬 오페라양상블 단장으로 있는 테너 장진규 독창회. 장진규는 독일 뒤셀도르프 오페라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19일 기타리스트 고충진 '바람이 가르쳐 준 노래'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독주회.

26일 피아니스트 정문정 '피아노와의 운명적인 만남'

부산대학교와 미국 루즈벨트 대학교, 드폴 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금요 해피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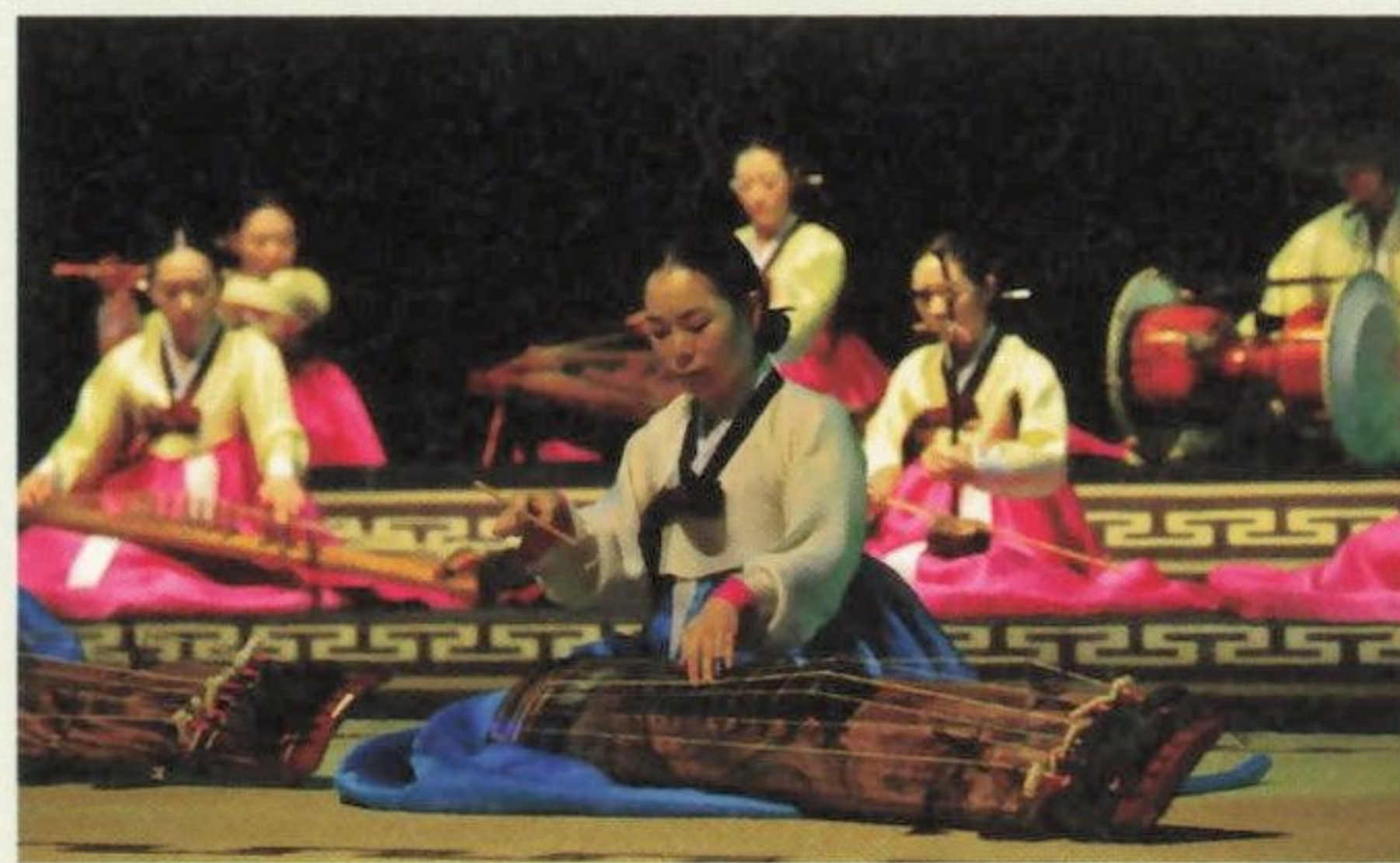
오카리나 with 박종근의 해피패밀리

4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과 톱연주가 구자봉, 소프라노 박미경, 첼리스트 박문경이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 해설/김강규 · 피아노/유병금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7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포구락, 판소리, 기악독주 '상령산풀이', 동래학춤, 경기민요 '사철가, 사설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실내악 '고구려의 혼', 강강술래, 사물놀이

14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보허자, 승전무 중 '복춤', 가야금병창, 거문고중주 '고구려의 여운', 창작산조춤 '화조풍월', 동부민요 '상주함창, 강원도아리랑, 물레방아타령', 풍장놀이

21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무산향, 산조합주, 가곡 '편수대엽', 부채춤, 관현악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관현악 '춘무', 설장구춤, 판굿

28일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동문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초청무대.

2012 영화의전당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서범석과 이혜경의 무비컬 시리즈 1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등 영화로도 제작된 뮤지컬에 대한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비컬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뮤지컬 스타 서범석과 이혜경이 진행을 맡아 뮤지컬 주요 넘버곡을 들려준다.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독일가곡연구회 제40회 정기연주회

4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김현식(010-3566-4172)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 음악공부를 한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등 독일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가곡을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김혜정, 김현애, 장희진, 윤선기, 테너 조윤환, 바리톤 장진웅, 베이스 문동환, 김정대, 피아니스트 김남숙, 박필은, 이화영선, 김성희, 손정화, 공소현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목요상설공연 '끌림'.

12일 그림과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변화에 따른 미술사조와 미술이 음악에 끼친 영향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메조소프라노 조미경의 노래로 들려주는 이색 무대.

19일 폴리포니 기타듀오 공연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폴리포니

기타듀오가 친숙한 클래식곡에서부터 영화음악, 민속음악, 남미음악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26일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 콘서트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음색을 들려주고 있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 초청무대.

성민주 피아노 리사이틀

4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이화여자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 독주회.

프로그램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춤

곡 작품 2

쇼팽/피아노 소나타 제2번 작품 35

브람스/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모리문화예술원 '희망콘서트-놀이'

4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모리문화예술원(010-6239-6454)



흥겨운 타악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관객과 더불어 두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

· 음악감독/정동훈

을숙도 명품콘서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초청공연

4월 17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림스키 코르사코프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프로그램

살바도르 브로튼/Deals Utopics 작품 10

하이든/소나타 As-Dur Hob. XVI: 46

쇼팽/마주르카 작품 24 제 3번, 4번 등

박현정 피아노 독주회

4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영학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하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 4회 Albert Roussel 피아노 국제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박현정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30번 마장조 작품 109

드뷔시/피아노를 위하여

쇼팽/즉흥곡 제 1번-4번

쇼팽/환타지아 작품 49 바단조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기연주회 '가즈회상'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국립 부산국악원 연주단 정기연주회.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그 중간에 ‘도드리’와 마지막에 ‘천년만세’를 연이어 연주하는, ‘모두 갖춘 영산회상’이라는 의미의 ‘가즈회상’ 전 바탕을 들려준다.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료 테라카도 바로크 바이올린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입장료 | 균일 1만원(후원참석비, 사전 예약)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현재 세계적인 고음악학교인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이자 일본 도호음악원 특임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료 테라카도(Ryo Terakado) 초청 무대.

프로그램

코렐리/소나타 라장조 작품 5-1
솔레르/하프시코드 소나타 사단조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등
· 챔발로/조성연

청소년 렉처콘서트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1)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 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두 번째 무



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2번과 윤은혜 창작곡 ‘Bloom for Orchestra’를 들려준다.
· 연주/T.I.F 오케스트라(지휘/박광식)
· 해설/박은승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정성희(010-8511-3768)
정이진(010-8511-5863)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유경이 1992년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 교향곡제 8번
생상스/ 론도 카프리치오
로저스/여자보다 귀한것없네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중 ‘알츠’ 등
· 지휘/안유경
· 찬조출연/양상블 보체(지휘/함도관), 김수진(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최차옥의 국악꽃향기

4월 25일 수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차옥(010-2676-5868)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송서, 율창 부산지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최차옥의 국악한마당.
지난 2010년 서울과 부산에서 개인발표회를 가진 최차옥은 2006년 대전판페스티벌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수양산가, 회심곡, 영남교방춤, 경기산타령, 정선아리,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풍년가, 잣은방아, 날니리아, 태평가, 해주, 밀양아리랑, 노랫가락, 청춘가 등
· 특별출연/유창(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41호 송서, 율창 예능보유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36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2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우리 전통음악을 이끌어갈 우수 청소년들을 발굴해 연주무대를 마련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http://www.glovil.org / mail : glovil@paran.com

부산광역시장상
부산대총장상이 수여되는

제13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2. 4. 7 (토)

-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중창 현악 관악 국악 실내악 실용음악
- 대 상 : 유·초·중·고·대 (일반전공 일반비전공)
- 접 수 : 2012년 4월 4일 24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 접수처 : www.contest.co.kr (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 과제곡 : 전 부문 자유곡
※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부산대학교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각 부문별 각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전체대상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글로벌아트홀(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약도 : 홈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이강덕/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하주화(편곡)/한갑득류 거문고산조 협주곡
이화동(편곡)/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강봉천/25현 가야금 협주곡 '절영의 전설'
이경섭/모듬북 협주곡 '타'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신정현(피리, 부산대 대학원), 김민지(거문고, 부산대 4년), 김면수(대금, 부산예고 3년), 고예슬(해금, 부산대 대학원), 정영신(25현 가야금, 경북대 4년), 김민경(타악, 부산대 대학원), 김인균(타악, 부산대 4년)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루마니아 바나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871년 창단 후 브람스, 요아킴, 사라사테, 바르톡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함께한 루마니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 바나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전 세계를 무대로 평균 150회 이상 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바나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인 바나틀 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다.

교사들과 함께하는 정은경 해금 독주회

4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500-726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은경 교수의 해금 독주회.

교사해금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대로,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와 민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해금과 3대의 가야금을 위한 '파도', 해금 4중주 '춤추는 나무', 해금 독주곡 '미리내'(초연), 민요 '너영나영', '해주·밀양아리랑', 해금을 위한 동요 모음곡

부산신포니에타 제77회 정기연주회

4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6천원
문의 | 김영희(010-8519-0448)



김은진



강선혜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이끄는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는 비올리스트 김은진과 바이올리니스트 강선혜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 루터/모음곡
-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 부르흐/로망스
- 피아졸라/사계
- 지휘/박광식
- 협연/김은진(비올라), 강선혜(바이올린)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제13회 우수입상자 연주회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주최하는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최우수 입상자들이 펼치는 우수입상자연주회.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51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4월 29일 일요일 오후 2: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애창가곡과 벨칸토 아리아의 밤

4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송윤경(010-5520-1404)



김동진/못잊어, 수선화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등 수곡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송윤경 독창회.

프로그램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문 의 | (주)WSM(1566-5490)

지난 20년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온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윤형빈쇼 with Friend

1월 1일(일)-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윤형빈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형빈소극장(610-1003)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개그쇼.
 개그맨 '왕비호' 윤형빈과 '감수성 내시' 김영민이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직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1월 13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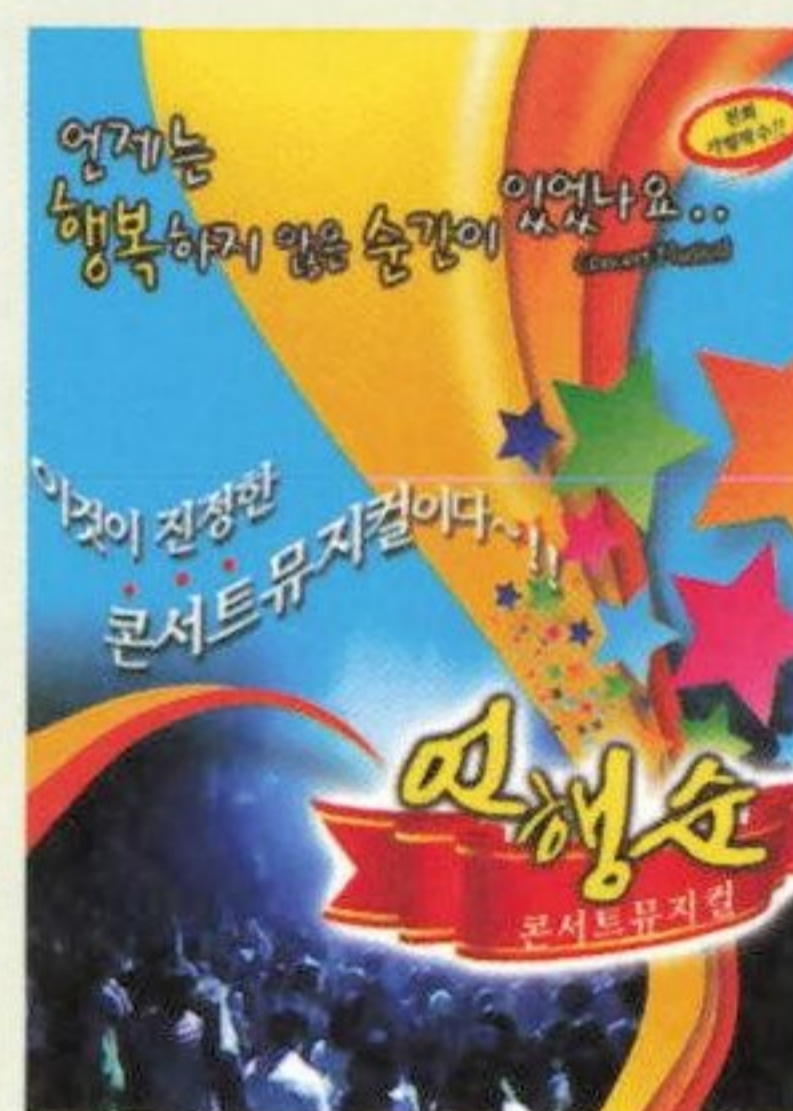
허동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단순한 웃음을 넘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극장 코메디의 진수를 보여준다.

· 연출/허동환

· 출연/허동환, 김현수, 김지환, 이지옥, 이남미 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월 14일(화)-4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웃음과 감동이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스탠딩 콘서트가 펼쳐진다.

연극 '바쁘다 바빠'

2월 14일(화)-4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개성만점 가족의 일상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연극 '바쁘다 바빠'.
 타이트한 극의 구성과 빠른 전개, 시종일관 터지는 웃음코드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매직&버블쇼 - 부산

2월 25일(토)-4월 29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후 1:00, 3:00
 (평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비둘기 마술, 관객과 함께하는 신기한 마술과 환상적인 버블쇼가 함께하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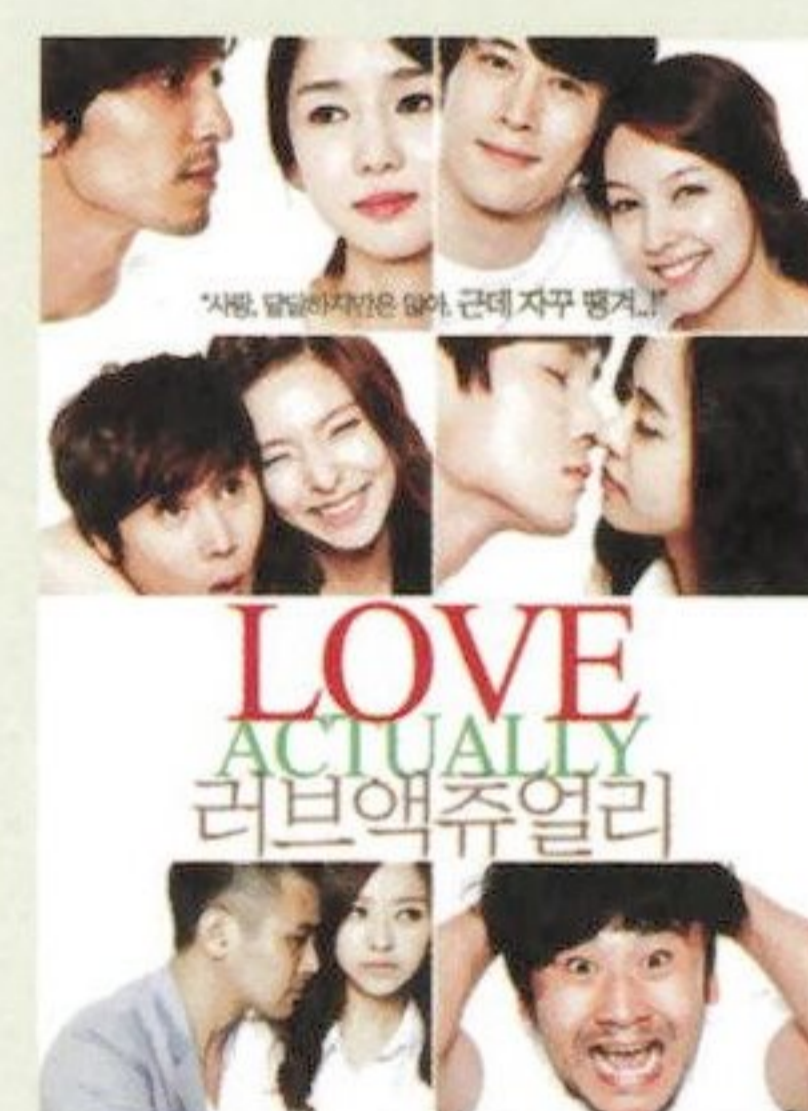
연극 '잇츠유'

3월 1일(목)-4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특종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두 남녀의 서로 다른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츠유'.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3월 3일(토)-4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4월 10일(화)-6월 3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연극 '라이어 1탄'

3월 16일(금)-4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주인공의 이중생활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펼쳐지는 폭소 코믹극.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이현규, 김효중
· 출연/정성일, 김연철, 손강국, 장혜리, 최문희 외

캐릭터뮤지컬 '천방지축 빼꼼'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4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1: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두부기획(02-2654-6854)

신나는 연주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천방지축 빼꼼밴드의 모험이야기.

**제19회 우리극연구소 연구실험공연
오이디푸스**

3월 29일(목)-4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4/8일까지 프리뷰기간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가마골 소극장(1588-9155)



신의 뜻이 아닌 자기의지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오이디푸스'로 새롭게 해석한 우리극연구소 '오이디푸스'.
· 작/소포클레스
· 예술감독/이윤택 · 연출/이승헌
· 출연/황인택, 경제미, 김효영, 황지하, 민혜림 외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에저또 '공기인형'**

4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2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극단 에저또(852-9161)



그림 속 여인을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상의 창조물로 치유하려는 고독한 현대인의 심리를 그린 창작극.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개 짚는 날'**

4월 4일-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극단 누리에(621-3573)



가족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인 개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창작극 '개 짚는 날'은 제4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은상 수상작이다.
· 작/이경진 · 연출/강성우

뮤지컬 '미운 오리새끼'

4월 5일-6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
7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10일 화요일 오전 10:10, 11:2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5일 수요일 오전 10:10, 11:2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두부기획(02-2654-6854)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하던 미운 오리새끼가 아름다운 백조로 성장하기까지의 모험담을 그린 가족뮤지컬.

연극 '아버지'

4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 5천원
A석 2만 5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원작으로, 청년실업과 노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비애와 가족의 해체에 대한 사회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연극 '아버지'.
'세일즈맨의 죽음' 최다 출연배우로, 1983년 최초로

아버지 윌리엄을 맡았던 연기자 전무송과 대한민국 대표 아버지 이순재가 주인공역을 맡아 완성도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원작/아서 밀러 · 번안, 연출/김명곤
· 출연/전무송(6일), 이순재(7일), 자유경, 이원재, 정선아, 문영수, 고동엽 외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꼬까비'**

4월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극단 도깨비(722-4231)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한 권력자의 집착으로 가려진 그릇된 사랑을 통해 참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창작극 '꼬까비'.
· 작/김익현 · 연출/최광욱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세진 '개 짚는 날'**

4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세진(623-0678)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극적인 장치를 적극 활용해 이야기의 감동을 전해준다.

· 작/이경진 · 연출/김세진

**부두연극단 앵콜 레파토리 BEST3
19 AND 80**

4월 10일(화)-5월 10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대학생 1만 5천원
 중고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액터스소극장(611-6616, 010-4122-6900)



콜린 하긴스의 소설 '헤롤드와 모드'를 각색한 작품으로,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19세 우울증 소년이 우연히 80세 할머니를 만나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운다는 연극 '19 AND 80'.

· 각색, 연출/이성규
· 출연/김미경, 김명희, 김미영, 손영민, 문지연 외

**2012 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자유바다 '나무목 소리탁'**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 극단 자유바다(441-2733)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끝없이 치솟는 분노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업과 인연을 그린 창작극 '나무목 소리탁'.

· 작, 연출/정경환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4월 13일(금)-6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초콜릿 팩토리(621-4005)



순수한 직장남 연주와 까칠 여고생 수영, 열혈고딩 강숙과 까칠한 도시여자 하경이 펼치는 유쾌한 로맨스가 따뜻한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 작, 연출/추상욱, 정진국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4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4:0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4만원 · R석 3만원
 S석 2만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 극단 예일(02-555-0822~3)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 육지로 나온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 작, 연출/이광열

개그투나잇 · 빅리그

4월 21일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 6만 6천원 · R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TV 개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폭소한마당.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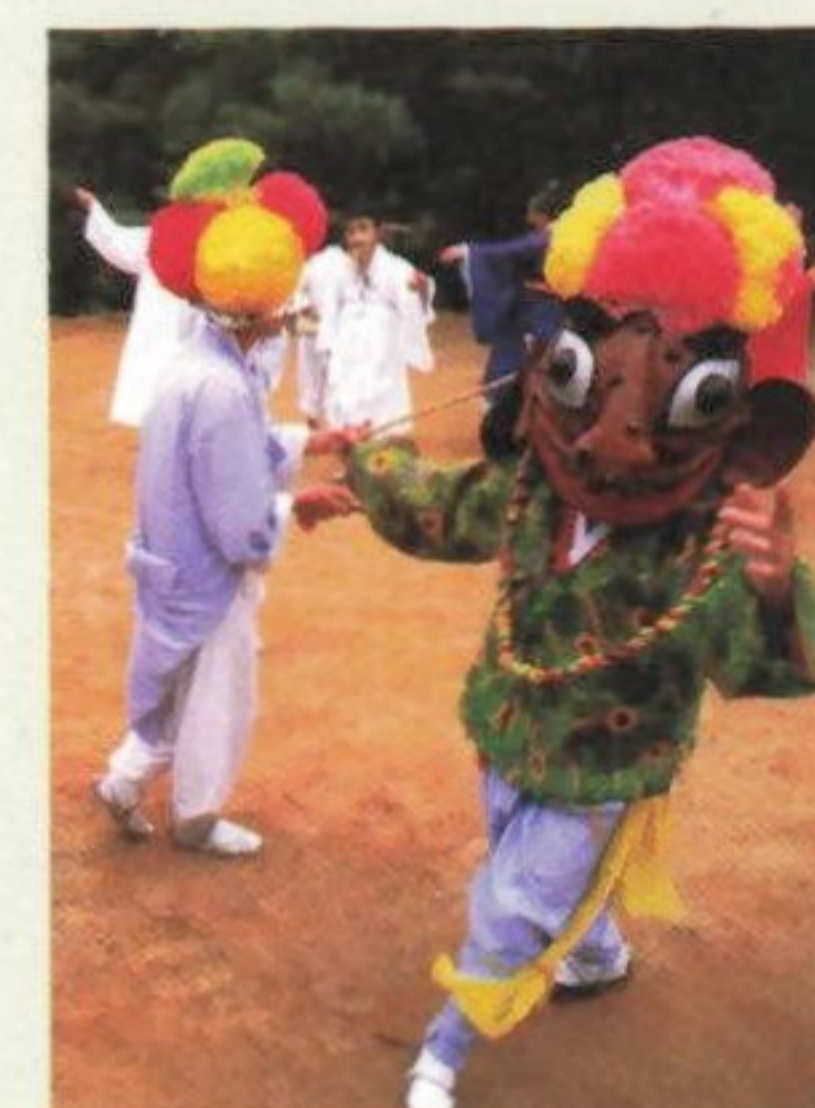
을숙도의 '수요일은 춤'

4월 21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 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BS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한마당**

4월 29일 일요일 오후 12:30
부산민속예술관 야외마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동래민속예술관(555-0092)



부산지역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해온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매주 넷째주 일요일 마련하는 전통민속놀이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동래고무, 동래한량무 등 동래지역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펼친다.

Movie

영화가 음악에 빠진 날

3월 23일(금)-4월 8일(일)
 영화의전당(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일반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부터 '샤넬과 스트라빈스키'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매혹된 영화 20편이 특별 상영된다.

월드시네마 IX

3월 23일(금)-4월 26일(목)
 영화의전당(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일반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시네마테크 부산의 대표적인 기획상영전으로, 클래식 오브 클래식, 걸작의 재발견, 포커스 온 파졸리니 등 세가지 섹션을 통해 세계영화사의 걸작 27편이 상영된다.

Concert

장사익과 함께하는 봄의 향연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5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삶과 꿈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한국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과 비엔나 국립극장을 정복한 바리톤 서정학이 함께 꾸미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아버지, 찔레꽃, 님은 먼 곳에, 세빌리아의 이발사,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수곡 · 연주/모스틀리 오케스트라(지휘/박상현)

公演之神(공연지신) 이승환 콘서트

4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주)WSM(1566-5490)

어반자카파의 '봄' 콘서트

4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균일 6만 6천원
 문 의 | FACE ENT(1661-3253)

제 12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성인가요콘서트

4월 17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소극장뮤지컬오페라 앙상블
 (550-6611)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콘서트

만남, 여행스케치와 세레나데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포크그룹 여행스케치의 따뜻하고도 소박한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안치환과 합창으로 듣는 7080

4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념공연으로 마련되는 2012 천원의 행복 네 번째 무대. 자유를 노래하는 가수 안치환과 부산콘서트콰이어가 출연, 7080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Event

해설이 있는 영상 뮤지컬

3월 28(수)-29(목), 4월 4일(수)-5(목) 오후 8:00
 영화의전당 중극장
 입장료 | 일반 7천원 · 학생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라민 카림투, 시에라 보게스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오페라의 유령' 과 세계 최초의 3D 뮤지컬로 화제를 모은 락 오페라 '모차르트'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영상뮤지컬.

- 3/28일-29일, 4/5일 25주년 특별공연 '오페라의 유령'
- 4/4일 락 오페라 '모차르트'

클래식 온 스크린 '마에스트로 6'

3월 30일(금)-31일(토), 4월 6일(금)-7일(토)
 오후 8:00 영화의전당 중극장
 입장료 | 일반 7천원 · 학생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세계 최정상급의 마에스트로의 콘서트 실황을 대형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회.

- 3/30일 리카르도 무티 & 베를린 필
- 3/31일 다니엘 바렌보임 & 베를린 필
- 4/6일 로린 마젤 & 뉴욕 필
- 4/7일 구스타보 두다멜 &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守怡齋 현장인문학시리즈 3

부산은 골목이다 2

4월 3일(화)-6월 5일(화) 오후 6:30
 (현장탐방은 오후 2:00) 문화공간 수이재
 문 의 | 최원준(010-6523-8998)



부산의 문화현장을 발로 뛰는 문화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부산문화 인문학강좌 세 번째 시리즈.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부산의 골목을 10명의 문화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걸어본다.

Gallery

구주환 개인전 '겹 혹은 결'

2월 17일(금)-4월 13일(월) 토요타 아트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아트스페이스(080-855-0007)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 '해외 유명작가 판화전'

2월 24일(금)-4월 8일(일) 금련산갤러리
문의 | 금련산갤러리(625-7251)

피카소, 샤갈 등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작가의 판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40계단문화관 개관 9주년 기념 특별전 '광포동 연가'

2월 28일(화)-5월 31일(목) 40계단문화관
문의 | 40계단문화관(600-4041)

부산 근대의 중심인 광포동(광복동과 남포동의 합성어)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특별전.

임응식과 한국현대미술전

2월 29일(수)-4월 1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한국사진예술의 선구자 임응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와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동강 하정웅 기증작품전

헨리 밀러의 회화, 세키네 노부오의 조각

3월 1일(목)-4월 1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재일교포 사업가이자 미술품 컬렉터인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헨리 밀러의 작품 187점과 세키네 노부오의 조각 작품 9점 전시.

어린이미술관 '그림이 톡talk톡talk'

3월 10일(토)-7월 18일(수)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현재는 미래다-공존의 공간

3월 15일(목)-4월 30일(월)
용두산타워 전시실, 가양갤러리
문의 | 가양갤러리(752-7830)

2012 두레라움 스프링 페스티벌 춘몽(春夢) Spring & Fantasy 야외 설치조각전

3월 23일(금)-4월 8일(일)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
문의 | 영화의전당(780-6000)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기획전 하얀 미래, 핵을 생각하다

3월 24일(토)-6월 24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코다마후사코 작 'Minamisouma'

현재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자력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문제적 시선으로 담아낸 기획전. 위르겐 네프쯔거, 정주하, 코다마 후사코 등 독일, 한국, 일본 3개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갤러리 움 개관 1주년 기념전 '편견과 소통'

3월 27일(화)-4월 21일(토)
갤러리 움(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라는 모토로 환우의 재활을 위해 애쓰는 나눔과행복병원이 진행한 '행복한 미술프로젝트' 를 통해 전업작가, 전공생과 일반 봉사자들이 함께 한 환우들의 작품 전시.

이현순 개인전

4월 3일(화)-4월 14일(토) 갤러리 자인
문의 | 갤러리 자인(365-3675)
화명동에 거주하는 작가 이현순 수채화 작품전.
· 관람시간/오후 12:00~6:00(월, 일요일 휴관)

2012 꽃그림전 '축제'

4월 3일(금)-4월 30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송영명 작 '목련'

박승모 초대전 '환상, 다시 돌아오다' 展

4월 6일(금)-4월 20일(금)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찰나를 표현한 박승모 초대전.

예작 네 번째 이야기 '같이 숨쉬다'

4월 12일(목)-4월 20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유명작가 온라인 경매

4월 21일(토)-4월 25일(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부산여류전

4월 23일(월)-4월 30일(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40대에서 80대까지 비구상, 구상, 추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류작가들의 작품 50여점 전시.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

조영석_음악애호가



클래식 음악의 시작은 모차르트 부터라고들 하지만 나는 모차르트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학창시절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과 41번(주피터) 등을 즐겨 들곤 했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이 왠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30대 중반쯤에서야 피아노소나타 K331을 비롯해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두 개의 론도, 바이올린 소나타 K304, 클라리넷 협주곡과 5중주 등등 모차르트 음악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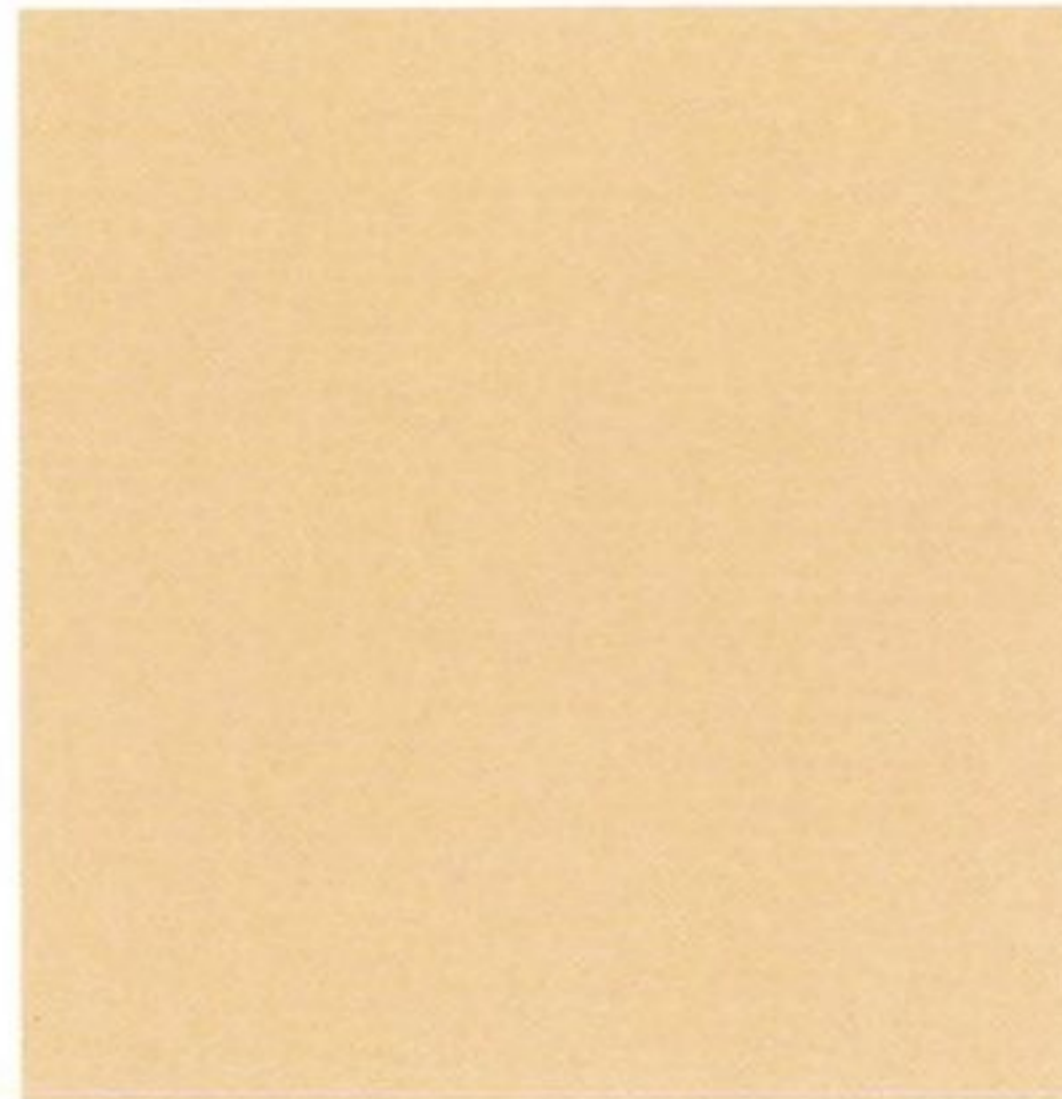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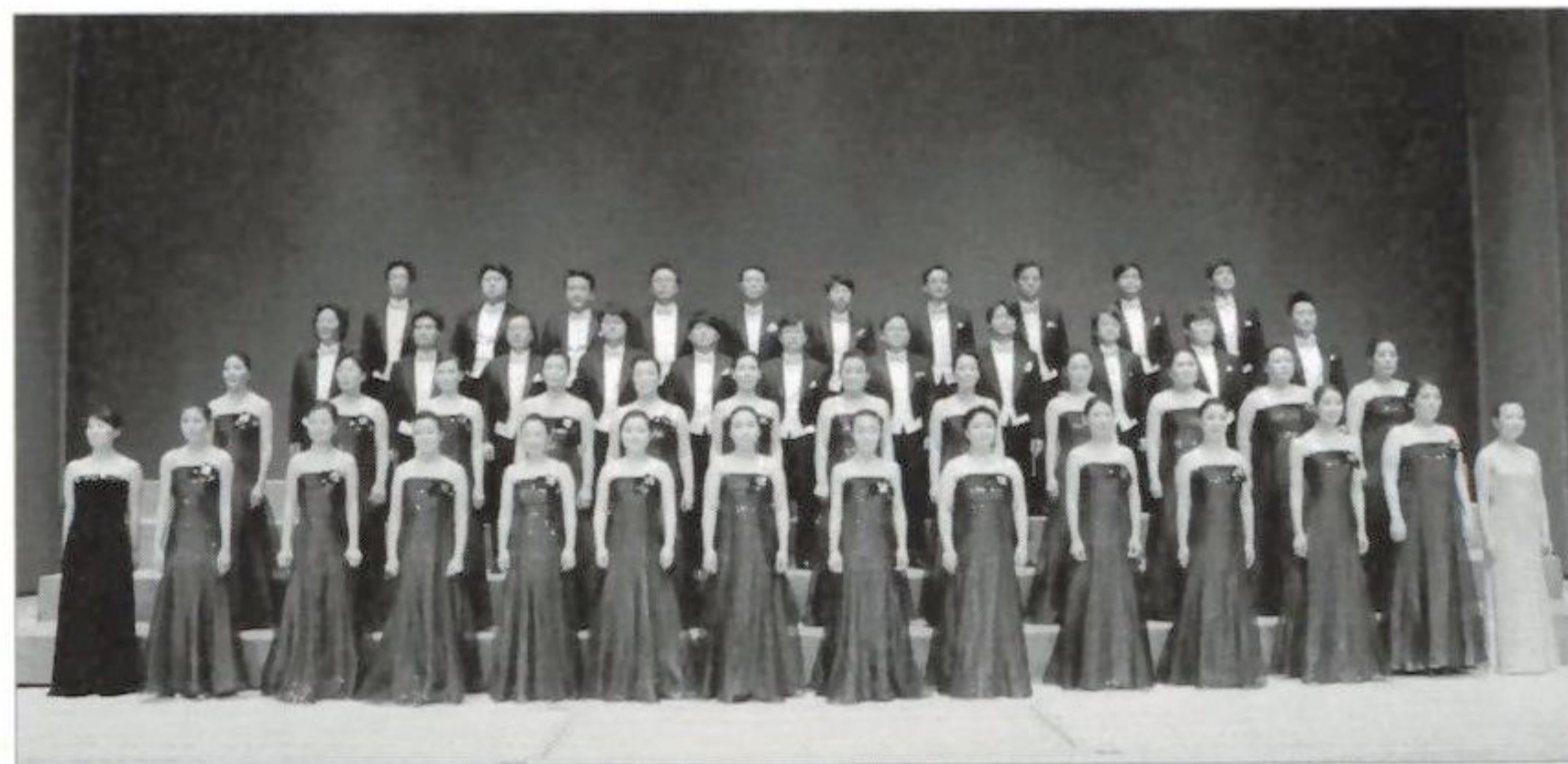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절절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모차르트의 한 선율을 만났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교향적 협주곡 K364 중에서 2악장을 듣는 순간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한없이 투명하고 맑은 선율이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 나가던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모차르트는 결코 눈물을 줄줄 흘리는 법이 없다. 눈에 눈물이 고여 보석처럼 반짝일 뿐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었다.

모차르트 음악에는 크게 나누어 각각 다른 두 줄기의 선율이 흐르는데, 하나는 귀족들의 여흥이나 행사를 위한 직업적인 의식에서 작곡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이 깊이 간직한 슬픔의 선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자신이 간직한 음악세계를 청중들에게 강요하거나 결코 요란하게 드러내질 않았고 자신의 음악세계를 이해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게 숨겨 놓았다.

‘오, 모차르트!’ 20세기의 위대한 지휘자 칼를 뵘이 임종을 앞두고 내뱉은 말이다. 왜 그랬을까? 평생 다해도 모차르트 음악에 다다르지 못한 회한에서였을까? 아니면 모차르트 음악에서 슬퍼도 결코 드러내어 슬픔을 말하지 않는 哀而不悲의 아름다움과 모차르트의 진정한 음악세계에 대한 찬사에서였을까? 아무튼 그 후 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를 모차르트 음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다. 한국 모차르트 회원인 필자의 회원 번호가 K364번일 정도니 말이다.

칼를 뵘이 지휘한 이 음반은 특이하게도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닌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했는데, Tempo도 일품일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에 토마스 브란디스, 비올라에 기우스토 카폰 등 두 연주자의 앙상블도 뛰어나고 녹음도 준수하다. 또한 이 음반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도 명 연주로 꼽힐 만 하다.

“모차르트는 결코
 눈물을 줄줄 흘리는 법이 없다.
 눈에 눈물이 고여
 보석처럼 반짝일 뿐이다”



부산시립합창단 '우리의 노래'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이후 합창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 3월 부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우리나라 합창의 거목이신 나영수 선생님을 부산에서 볼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나영수 선생님이 우리 합창곡들을 보급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것 처럼 어려운 합창곡보다는 우리말, 우리정서로 된 우리의 합창곡이 앞으로도 많이 불리어졌으면 합니다. 강정미(해운대구 우동)

부산챔버오케스트라 '바로크 음악의 재발견'

봄이면 비발디의 사계 '봄'이 여기 저기 울려 퍼진다.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비발디의 음악에 이끌려 공연장을 찾았다. 평소 바로크 음악을 자주 만날 수 없었던 터라 부산 챔버오케스트라가 준비한 '바로크 음악의 재발견'이 나의 봄 맞이에 큰 힘이 되었다. 바로크음악이 갖는 세밀함, 화려함이 나의 무딘 정서를 일깨워주었다. 박은정(부산진구 전포동)

연극 '청춘정담'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의 손을 끌고 공간소극장으로 향했다. 연극 '청춘정담',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부제처럼 세 쌍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다. 때론 웃고 울고 마음 졸이며 극 속에 빠져들었다. 연극이 끝나고 친구는 "그래...그 순간에는 다 사랑했던 거야" 하며 웃어 보인다. 친구에게 또 다른 청춘정담이 시작되리라 희망을 품어본다. 정지혜(영도구 봉래동 3가)

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매번 나오는 인연이 없었던 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를 드디어 만났다. 평일이었지만 '로시줄'의 인기와 유명세 때문에 소극장에 빈자리가 없었다. 지금 이 시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기발한 스토리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신나는 음악과 배우들의 열정, 그 에너지가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지영(사하구 당리동)

하늘아래 그 콘서트 '이치현과 벗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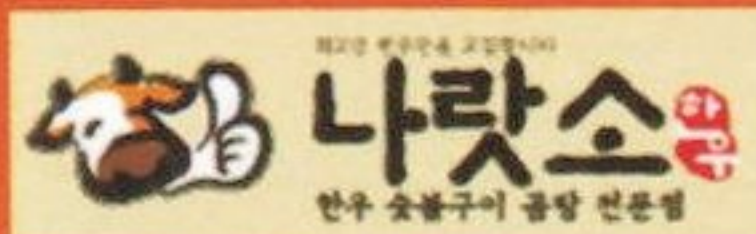
요즘은 아이돌 전성시대이다. 드라마도, 광고도 모두 아이돌이 장악했다. 아이돌 틈에서 중년의 정서를 대변해줄 가수들이 버릴 힘이 얼마나 있을까. 오랜만에 우리 세대들에게 즐거움을 준 '이치현과 벗님들'을 만났다. 이젠 성공을 향해 매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시간만은 20대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박기명(북구 화명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는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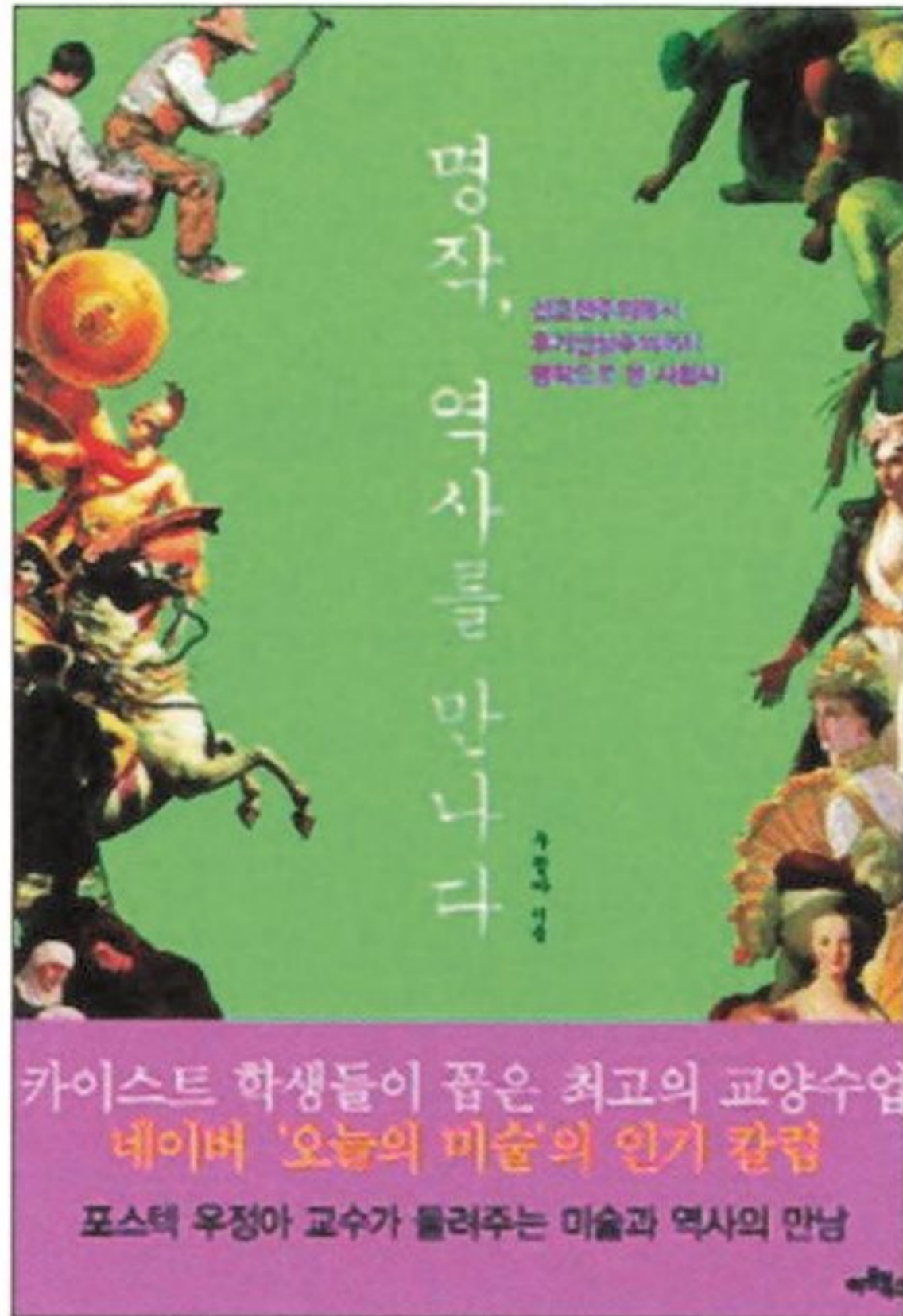
보내실곳 _ bsculture@naver.com

마 감 _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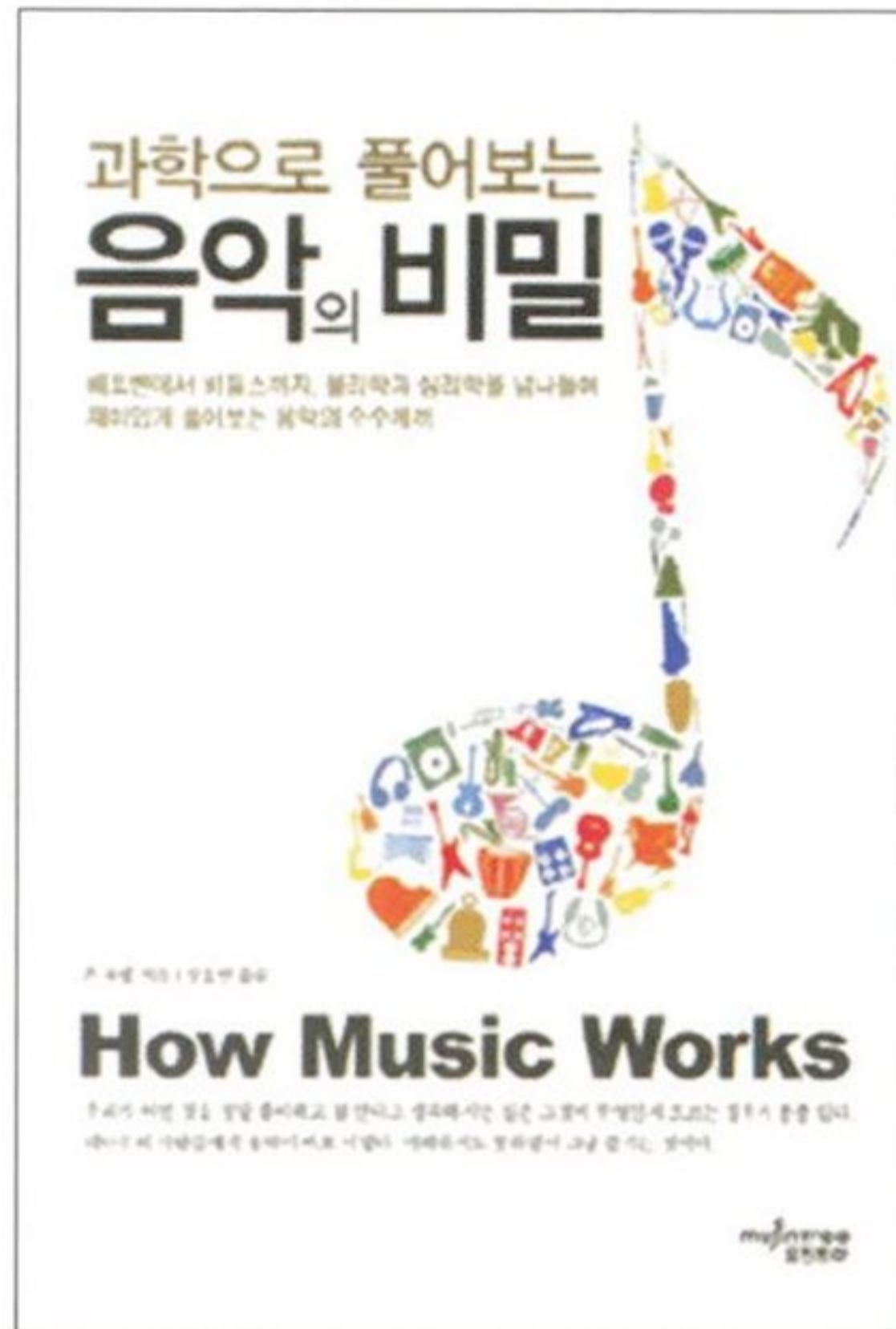


명작, 역사를 만나다

우정아 지음 / 아트북스 / 148p / 1만7천원

왼손엔 장총을, 오른손엔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를 든 한 여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뒤따르는 군중을 독려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다. 이 여인을 통해 들라크루아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자유'였다. 발치에서 쓰러져가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애써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던 것도, 어린 소년마저 권총을 들고 일어서게 만든 것도 인간인지가 꿈꾸는 단 하나의 이상 '자유'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오늘의 미술〉에 연재되었던 우정아 교수의 칼럼 '서양미술 산책'이 책으로 다시 선보인다. 신고전주의에서 후기인상주의까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미술을 살펴본 책이다. 책의 중심 소재는 '혁명'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등을 다루었다. 미술이 교회와 귀족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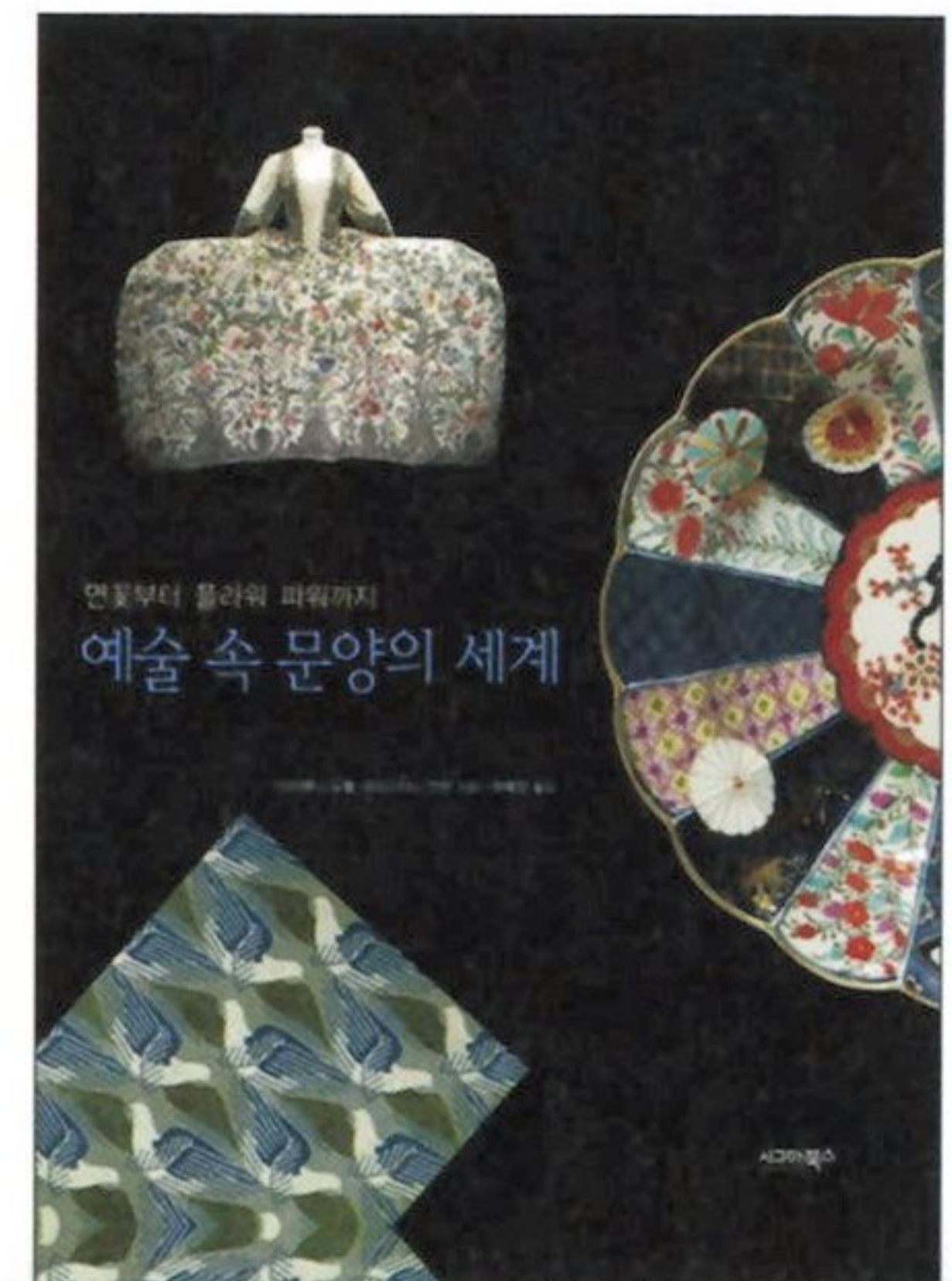
가 개인의 표현으로, 개인을 넘어 때로는 한 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정도의 위력을 갖게 되는 시기를 대상으로 했다. 저자는 미술에 대한 지식과 미술사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삶을 확장시키며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미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일깨워준다.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존 파웰 지음, 장호연 옮김 / 뮤진트리 350p / 1만5천8백원

아침 출근길에 들은 노래에 마음을 빼앗겨 그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다녀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음악에 감동할 수 있는 것일까. 음악의 원리는 무엇일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음악이 어떤 원리로 감동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자이자 음악가인 존 파웰은 이 책에서 음악에 얽힌 갖가지 궁금증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면서 매혹적인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곡가들은 곡을 쓸 때 대개 화성을 선율의 배경으로 삼는다. 배경에 따라 사진 속 인물이 더 밝거나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화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음악의 과학 및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재치 있고 유쾌하게 설명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일반 청자와 연주자들이 대개 모르고 지나치지만 음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귀를 잡아채는 팝송의 매력, 모차르트의 조성에 얽힌 비밀, 작곡에서 화성이 하는 역할, 왜 어떤 음들은 서로 충돌하고 어떤 음들은 조화롭게 들리는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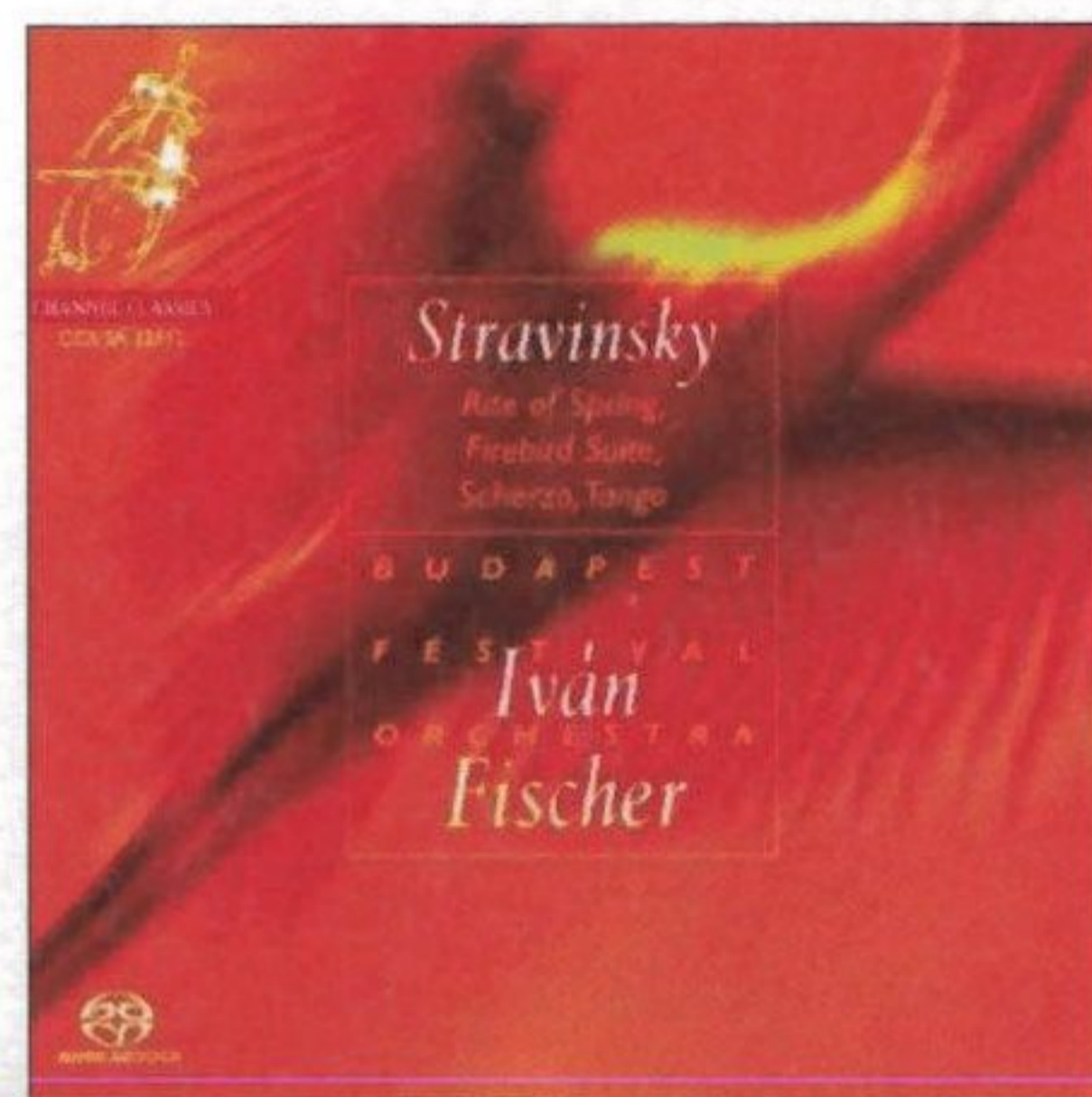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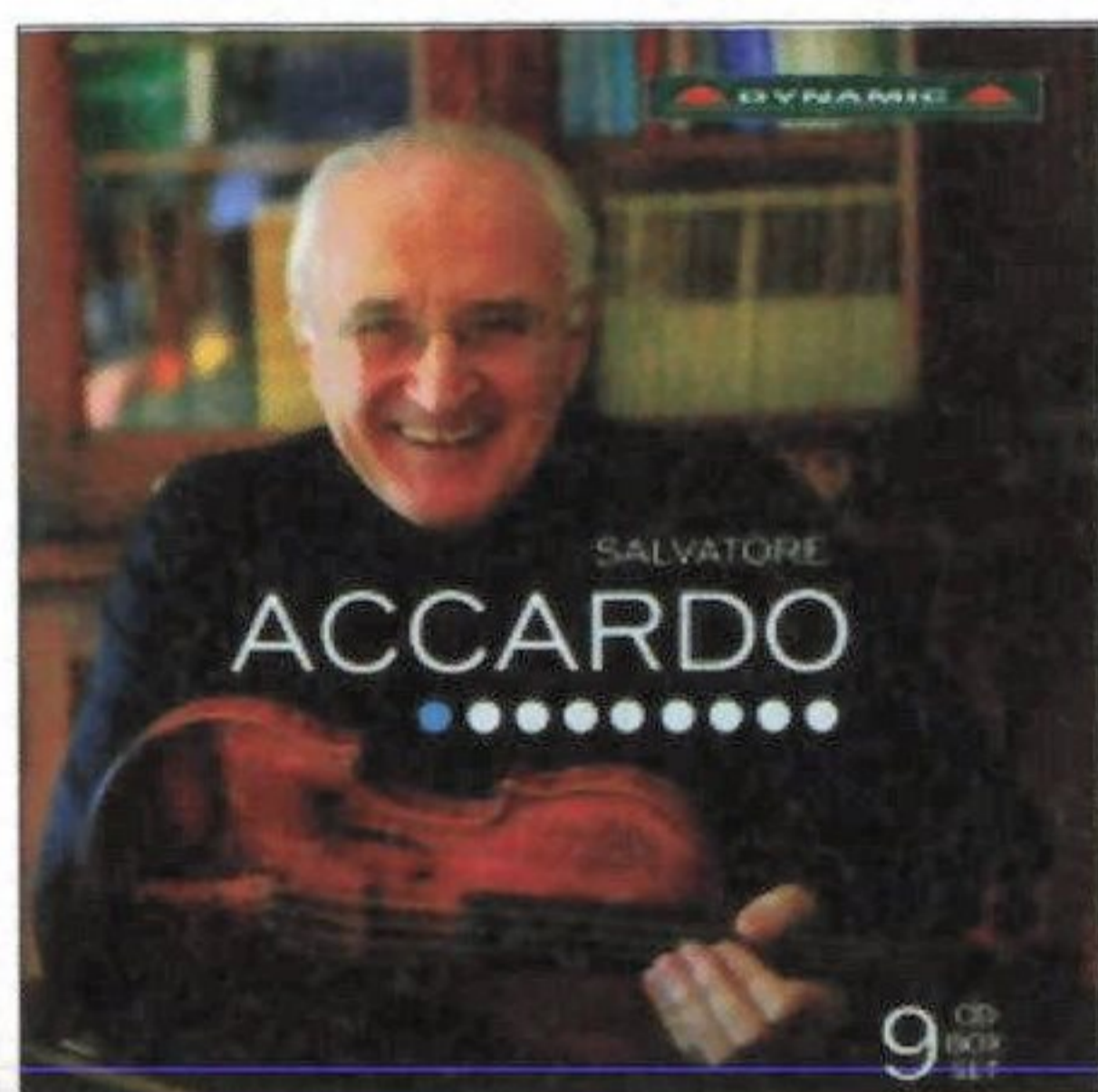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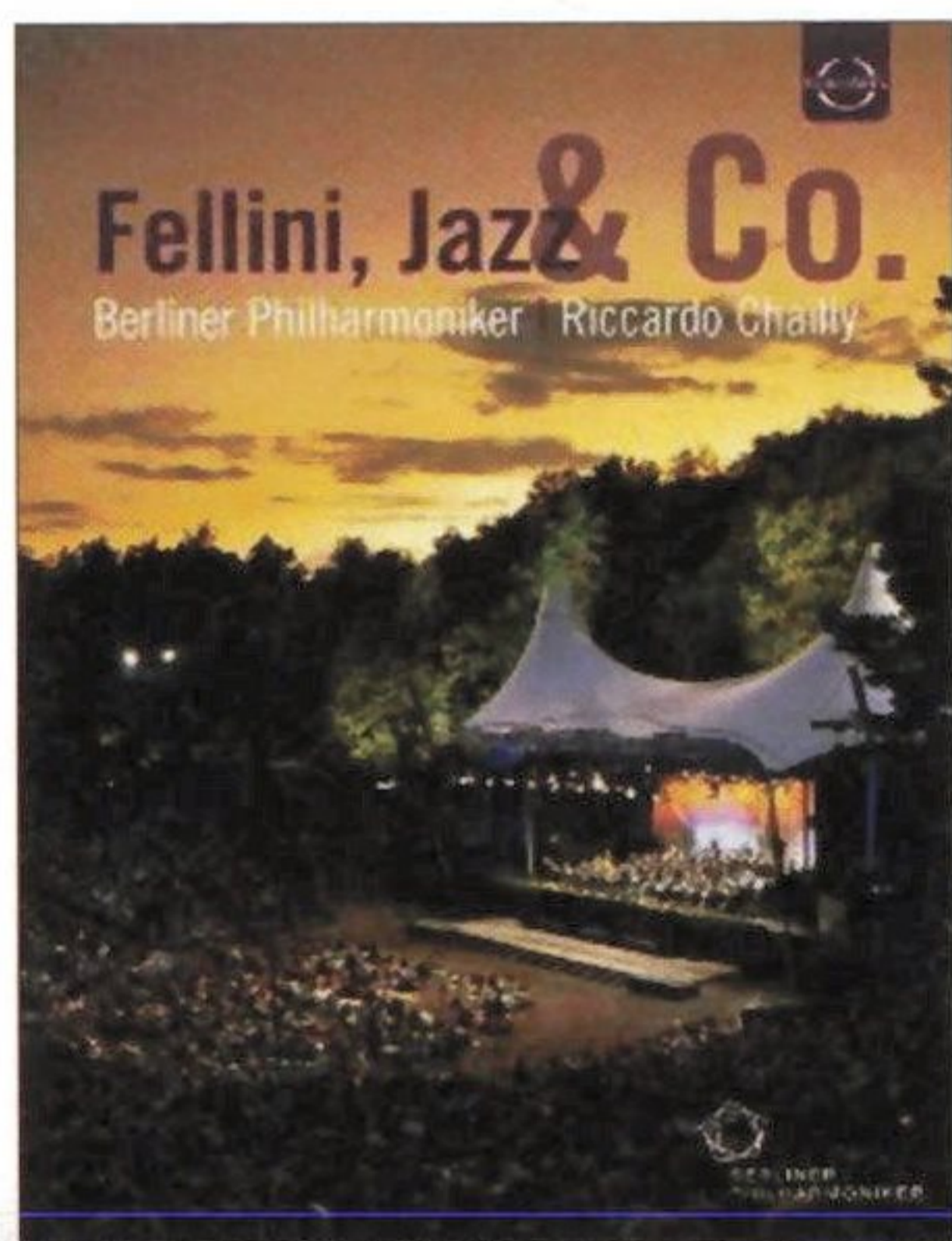


예술 속 문양의 세계

다이애나 뉴월·크리스티나 언원 지음, 권혜정 옮김 시그마북스 / 288p / 3만5천원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물에 무늬가 없다면 어떨까. 아마 이 세상은 지루하고 심심한 모습일 것이다. 미묘한 사물에 무늬를 넣고 싶은 건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바다의 힘을 경외하며 파도무늬를, 하늘을 경배하며 구름무늬를 토기에 그려 넣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통 의상인 한복이나 옷감 등에서 화려하게 수놓아진 여러 모티프를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사용해 온 전통문양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 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문양들은 수없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책은 인류 역사 3,000년 동안 이어지는 섬유, 회화, 상감 건축 등에 나타난 문양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무수히 많은 디자인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잊혔다가 다시 주목받고, 변화하고 부활했는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반복·변화·교차되고 대칭 또는 비대칭으로 연결된 모티프들로 이루어진 문양은 옷, 장신구, 섬유, 벽지, 가구, 도자기, 그림, 조각, 건축물 등 문양이 장식된 사물 자체와 함께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인 모습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문양 디자인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1 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 Fellini, Jazz & Co.

Riccardo Chailly(지휘),
Berliner Philharmoniker

베를린의 발트뷔네는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인 숲속 야외 원형극장 중 하나이며, 베를린 필하모닉의 여름 콘서트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음악애호가들이 나무와 풀벌레 소리와 함께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면서 색다른 여름을 이곳에서 보낸다. 이 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는 2만명이 넘는 관중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콘서트다.

리카르도 샤이는 베토벤, 브람스에서부터 20세기의 현대 작곡자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이다.

2011년 발트뷔네 콘서트에서는 리카르도 샤이의 지휘 아래 쇼스타코비치, 리노 로타 그리고 레스피기의 대표적인 곡들이 연주되었다. 리카르도 샤이는 이 작곡자들의 곡들을 청중들에게 야외 콘서트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불새> 모음곡 <러시아 풍의 스케르초>, <탱고 72번>

이반 피셔(지휘), 부다페스트 페스티발 오케스트라

오래 전 필립스 시절부터 20세기 음악의 위대한 해석자로 인정받았던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발 오케스트라가 현대 음악의 탄생을 알렸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초연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선사하는 스트라빈스키 앨범!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명쾌한 세부 묘사와 절묘한 리듬 감각은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특히 잘 어울리며, 채널 클래식의 뛰어난 녹음도 연주와 미덕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음악에서 신선함을 이끌어 내는 지휘자 이반 피셔의 음악적 역량과 오케스트라의 정밀한 연주력이 돋보이는 음반으로, 작곡가의 승인을 받은 오케스트라 편곡판으로 들은 <러시아풍의 스케르초>와 <탱고 72번>도 정말 매력적이다.

지휘자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발 오케스트라는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때 첫 내한 무대를 가진 바 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예술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1743년 과르네리 델 제수'의 사운드[10CDs FOR 3]

살바토레 아카르도는 '파가니니의 재래(在來)'라 일컬어지는 대가이다. 아카르도는 1956년 15세의 나이로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1958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파가니니 연주자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경이적인 기교의 소유자이다. 그는 19세기의 수많은 작품을 섭렵했으며, 히나스테라로부터 협주곡을 헌정받는 등 현대음악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레파토리는 바흐 이전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지만, 역시 아카르도 하면 파가니니이다.

이 박스는 이러한 그의 활동의 결정체이다.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1743년 과르네리 델 제수로 연주한 파가니니의 <바루카바 변주곡>과 여러 소품들은 바이올린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녹음이며, 히나스테라의 협주곡과 바르토크의 초기 소나타는 이 박스가 아니면 들어보기 어렵다. 베르디의 <현악사중주>와 드보르작, 쇼송, 롤라 등의 실내악들도 매우 흥미롭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교향악축제 참가

| 4월 6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리 신차오 지휘, 김대진 협연 |



지난해 '2011 교향악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일부터 열리는 '2012 교향악축제'에 초청받아 서울 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4월 6일 무대에 오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지휘,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국내 최대, 최고의 음악축제로 우리음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전국 18개 교향악단과 미래 우리 음악을 이끌어갈 2개 대학 교향악단, 운파 임원식 선생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운파 메모리얼 오케스트라,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가 특별출연하여 교향악의 향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4월 공연이 확정됐다. 4월에는 4월 14일 모라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을 시작으로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내사랑 부산공연', 시립교향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이 부산시청과 광안리해수욕장, 온종합병원에서 펼쳐진다.

공연 일정

4/14	15:00	모라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무용단)
4/25	12:30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출연/시립합창단)
4/27	19:00	광안리해수욕장	내사랑 부산공연 제12회 광안리어방축제 개막공연(출연/시립무용단)
4/30	15:00	온종합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회 창작곡 공모의 밤' 작품 공개모집



역량 있는 작곡자의 창작음악을
발굴하고자 '제1회 창작곡 공모의 밤'
연주 작품을 모집합니다.

연주회개요

공연명 | 제1회 창작곡 공모의 밤
일시/장소 | 2012. 10. 18(목) 19: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모집개요

공모자격 | 전국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신인 작곡가
공모부문 | 국악관현악곡(순수관현악곡, 협주곡)
공모작품 | 연주소요시간 15분 내외의 저작권협회 미등록 및 미발표된 작품
※ 당선작 선정 후 발표이전까지 타 단체 공개연주 금지
입상특전 | 당선작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기회 부여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2. 4. 2(월) ~ 7. 13(금) 17:00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무실(051-607-3121~4)
우편접수처
우)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시립국악관현악단
※ 우편접수는 접수종료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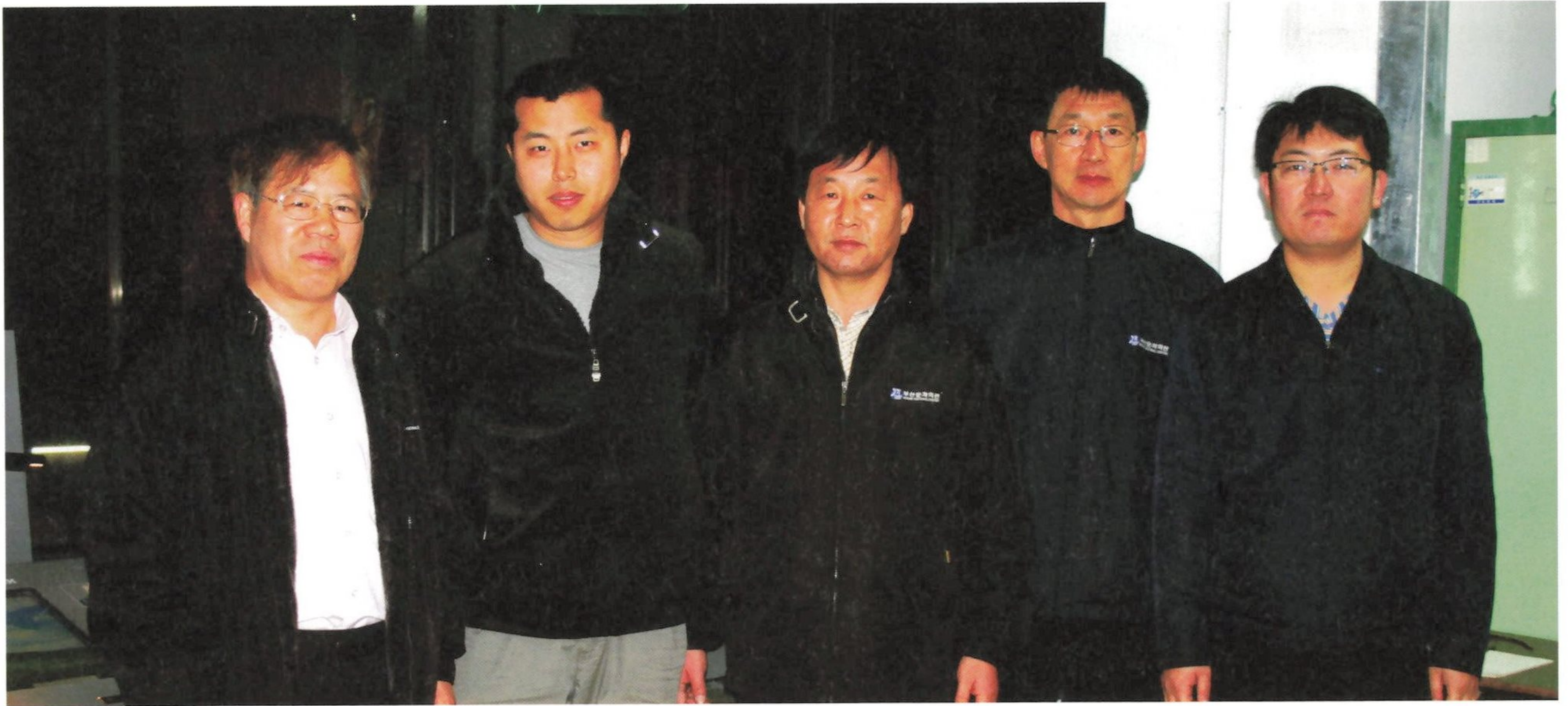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악보(총보) 6부 제출(B4크기)
- 악보 제출시 컴퓨터 사보 원본 제출
- 작품해설서 1부

기타사항

합격자발표 | 2012. 7. 27(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심사결과 당선작 없을 수도 있음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051-607-3121~4)

무대 뒤 사람들 - 부산문화회관 무대팀



아무리 훌륭한 예술작품이라도 무대에 올려져야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법. 예술작품이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들이 무대팀 직원들 손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에는 서종철 주임을 비롯해 고운덕, 이상기, 지성일, 서정우 등 5명의 직원이 3곳의 극장과 국제회의장 무대를 총 책임지고 있다. 무대세트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하다못해 연주회에 필요한 비품관리까지 무대와 관련된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그야말로 '공연장의 만능맨'이다.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이나 음향과 달리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언제나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법.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무대의 불이 꺼지고 무대세트가 완전히 철거되는 마지막까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1988년 부산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무대업무를 시작한 서종철

주임을 비롯해 이상기, 고운덕 씨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이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외부 공연단체들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 부산문화의 본당이라는 명성처럼 부산지역 대부분의 주요 공연들이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만큼 부산문화회관 무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365일 무대는 언제나 '온라인' 상태이다. 특히 오는 4월 한달간 부산문화회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형뮤지컬 '미스사이공'과 부산연극계의 큰 잔치 '부산연극제'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하는 어려운 근무조건 속에서도 부산문화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이 있어 그들은 오늘도 무대에서 땀 흘릴 수 있다.

지 / 난 / 호 / 정 / 답

미	스	사	이	공	아	바	타
샤	리	플	리	지	음		
마	추	픽	추	아	로	마	
이	사	고	할				
스	오	체	투	지	푸	워	
키	메	라	전	우	치	낭	
토	함	산	니	소			
알	제	리	조	승	우	피	리
로	오	목	포	스	터		
하	렘	화	음	늪	팬		

3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민정(남구 대연4동)
초대권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박영재(남구 용호4동)
 이진영(남구 우암1동)
 윤혁경(북구 화명신도시로)

나랏소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식사권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서순영(해운대구 아랫반송길)
 송경희(연제구 연산동)
 송혜영(해운대구 좌동)

조은극장 김미영(서구 토성동)
초대권 김종숙(남구 용호동)
 손미솔(양산시 물금읍)
 장미숙(연제구 연산5동)
 최수현(양산시 물금읍)

큰집 김용건(해운대구 좌동)
식사권 김태진(연제구 연산4동)
 윤지현(서구 초장동)
 장미정(금정구 구서동)
 최남이(사상구 괘법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가로열쇠]

- ① 전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 4년에 한번 실시하며 올해 4월 11일 열린다.
- ② 러시아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지휘자. 20세기 초 가장 탁월한 피아니스트이자 낭만파의 마지막 작곡가이기도 하다. 1901년 피아노협주곡 제 2번으로 글린카상을 수상했다.
- ③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교훈, 경구, 비유, 상징어 및 관용구나 속담 등으로 사용되어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준다.
- ④ 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무역항으로,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
- ⑤ 마리오 푸조의 베스트셀러였던 동명소설을 토대로, 사실리 출신의 한 이민자가 미국 마피아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가문의 3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시대사를 그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 ⑥ 중국 후한(後漢) 말기 조조가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과 싸웠던 전투. 조조가 패하면서 손권의 강남 지배가 확정되고 유비도 형주 서부에 세력을 얻어 천하 3분의 형세가 확정되었다.
- ⑦ 독일 바이마르시대와 나치시대, 그리고 제 2차세계대전이라는 격동기의 독일을 살아가는 오스카라는 난쟁이의 삶이 연대기순으로 펼쳐지는 키타 그라스의 소설. 199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 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전. 조선 태조 4년(1395)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재건했다.
- ⑨ 에스파냐 북부, 산탄데르 주에 있는 구석기시대의 동굴 유적. 동굴 내부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벽화가 있다.
- ⑩ 탁구.
- ⑪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여 전에 완성된 작품으로서 모차르트 예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밤의 여왕 아리아 '나의 가슴은 분노로 불타올라'가 유명하다.
- ⑫ 오스트리아의 국화. 제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침공당했을 때 저항의 상징으로 불렸던 노래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삽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세로열쇠]

- ② 전북 고창군 도솔산에 있는 사찰. 절 뒤 조성된 동백숲으로 유명하다.
- ③ 영국 최고의 극작가 레이쿠니의 대표적인 시리즈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고객들의 폭소를 유발시킨다. 현재 BS부산은행 조은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 ④ 뱃사람들의 은어로, '남풍(南風)'을 이르는 말.
- ⑤ 체코의 수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⑥ 고려시대 두 차례 간행한 대장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 처음에 만든 것은 몽고군의 침입 때에 없어졌고, 두 번째의 해인사 대장경판이 지금 남아 있다. 경판(經板) 수가 총 6,589권으로 81,258판이므로 8만대장경으로도 불린다.
- ⑦ 대역 없는 무술 연기와 익살스런 표정 연기로 유명한 홍콩의 대표적 액션 영화배우. 1970년대부터 영화 '취권' '폴리스 스토리' '용형호제' 등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배우로 자리잡은 후 할리우드에 진출, '러시아워' '택시도' 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 ⑧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⑩ 영국의 시인, 소설가인 J.R. 키플링의 아동문학작품. 늑대의 손에서 자란 소년 모글리를 주인공으로 대담하게 동물을 의인화함으로써 동물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 ⑪ 서양식으로 만든 활. 또는 그 활로 겨루는 경기.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 부분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는 표적을 쏘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쪽이 승리한다.
- ⑫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할 때,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쓴다.
- ⑬ 사랑과 반역, 생존을 위한 투쟁 등 기상천외한 재미의 세계를 재미의 시각으로 흥미있게 그려낸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스테디셀러.
- ⑭ 고대 이집트와 아시리아 등지에서 왕궁, 신전, 분묘 따위의 입구에 세운 석상. 이집트에서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였다.
- ⑮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인 미국의 권투 선수. 1964년 2월 25일 소니 리스턴과 대결에 앞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호언장담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 ⑯ 17세에 요절한 미국의 로큰롤 가수 리치 밸런스의 짧은 생애와 음악을 그린 청춘영화. 영화 제목이자 멕시코의 전통 구전민요인 000는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 ⑰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무언극.
- ⑱ 일정한 구역 안에서 두 편으로 갈라서 한 개의 공으로 상대방을 맞히는 공놀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한국 근현대사 흔적이 살아있는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春三月, 새봄의 설레임을 안고 시작한 3월 테마여행. 72번째 맞이한 테마여행지는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광역시. 그중에서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근대역사 골목투어를 위해 정기회원 가족들이 모였다. 특히 테마여행지로서는 대구가 처음인데다, 최근 TV방송을 통해 골목투어가 소개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정기회원들의 신청이 많았다. 3월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황선희, 이정인, 김태훈 씨가 동참하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청라 언덕

- 두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골목투어의 첫 출발지인 청라언덕. 청라언덕에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2km ‘근대문화의 발자취’ 코스는 100여년 전 근대역사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골목길 투어 코스 중 가장 인기가 많다. 이날 골목길 투어를 이끌어줄 문화유산해설사 김경화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특히 예전에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했던 김경화 씨와의 인연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진다.

청라언덕에는 1899년 문을 연 영남지역의 첫 서양 진료소인 제중원인 지금의 동산병원과 앞서 1898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3채의 선교사

주택 등 100여년 전 근대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3채의 선교사 주택은 현재는 의료박물관과 선교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 청라언덕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로 시작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언덕으로, 1910년대 계성고교를 다녔던 작곡가 박태준이 당시 짝사랑했던 여고생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며 전직 합창단원이었던 김경화 해설사의 선창으로 가곡 ‘동무생각’을 합창했다.

대구

3·1만세운동길

• 이어 발길을 옮긴 곳은 인근에 자리한 '3·1만세운동길'. 90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3·1만세운동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지나다니면서 부쳐진 이름으로 지금은 3·1운동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길 벽에 부착되어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계산성당

• '3·1만세운동길'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히는 계산성당을 만날 수 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계산성당은 故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결혼식을 가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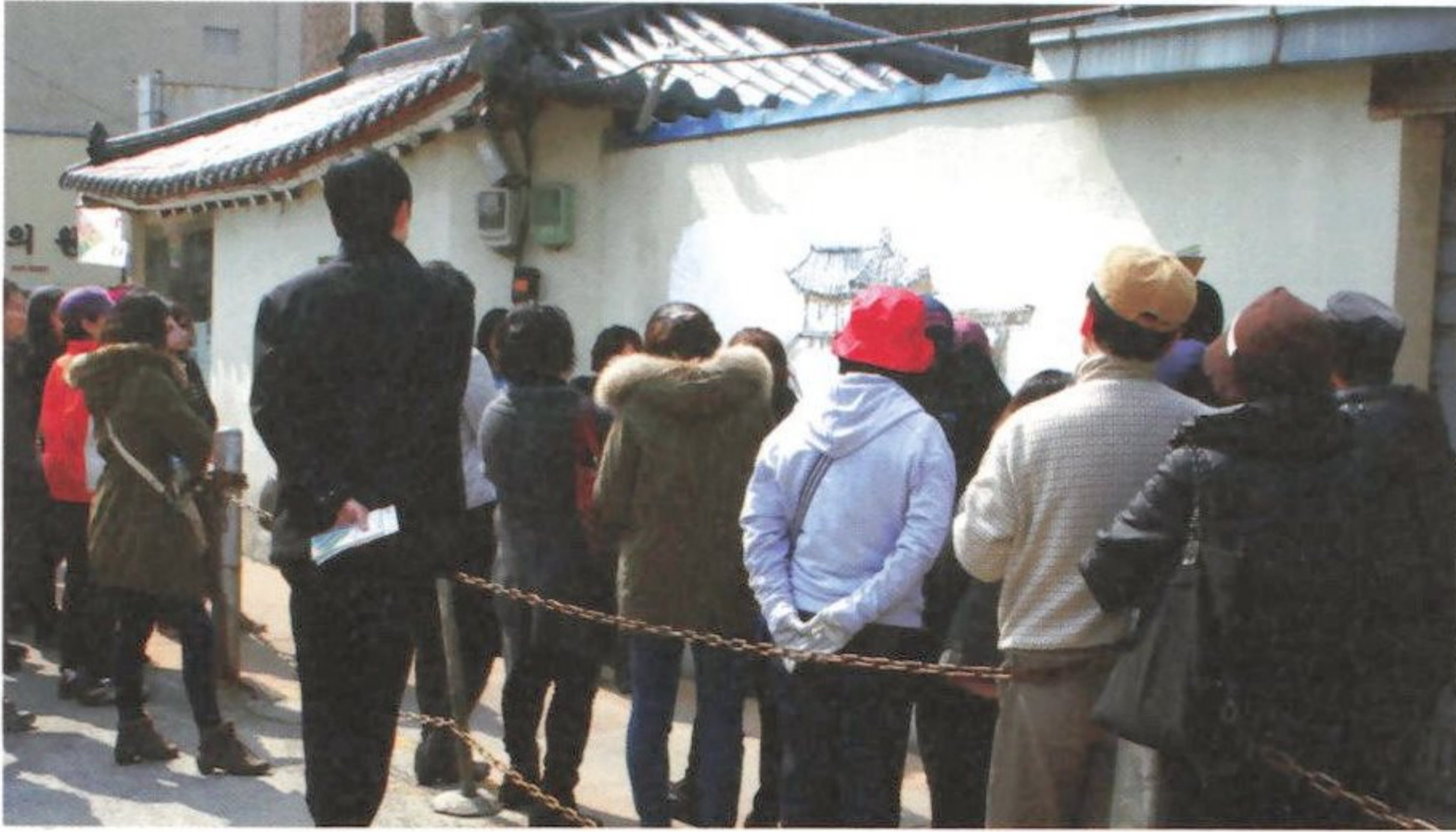
이상화 선생, 서상동 선생 고택

• 대구는 한마디로 골목길의 도시다. 다른도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다. 계산성당을 나와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새겨진 보도를 따라 가다보면 이상화 선생의 고택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1939년부터 임종때까지 약 4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이상화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상화고택은 인근지역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대구시민들이 고택보존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켜낸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동 선생의 고택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진골목

•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대구 장관동에 살던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의 주요 무대가 된 백록식당을 지나 점심 식사장소인 진골목으로 향했다.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해 '긴골목'이란 뜻을 가진 진골목은 인근 변화가와는 사뭇 다른 대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인 근대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결의했던 시발점으로, 현존하는 대구 최초의 양옥건물인 '정소아과'와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미도다방을 만날 수 있다.





5월에는 자연과 전통이 살아숨쉬는
참외의 본고장 성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4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강휘용(동래구 온천3동)
김경애(사상구 주례1동)
김정화(사하구 하단1동)
박영미(남구 대연1동)
배익식(부산진구 개금3동)
윤숙진(해운대구 채송1동)
이순희(양산시 웅상읍)
이운용(사하구 괴정2동)
정경선(사하구 다대2동)
정흥섭(사하구 하단1동)

엽서당첨자

김미영(서구 동대신동)
김진혜(양산시 평산동)
김태진(연제구 연산4동)
박소연(사하구 당리동)
윤현주(양산시 북정동)
이태순(서구 부민동)
장미정(금정구 구서동)
조유미(금정구 장전동)
조은숙(양산시 웅상읍)
하윤재(서구 서대신동)

엽서 보내실곳 _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신청 _ culture.busan.go.kr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

마 감 _ 4월 15일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점심식사 후 오후 일정은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시작했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인 1658년 대구읍성 안 객사 부근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한약재를 거래했던 전통한약시장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만주와 중국, 몽고, 베트남,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나라에 한약재를 공급함으로써 국제적인 한약물류유통의 거점으로 명성을 떨쳤다. 약령시의 역사와 인근 약전골목의 유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지난 1985년 '한약재 상설전시관'으로 건립된 후 2009년 지금의 약령시한의약박물관으로 변모했다. 특히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전시품과 함께 한방족욕제를 첨가한 한방족탕체험, 다섯가지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비누 만들기, 한방방향척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회원가족들은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준비한 8가지 향기가 나는 한약으로 한방방향척 만들기에 도전했다.

탈춤배우기

테마여행의 마지막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함께 하는 탈춤 배워보기. 색색깔의 한삼을 낀 정기회원 가족들은 시립무용단 단원 황선희, 이정인 씨의 지도에 따라 탈춤의 기본동작을 따라 배웠다.

도심 속 골목길에서 만났던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현장. 면면히 이어오는 그 곳처럼 이날의 여행도 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개막작
사천성천극원 (중국)

www.bipaf.org

〈수유기〉



Hello, Asia!

제19회 부산국제연극제

2012. 5. 4(금) ~ 13(일)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폐막작
Red Leap Theatre (뉴질랜드)

〈이방인 (The Arrival)〉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경성대 콘서트홀·예노소극장·멀티미디어 소강당
용천지랄소극장, 공간소극장 등 부산 시내 공연장

티켓 예매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사무국

Tel 051) 714 6920

ticket.auction.co.kr

ticket.auction.co.kr

BS 팝부산

www.popbusan.com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Choral

부산시립합창단 창단40주년 특별연주회

Festival Missa



지휘. 전상철



2012. 4. 20 | 금 |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립합창단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2012년 4월 공연일정

2012
April
4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01</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7:00 균일 1만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010-7400-6199)</p>	<p>02</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여인화' 19:30 균일 1만 5천원 / 극연구집단 시나위(010-6807-6066)</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9:30 균일 1만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010-7400-6199)</p>	<p>03</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여인화' 19:30 균일 1만 5천원 / 극연구집단 시나위(010-6807-6066)</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여행을 떠나요!' 19:30 균일 1만5천원 / 극단 더블스테이지(010-7400-6199)</p>	<p>04</p>	<p>05</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여명의 사면' 19:30 균일 1만 5천원 / 몽키프로젝트(908-5807)</p> <p>제30회 부산연극제 '제5회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무료 / 부산연극협회(645-3759)</p>	<p>06</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여명의 사면' 19:30 균일 1만 5천원 / 몽키프로젝트(908-5807)</p> <p>제30회 부산연극제 '제5회 부산시민연극제' 14:30, 16:00 무료 / 부산연극협회(645-3759)</p>	<p>07</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5:00, 19: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제5회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16:00, 17:00 무료 / 부산연극협회(645-3759)</p>	
<p>08</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4:00, 18: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바문사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17:0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바문사(010-6519-1683)</p>	<p>09</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바문사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19:3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바문사(010-6519-1683)</p>	<p>10</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9:3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1</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5:0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하늘개인날 '그분이 오신다' 19:30 균일 1만 5천원 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p> <p>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9:3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2</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하늘개인날 '그분이 오신다' 19:30 균일 1만 5천원 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p> <p>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9:3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3</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9:3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4</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5:00, 19: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극단 맥 '대양 07호' 17:00 균일 1 만 5천원 / 극단 맥(010-5232-1350)</p> <p>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7:0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5</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4:00, 18: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30회 부산연극제 극단 맥 '대양 07호' 17:00 균일 1만 5천원 / 극단 맥(010-5232-1350)</p> <p>극단 프로젝트팀 '청춘정담' 17:00 균일 3만원 / 프로젝트팀 이틀(050-7567-0139)</p>	<p>16</p> <p>제30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리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 '불의 향연' 19:30 초대 / 리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010-9944-8825)</p>	<p>17</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임호진·최민경 피아노 듀오 콘서트 19:30 균일 2만원 / 최민경(010-9496-2687)</p>	<p>18</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허혜정 피아노 리사이틀 19:30 2만원·1만원 아트뱅크크리에이(442-1941, 010-3597-6808)</p>	<p>19</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8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012 제39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우수자 연주회 19:00 무료 /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20</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특별연주회 'Choral-Festival Missia' 19:30 1만원·7천원 5천원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7 '줄아서 하는 밴드'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21</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5:00, 19: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리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 이상훈(010-2066-1331)</p> <p>어드벤처 전문교사 연주회 18:00 무료 / 박진영(010-2329-0510)</p>	
<p>22</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4:00, 18: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15:00 초대 / 플루트하우스(02-3487-2462)</p>	<p>23</p>	<p>24</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 배천종(010-7576-4110)</p>	<p>25</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26</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시리즈 '1시에 만나요' - 사랑의 묘약 하이라이트 11:00 균일 1만원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극단 제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 19:00 균일 1만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27</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9:30 13만원·11만원·9만원 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제23회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p> <p>부산시립극단 제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 19:00 균일 1만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28</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5:00, 19: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산시립극단 제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 15:00 균일 1만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29</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14:00, 18:30 13만원·11만원 9만원·7만원·5만원 /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썸 공연단 - 라틴 아메리칸 댄스 공연 18:00 3만원·2만원 / 썸 공연단(644-6627)</p> <p>부산시립극단 제43회 정기공연 '오레스테이아' 15:00 균일 1만원 / 부산시립극단(607-3151~2)</p>	<p>30</p> <p>제12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19:30 초대 / 정년경(017-563-5301)</p> <p>소프라노 이영숙 독창회 19:30 초대 / 공연기획 락엔(055-313-9465)</p>	<p>1/05</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권혜영 & 배수정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 김민정(010-6531-0307)</p> <p>최영희 비올라 독주회 19:30 초대 / 최영희(010-3564-1194)</p>	<p>2/05</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듀오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 김민정(010-6531-0307)</p>	 <p>미스 사이공</p>			<p>전시일정</p> <p>대한민국미술전람회-대전시실 4월 3일(화)~4월 7일(토) 송호(011-845-9599)</p> <p>제9회 부산서예전람회-대, 중전시실 4월 14일(토)~4월 17일(화) 배형동(016-849-6211)</p> <p>2012 부산국제아트페어-대, 중전시실 4월 20일(목)~4월 29일(일) 허숙(010-8980-5684)</p>

April 2012 Program Guide

2012
April 4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01</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Doublestage Theater Company 17:00 15,000 / Doublestage(010-7400-6199)</p>	<p>02</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Sinawi Theater Company 19:30 15,000 / Sinawi(010-6807-6066)</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Doublestage Theater Company 19:30 15,000 / Doublestage(010-7400-6199)</p>	<p>03</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Sinawi Theater Company 19:30 15,000 / Sinawi(010-6807-6066)</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Doublestage Theater Company 19:30 15,000 / Doublestage(010-7400-6199)</p>	<p>04</p>	<p>05</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Monkey Project Theater Company 19:30 15,000 / Monkey Project(908-5807)</p> <p>The 5th Busan Citizen Theater Festival 14:00, 15:00 Free / Busan Theater Society(645-3759)</p>	<p>06</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Monkey Project Theater Company 19:30 15,000 / Monkey Project(908-5807)</p> <p>The 5th Busan Citizen Theater Festival 14:30, 16:00 Free / Busan Theater Society(645-3759)</p>	<p>07</p> <p>Musical 'Miss Saigon' 15:00,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5th Busan Citizen Theater Festival 14:00, 15:00, 16:00, 17:00 Free / Busan Theater Society(645-3759)</p>	
<p>08</p> <p>Musical 'Miss Saigon' 14:00, 18: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Bamonsa Theater Company 17:00 15,000 / Bamonsa(010-6519-1683)</p>	<p>09</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Bamonsa Theater Company 19:30 15,000 / Bamonsa(010-6519-1683)</p>	<p>10</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9:3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1</p> <p>Musical 'Miss Saigon' 15:00 130,000/110,000/90,000/70,000/50,000</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A Clear Sunny Day' Theater Company 19:30 15,000 / A Clear Sunny Day(010-9495-4730)</p> <p>'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9:3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2</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A Clear Sunny Day' Theater Company 19:30 15,000 / A Clear Sunny Day(010-9495-4730)</p> <p>'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9:3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3</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9:3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4</p> <p>Musical 'Miss Saigon' 15:00,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MacTheater 17:00 15,000 / MacTheater(625-2117)</p> <p>'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7:0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5</p> <p>Musical 'Miss Saigon' 14:00, 18: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MacTheater 17:00 15,000 / MacTheater(625-2117)</p> <p>'Project Team Two Days' Theater Company 17:00 30,000 / Project Team Two Days(050-7567-0139)</p>	<p>16</p> <p>The 30th Busan Theater Festival 'RaonJaena Harmonica Ensemble' 19:30 Invitation RaonJaena Harmonica Ensemble(010-9944-8825)</p>	<p>17</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Lim Hyojin & Choi Minkyung Piano Duo Concert 19:30 20,000 / Choi Minkyung(010-9476-2687)</p>	<p>18</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Pianist Heo Hyejung Recital 19:30 20,000/10,000 / Artbankkorea(442-1941)</p>	<p>19</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p> <p>The 478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 / B.P.O(607-3111-3)</p> <p>2012 The 39th National Student Music Contest Winners' Concert 19:00 B.M.M.S(634-1295)</p>	<p>20</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p> <p>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7,000/5,000 B.M.C(607-3141-2)</p> <p>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Vol.27 'JOABAND' 20:00 30,000 /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21</p> <p>Musical 'Miss Saigon' 15:00,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4th Regular Concert of RaonJaena Symphony Orchestra 18:00 Invitation / Lee Sanghoon(010-2066-1331)</p> <p>Adventure Specialist Teacher's Concert 18:00 Free / Park Jinyung(010-2329-0510)</p>	
<p>22</p> <p>Musical 'Miss Saigon' 14:00, 18: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Oh Sinjung Flute Recita 15:00 Invitation / Flutehouse(02-3487-2442)</p>	<p>23</p>	<p>24</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3rd Regular Concert of Busan Buddhist Association Choir 19:30 Free / Bae Cheonjong(010-7576-4110)</p>	<p>25</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26</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Well-being Concert II'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L'elisir d'amore' 11:00 10,000 / B.P.O(607-3111-3)</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Oresteia' 19:00 10,000 / B.M.T.C(607-3151-2)</p>	<p>27</p> <p>Musical 'Miss Saigon'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2012 The 23rd Regular Concert of Kyung-sung University String Orchestra 19:30 Free / Kyungsung University(663-4918)</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Oresteia' 19:00 10,000 / B.M.T.C(607-3151-2)</p>	<p>28</p> <p>Musical 'Miss Saigon' 15:00, 19: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Oresteia' 15:00 10,000 / B.M.T.C(607-3151-2)</p>	
<p>29</p> <p>Musical 'Miss Saigon' 14:00, 18:30 130,000/110,000/90,000/70,000/5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8)</p> <p>THE SUN Latin American Dance 18:00 30,000/20,000 / Sin Jung(644-6627)</p> <p>Busan Metropolitan Theater Company 'Oresteia' 15:00 10,000 / B.M.T.C(607-3151-2)</p>	<p>30</p> <p>The 12nd Regular Concert of Korea Piano Society, Yeongnam district branch 19:30 Invitation / Jung Yeonkyung(017-563-5301)</p> <p>Soprano Lee Youngsuk Recital 19:30 Invitation / Rock yeon(055-713-9465)</p>	<p>1/05</p> <p>The 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Society 19:30 10,000 / Kim Minjung(010-6531-0307)</p> <p>Choi Younghwa Viola Recital 19:30 Invitation / Choi Younghwa(010-3564-1194)</p>	<p>2/05</p> <p>The 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Society 19:30 10,000 / Kim Minjung(010-6531-0307)</p>	 <p>Miss Saigon</p>			<p>Exhibition Hall</p> <p>Korea Art Contest Exhibition-Main Exhibition Hall 4.3(Thu)-4.7(Sun) Songho(011-845-9599)</p> <p>The 9th Busan Calligraphy Exhib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4.14(Sat)-4.17(Tue) Bae hyungdong(016-849-6211)</p> <p>Busan International Art Fair, 2012 Main, Middle Exhibition Hall 4.20(Thu)-4.29(Sun) BIAF(010-8980-5684)</p>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4매할인(공연회당)
일반회원	30,000원	2매할인(공연회당)
청소년회원	20,000원	1매할인(공연회당)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청소년 회원은 만 15세 이하이며, 회원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할인율 기획공연 10~30%, 부산시립예술단공연 10~30%

혜 택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문화강좌 할인, 정기회원 테마여행(추첨), 부산시내 주요 공연장 할인,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전화 607-3100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계좌입금(부산은행 036-01-0348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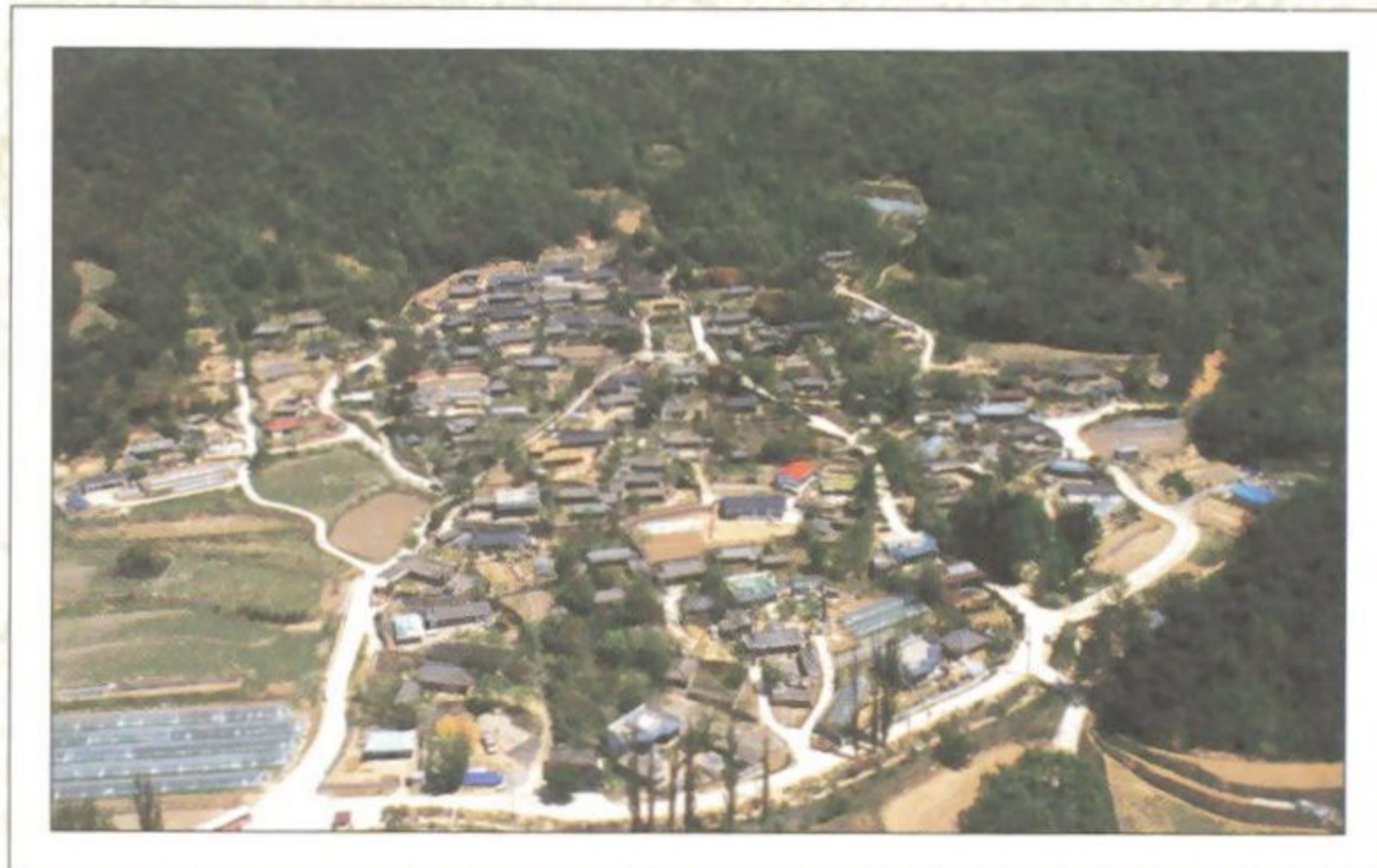
가입취소 5일이후 회원 가입 취소 불가

예약취소 공연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 051)607-3100 F. 051)607-3109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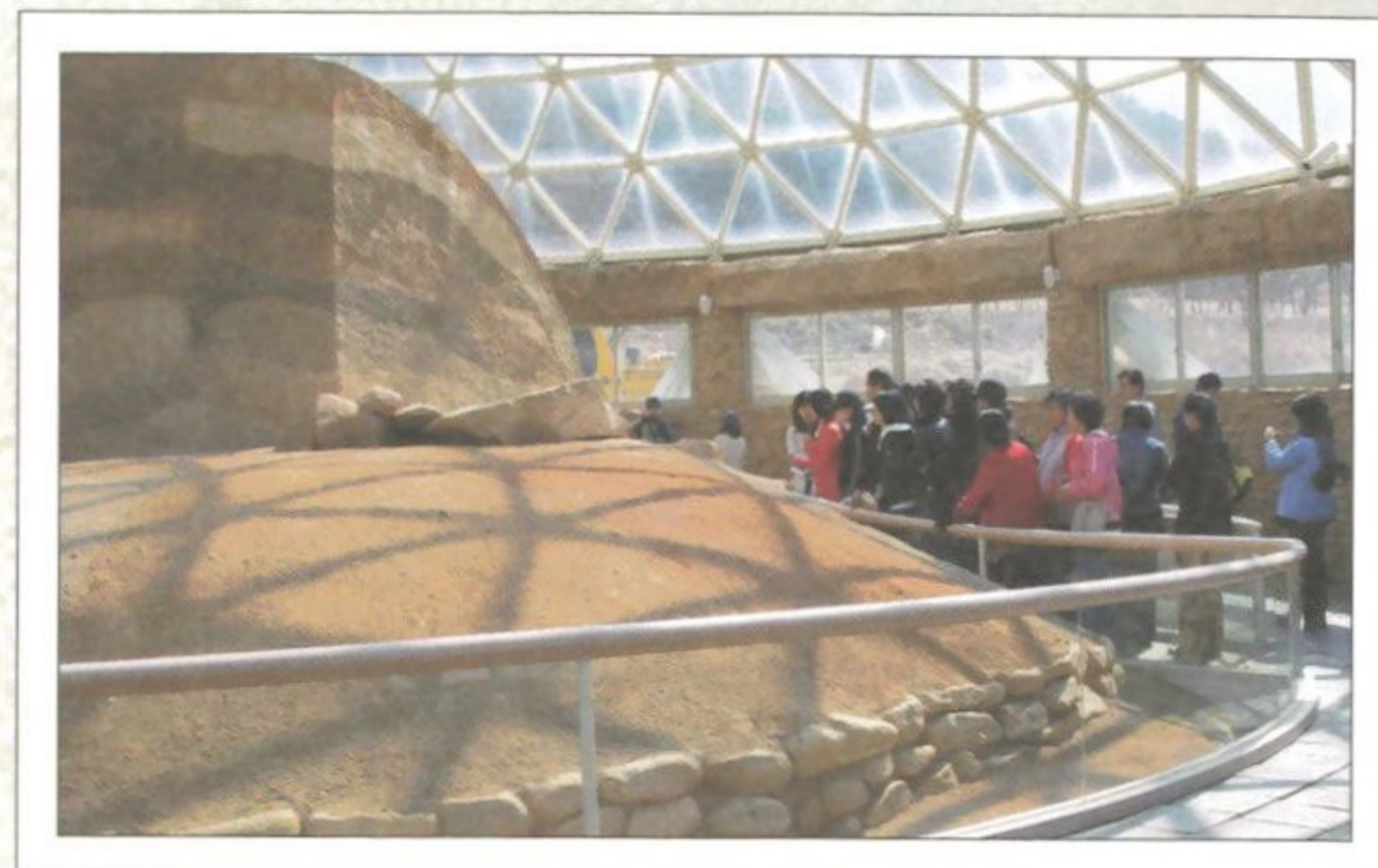


성주

2012년 5월 11일(금)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참외의 본고장 성주 여행. 성산 이씨가 터를 이룬 5백년이 넘는 집성촌 한개마을을 비롯해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등에서 성주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30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 12:30 중식
- 13:30 한개마을 마을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창녕

2012년 6월 8일(금)

1억 4천 만 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창녕 초여름 기행.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 국보 33호 창녕신라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온천·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문화 도시 창녕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창녕도착, 창녕역사기행 - 창녕박물관, 교동고분군, 만옥정공원(신라 진흥왕척경비), 창녕석빙고, 창녕향교 등
- 12:30 중식
- 13:30 우포 가시연꽃마을 생태탐방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April Vol.24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해피동기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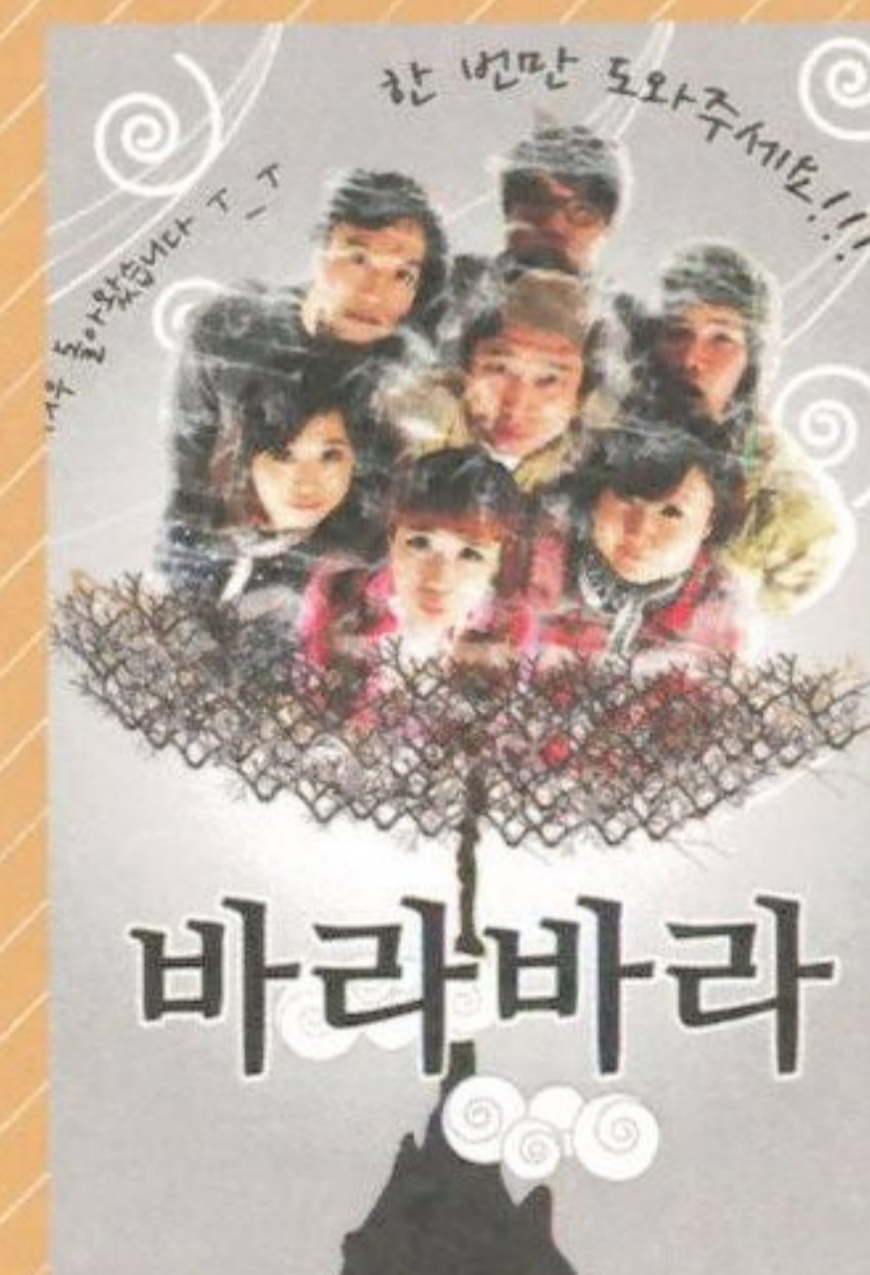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
Discount

코미디연극
바라바라



20%
Discount

연극
라이어 1탄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7

좋아서 하는 밴드

2012. 4. 20(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사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2.concert



30%
Discount

연극
청춘정담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라바라

2012.1.13(금) Open Run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라이어

2012.3.16(금)-4.15(일)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청춘정담

2012.3.2(금)-4.1(일)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5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 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가정의 달 기념

5월

가족사랑 콘서트

천우권의


행복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천우권의 행복

Te Quiero

당신을 사랑합니다



2012.5.1(화) 오후 7:30_ 북구문화빙상센터
2012.5.3(목) 오후 7:30_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픈 스트링스와 함께하는 천우권의 행복

가족, 사랑 그리고 행복




2012. 5. 10(목) 오후 7:30_ 동래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크로노스 앙상블과 함께하는 천우권의 행복

즐거워 나의 집



2012. 5. 11(금) 오후 7:30_ 을숙도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천우권의 행복

국악의 향기 속으로



2012. 5. 17(목) 오후 7:30_ 영도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Busan International 2012
Magic Festival

매직 걸 라쇼


2012. 5. 15(화) 19:30_ 을숙도문화회관
2012. 5. 16(수) 19:30_ 동래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천우권의 행복

마당춤 판

호녀심청



2012. 5. 31(목) 오후 7:30_ 해운대문화회관

입장권 1,000원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KCMI, INC. PRESENTS
CAMERON MACKINTOSH'S
PRODUCTION OF
BOUBLIL & SCHÖNBERG'S
LEGENDARY

**MISS
Saigon**

TM © 1988 CML

2012년 4월 5일 ~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3:00, 7:30 / 일요일 오후 2:00, 6:30

4월 11일(선거일) 오후 3:00 / 월요일 공연 없습니다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 문의 | 1599-1980 goconcert.co.kr

주최 | 부산광역시 KNN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 예술기획성우 제작 | (주) 예술기획성우 KCMI